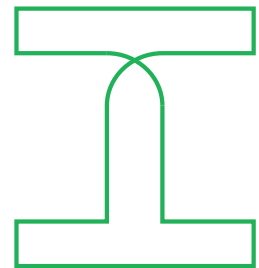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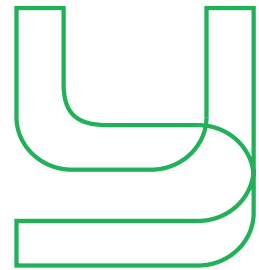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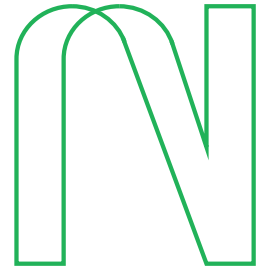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책임연구원 서정아

공동연구원 김희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V: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 책임연구원 :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희주(협성대학교 · 교수)
- ▶ 연구보조원 : 이상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는 2016년 현재 4년차 연속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연구의 세부영역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II과 정책화 방안’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2013년부터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연구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내용과 방법 등에서 유사한 프레임으로 진행하였다. 더불어 연구과정에서 지난 3개년(2013-2015)의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의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인용되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금년도 주요 연구내용으로 보고서[II]은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지표 조사,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청소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지역 우수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고서[III]에는 시범사업 2개 지역 실시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효과 분석, 국내외 ‘마을만들기’ 유사사례 관련 자료 및 현장 면접조사 분석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마을 활성화를 위한 실행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행복마을(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와 실무진의 노력, 더불어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단위의 ‘청소년의회 혹은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운영’을 청소년 분야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의 참여와 주도적인 기획으로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천하는 계기를 조성한다.

셋째,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보다는 지속적인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굴, 공모전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화 모형’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이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시민교육의 장이자 참여 학습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2016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를 만들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방법으로 2014년, 2015년에 이어 3차년도 청소년 행복 지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라북도 완주군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인지적 행복(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영역별로 인구학적 특성(학업성적), 관계 영역(가족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인간관계만족도), 주관적 웰빙 영역(부정적 정서, 유데모니아, 외향적인 성격), 건강 영역(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정도, 건강만족도), 교육 영역(교과과정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안전영역(학교시설 안전도, 위기상황대처능력, 생활안전만족도), 활동영역(놀이친구접근성, 여가활동시간만족도, 청소년활동만족도), 참여영역(징계소명권,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학생참여권만족도), 환경영역(지역사회유해환경인지도, 지역사회환경만족도), 경제영역(가정경제수준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으로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 방향으로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서적 행복(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구학적 특성(성별, 학업성적), 관계 영역(가족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사적대인신뢰, 정부조직신뢰, 가족간의 대화시간, 인간관계만족도), 주관적 웰빙 영역(부정적 정서, 유데모니아), 건강 영역(스트레스 정도, 고카페인이용량), 교육 영역(학교생활만족도, 생활안전만족도), 활동 영역(여가활동시간만족도, 여가활동공간만족도, 여가활동용돈만족도, 청소년활동만족도), 참여영역(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행복 중요지표(안)을 제시하고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 키워드: 청소년, 행복, 지표, UNESCO 아동친화도시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중요변인을 도출하고자 실시되었다.

2. 연구방법

- 연구방법으로 문헌고찰, 청소년 행복 지표 설문조사,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전문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3. 주요결과

1) 이론적 배경

- 청소년행복에 대한 이론은 행복기준점 이론, 행복의 상향이론과 하향이론, 행복의 통합적 설명모델, 목표이론, 비교이론, 적응과 대처이론 등이 있다.
-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행복 관련 영향요인에는 다양한 것이 있으며 정치수준(질), 좋은 정부, 공공정책, 신뢰·규범·사회관계망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자본, 개인의 성격, 건강, 약물남용 등 위험약물, 직업, 취업, 가족구조의 변화(부모의 이혼 등), 사회적지지, 부모양육태도, 주거지 이동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는 아동·청소년의 참여보장,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법체계 구축,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권리 실현 전략 수립, 아동·청소년 정책 조정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영향평가 실시, 아동·청소년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청소년 실태 보고서 작성, 아동·청소년의 권리 홍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수행,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이 있다.

2) 청소년 행복지표 설문조사

- 주관지표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가족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이웃(지역사회)만족도,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객관지표의 경우 청소년자살율과 청소년흡연율, 학업중단율은 수치상으로 낮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사회복지지출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지표의 경우 주관지표와 객관지표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고무적이다. 행복지표의 하위변인별 시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주관지표와 객관지표 전 영역에서 시도별 차이가 고루 나타나 행복지표의 요소간 지역간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 인지적 행복(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영역별로 인구학적 특성(학업성적), 관계 영역(가족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인간관계만족도), 주관적 웰빙 영역(부정적 정서, 유데모니아, 외향적인 성격), 건강 영역(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정도, 건강만족도), 교육 영역(교과과정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안전영역(학교시설안전도, 위기상황대처능력, 생활안전만족도), 활동영역(놀이친구접근성, 여가활동시간만족도, 청소년활동만족도), 참여영역(징계소명권,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학생참여권만족도), 환경영역(지역사회 유해환경인지도, 지역사회환경만족도), 경제영역(가정경제수준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서적 행복(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구학적 특성(성별, 학업성적), 관계 영역(가족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사적대인신뢰, 정부조직신뢰, 가족간의 대화시간, 인간관계만족도), 주관적 웰빙 영역(부정적 정서, 유데모니아), 건강 영역(스트레스 정도, 고카페인이용량), 교육 영역(학교생활만족도, 생활안전만족도), 활동 영역(여가활동시간만족도, 여가활동공간만족도, 여가활동용돈만족도, 청소년활동만족도), 참여영역(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친화도시 전문가 심층면접

- 아동친화도시 예측요인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 실무자의 관심과 의지,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정책실행, 지역 아동 전체를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확대, 아동·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 권리 증진, 아동·청소년 정책을 위한 담당부서 설치와 민간 전문가 영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책제언

- 성별 맞춤형 정서적 행복 증진 프로그램 실시
- 학업부담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 실시
- 가족관계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교우관계 개선 및 또래관계 부담 해소를 위한 학교,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
- 교사관계에 대한 부담 해소를 위한 노력
- 사적대인신뢰 개선을 위한 지원
- 정부조직신뢰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지방정부, 국가차원의 노력
- 가족간의 대화시간 확대를 위한 체계적 노력
- 인간관계만족도
- 부정적 정서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처 또는 해소프로그램 제공
-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
-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 건강만족도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 교과과정만족도 향상을 위한 청소년육구반영 및 교과과정 개선
- 학교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 경주
- 생활안전만족도를 높이되 청소년의 흥미를 지나치게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지양
- 청소년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와 시간 제공
- 청소년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의 학생참여권 보장
- 지역사회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 가정경제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 청소년행복도시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 경주: 지자체장의 추진의지, 실무진의 노력 등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추진과정	4
3. 연구내용	4
4. 연구방법	6
II. 이론적 고찰	21
1. 청소년 행복에 관한 이론	23
2. 청소년 행복 영향요인	27
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29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례	32
III. 청소년 행복지표의 변화	35
1. 청소년 행복지표(2014~2016) 특성	37
2. 청소년 행복지표(2014~2016)의 변화	38
IV. 청소년 행복지표의 시도별 차이	43
1. 청소년 행복지표(2016) 개요	45
2. 청소년 행복지표(2016)의 시도별 차이	53
V. 청소년 행복지표 영향요인	149
1. 청소년 행복지표간 상관관계	154
2. 청소년 행복 영향요인	156

VI. 청소년 행복지표 우수사례	161
1. 개요	163
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현황	164
3. 우수사례 결과분석	169
4. 소결	187
VII. 결론 및 제언	189
1. 주요 결과 요약	191
2.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지표(안) 제시	193
3. 미래의 방향: 개선사항	195
참 고 문 헌	205
부 록	211
【부록 1】 설문지	213
【부록 2】 아동친화도시 전문가 심층면접 주제영역 및 내용(안)	239
【부록 3】 객관지표 통계자료	241

표 목차

〈표 Ⅰ-1〉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7
〈표 Ⅰ-2〉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8
〈표 Ⅰ-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8
〈표 Ⅰ-4〉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9
〈표 Ⅰ-5〉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9
〈표 Ⅰ-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10
〈표 Ⅰ-7〉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10
〈표 Ⅰ-8〉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11
〈표 Ⅰ-9〉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12
〈표 Ⅰ-1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13
〈표 Ⅰ-11〉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14
〈표 Ⅰ-1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14
〈표 Ⅰ-1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15
〈표 Ⅱ-1〉 UN 아동권리협약(CRC)의 4대 기본권리	29
〈표 Ⅱ-2〉 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과업 및 추진원칙	31
〈표 Ⅲ-1〉 가족관계만족도 변화(2014-2016)	38
〈표 Ⅲ-2〉 교우관계만족도 변화(2014-2016)	39
〈표 Ⅲ-3〉 교사관계만족도 변화(2014-2016)	39
〈표 Ⅲ-4〉 이웃(지역사회)만족도 변화(2014-2016)	40
〈표 Ⅲ-5〉 삶의 만족도 변화(2014-2016)	40
〈표 Ⅲ-6〉 청소년자살률 변화(2012-2015)	40
〈표 Ⅲ-7〉 평균수면시간 변화(2013-2015)	41
〈표 Ⅲ-8〉 청소년흡연률 변화(2013-2015)	41

〈표 III-9〉 학업중단률 변화(2013-2015)	41
〈표 III-10〉 사회복지지출 변화(2013-2016)	42
〈표 IV-1〉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45
〈표 IV-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값: 관계 영역	47
〈표 IV-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값: 주관적 웰빙 영역	49
〈표 IV-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값: 건강 영역	50
〈표 IV-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값: 교육 영역	50
〈표 IV-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값: 안전 영역	51
〈표 IV-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값: 활동 영역	51
〈표 IV-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값: 참여 영역	52
〈표 IV-9〉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값: 환경 영역	52
〈표 IV-10〉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값: 경제 영역	52
〈표 IV-11〉 시도별 (2016) 인간관계만족도	53
〈표 IV-12〉 시도별 (2016) 가족관계만족도	54
〈표 IV-13〉 시도별 (2016) 부모관계만족도	55
〈표 IV-14〉 시도별 (2016) 교우관계만족도	56
〈표 IV-15〉 시도별 (2016) 교사관계만족도	57
〈표 IV-16〉 시도별 (2016) 사적대인신뢰:부모님	58
〈표 IV-17〉 시도별 (2016) 사적대인신뢰:친구들	59
〈표 IV-18〉 시도별 (2016) 사적대인신뢰: 학교 선생님	60
〈표 IV-19〉 시도별 (2016) 사적대인신뢰: 이웃 사람들	61
〈표 IV-20〉 시도별 (2016) 사회적대인신뢰: 처음 만난 사람	62
〈표 IV-21〉 시도별 (2016) 사회적대인신뢰: 다른 나라 사람들	63
〈표 IV-22〉 시도별 (2016) 사회조직신뢰: 우리나라 전체	64
〈표 IV-23〉 시도별 (2016) 사회조직신뢰: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	65

〈표 IV-24〉 시도별 (2016) 사회조직신뢰: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66
〈표 IV-25〉 시도별 (2016) 사회조직신뢰: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67
〈표 IV-26〉 시도별 (2016) 정부조직신뢰: 지역사회 전문기관(공공)	68
〈표 IV-27〉 시도별 (2016) 정부조직신뢰: 지방정부	69
〈표 IV-28〉 시도별 (2016) 정부조직신뢰: 중앙정부	70
〈표 IV-29〉 시도별 (2016) 가족간의 대화시간(하루평균)	71
〈표 IV-30〉 시도별 (2016) 담임 교사와 면담횟수(일주일 평균)	72
〈표 IV-31〉 시도별 (2016)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하루평균)	73
〈표 IV-32〉 시도별 (2016) 이웃(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74
〈표 IV-33〉 시도별 (2016) 삶의 만족도	75
〈표 IV-34〉 시도별 (2016) 정서상태: 즐거운	76
〈표 IV-35〉 시도별 (2016) 정서상태: 편안한	77
〈표 IV-36〉 시도별 (2016) 정서상태: 불안한	78
〈표 IV-37〉 시도별 (2016) 정서상태: 슬픈	79
〈표 IV-38〉 시도별 (2016) 정서상태: 우울한	80
〈표 IV-39〉 시도별 (2016) 정서상태: 행복한	81
〈표 IV-40〉 시도별 (2016) 유데모니아	82
〈표 IV-41〉 시도별 (2016) 성격특성: 외향적인	83
〈표 IV-42〉 시도별 (2016) 성격특성: 걱정이 많은	84
〈표 IV-43〉 시도별 (2016) 건강만족도	85
〈표 IV-44〉 시도별 (2016) 주관적 건강상태	86
〈표 IV-45〉 시도별 (2016) 스트레스 정도	87
〈표 IV-46〉 시도별 (2016) 질병유무	88
〈표 IV-47〉 시도별 (2016) 질병유형	89
〈표 IV-48〉 시도별 (2016) 아침식사율(일주일 중 며칠)	90

〈표 IV-49〉 시도별 (2016) 고카페인 이용량	91
〈표 IV-50〉 시도별 (2016) 학교생활만족도	92
〈표 IV-51〉 시도별 (2016) 교과과정만족도	93
〈표 IV-52〉 시도별 (2016) 진로교육만족도	94
〈표 IV-53〉 시도별 (2016) 진로교육 · 체험경험	95
〈표 IV-54〉 시도별 (2016) 생활안전만족도	96
〈표 IV-55〉 시도별 (2016) 지역사회시설안전도	97
〈표 IV-56〉 시도별 (2016) 학교시설안전도	98
〈표 IV-57〉 시도별 (2016) 위기상황대처능력	99
〈표 IV-58〉 시도별 (2016) 범죄안전도(-)	100
〈표 IV-59〉 시도별 (2016)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인지정도	101
〈표 IV-60〉 시도별 (2016) 청소년활동만족도	102
〈표 IV-61〉 시도별 (2016) 놀이친구 접근성	103
〈표 IV-62〉 시도별 (2016) 여가활동시간만족도	104
〈표 IV-63〉 시도별 (2016) 여가활동공간만족도	105
〈표 IV-64〉 시도별 (2016) 여가활동용돈만족도	106
〈표 IV-65〉 시도별 (2016) 학생참여권만족도	107
〈표 IV-66〉 시도별 (2016) 아동권리인지	108
〈표 IV-67〉 시도별 (2016) 징계소명권	109
〈표 IV-68〉 시도별 (2016) 학칙개정권	110
〈표 IV-69〉 시도별 (2016)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관용성)	111
〈표 IV-70〉 시도별 (2016) 학생대표의 운영위참여기회(사회참여)	112
〈표 IV-71〉 시도별 (2016) 지역사회환경만족도	113
〈표 IV-72〉 시도별 (2016)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114
〈표 IV-73〉 시도별 (2016) 주택만족도	115

〈표 IV-74〉 시도별 (2016) 주거지형태	116
〈표 IV-75〉 시도별 (2016) 가정경제만족도	117
〈표 IV-76〉 시도별 (2015) 청소년(BMI)	118
〈표 IV-77〉 시도별 (2015) 청소년 자살률	119
〈표 IV-78〉 시도별 (2015) 평균운동시간	120
〈표 IV-79〉 시도별 (2015) 평균수면시간	121
〈표 IV-80〉 시도별 (2015) 청소년흡연율	122
〈표 IV-81〉 시도별 (2015) 청소년음주율	123
〈표 IV-82〉 시도별 (2014) 인터넷중독률	124
〈표 IV-83〉 시도별 (2015) 학업중단률	125
〈표 IV-84〉 시도별 (2016)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126
〈표 IV-85〉 시도별 (2014) 학업성취도	127
〈표 IV-86〉 시도별 (2015) 사교육비 지출액	128
〈표 IV-87〉 시도별 (2015) 청소년교통사고사상률	129
〈표 IV-88〉 시도별 (2015) 청소년안전사고사망률	130
〈표 IV-89〉 시도별 (2014) 청소년범죄피해율	131
〈표 IV-90〉 시도별 (2015) 아동학대피해경험률	132
〈표 IV-91〉 시도별 (2014) 학교폭력발생률	133
〈표 IV-92〉 시도별 (2013) 문화예술활동참여율	134
〈표 IV-93〉 시도별 (2014) 문화여가지출비용	135
〈표 IV-94〉 시도별 (2014) 동아리활동참여율	136
〈표 IV-95〉 시도별 (2015) 문화예술시설비율	137
〈표 IV-96〉 시도별 (2015) 청소년활동시설비율	138
〈표 IV-97〉 시도별 (2013) 청소년지도사비율	139
〈표 IV-98〉 시도별 (2015) 자원봉사참여율	140

〈표 IV-99〉 시도별 (2010) 통학소요시간	141
〈표 IV-100〉 시도별 (2015) 녹지접근성	142
〈표 IV-101〉 시도별 (2015) 지역경제수준	143
〈표 IV-102〉 시도별 (2014) 지니계수	144
〈표 IV-103〉 시도별 (2016) 사회복지지출비율	145
〈표 IV-104〉 시도별 (2014)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 비율	146
〈표 IV-105〉 시도별 (2016) 경제활동 참가율	147
〈표 IV-106〉 시도별 (2015) 실업률	148
〈표 V-1〉 다중공선성 진단	151
〈표 V-2〉 상관관계	154
〈표 V-3〉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지표	156
〈표 VI-1〉 성북구 아동·청소년 친화 관련 사업	166
〈표 VI-2〉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 관련 사업	169
〈표 VII-1〉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중요지표(안)	194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추진과정	4
【그림 IV-1】 시도별 (2016) 인간관계만족도	53
【그림 IV-2】 시도별 (2016) 가족관계만족도	54
【그림 IV-3】 시도별 (2016) 부모관계만족도	55
【그림 IV-4】 시도별 (2016) 교우관계만족도	56
【그림 IV-5】 시도별 (2016) 교사관계만족도	57
【그림 IV-6】 시도별 (2016) 사적대인신뢰: 부모님	58
【그림 IV-7】 시도별 (2016) 사적대인신뢰: 친구들	59
【그림 IV-8】 시도별 (2016) 사적대인신뢰: 학교 선생님	60
【그림 IV-9】 시도별 (2016) 사적대인신뢰: 이웃 사람들	61
【그림 IV-10】 시도별 (2016) 사회적대인신뢰: 처음 만난 사람	62
【그림 IV-11】 시도별 (2016) 사회적대인신뢰: 다른 나라 사람들	63
【그림 IV-12】 시도별 (2016) 사회조직신뢰: 우리나라 전체	64
【그림 IV-13】 시도별 (2016) 사회조직신뢰: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	65
【그림 IV-14】 시도별 (2016) 사회조직신뢰: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66
【그림 IV-15】 시도별 (2016) 사회조직신뢰: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67
【그림 IV-16】 시도별 (2016) 정부조직신뢰: 지역사회 전문기관(공공)	68
【그림 IV-17】 시도별 (2016) 정부조직신뢰: 지방정부	69
【그림 IV-18】 시도별 (2016) 정부조직신뢰: 중앙정부	70
【그림 IV-19】 시도별 (2016) 가족간의 대화시간(하루평균)	71
【그림 IV-20】 시도별 (2016) 담임 교사와 면담횟수(일주일 평균)	72
【그림 IV-21】 시도별 (2016)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하루평균)	73
【그림 IV-22】 시도별 (2016) 이웃(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74

【그림 IV-23】 시도별 (2016) 삶의 만족도	75
【그림 IV-24】 시도별 (2016) 정서상태: 즐거운	76
【그림 IV-25】 시도별 (2016) 정서상태: 편안한	77
【그림 IV-26】 시도별 (2016) 정서상태: 불안한	78
【그림 IV-27】 시도별 (2016) 정서상태: 슬픈	79
【그림 IV-28】 시도별 (2016) 정서상태: 우울한	80
【그림 IV-29】 시도별 (2016) 정서상태: 행복한	81
【그림 IV-30】 시도별 (2016) 유데모니아	82
【그림 IV-31】 시도별 (2016) 성격특성: 외향적인	83
【그림 IV-32】 시도별 (2016) 성격특성: 걱정이 많은	84
【그림 IV-33】 시도별 (2016) 건강만족도	85
【그림 IV-34】 시도별 (2016) 주관적 건강상태	86
【그림 IV-35】 시도별 (2016) 스트레스 정도	87
【그림 IV-36】 시도별 (2016) 질병유무	88
【그림 IV-37】 시도별 (2016) 질병유형	89
【그림 IV-38】 시도별 (2016) 아침식사율(일주일 중 며칠)	90
【그림 IV-39】 시도별 (2016) 고카페인 이용량	91
【그림 IV-40】 시도별 (2016) 학교생활만족도	92
【그림 IV-41】 시도별 (2016) 교과과정만족도	93
【그림 IV-42】 시도별 (2016) 진로교육만족도	94
【그림 IV-43】 시도별 (2016) 진로교육 · 체험경험	95
【그림 IV-44】 시도별 (2016) 생활안전만족도	96
【그림 IV-45】 시도별 (2016) 지역사회시설안전도	97
【그림 IV-46】 시도별 (2016) 학교시설안전도	98
【그림 IV-47】 시도별 (2016) 위기상황대처능력	99

【그림 IV-48】 시도별 (2016) 범죄안전도(-)	100
【그림 IV-49】 시도별 (2016)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인지도	101
【그림 IV-50】 시도별 (2016) 청소년활동만족도	102
【그림 IV-51】 시도별 (2016) 놀이친구 접근성	103
【그림 IV-52】 시도별 (2016) 여가활동시간만족도	104
【그림 IV-53】 시도별 (2016) 여가활동공간만족도	105
【그림 IV-54】 시도별 (2016) 여가활동용돈만족도	106
【그림 IV-55】 시도별 (2016) 학생참여권만족도	107
【그림 IV-56】 시도별 (2016) 아동권리인지	108
【그림 IV-57】 시도별 (2016) 징계소명권	109
【그림 IV-58】 시도별 (2016) 학칙개정권	110
【그림 IV-59】 시도별 (2016)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관용성)	111
【그림 IV-60】 시도별 (2016) 학생대표의 운영위참여기회(사회참여)	112
【그림 IV-61】 시도별 (2016) 지역사회환경만족도	113
【그림 IV-62】 시도별 (2016)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114
【그림 IV-63】 시도별 (2016) 주택만족도	115
【그림 IV-64】 시도별 (2016) 주거지형태	116
【그림 IV-65】 시도별 (2016) 가정경제만족도	117
【그림 IV-66】 시도별 (2015) 청소년(BMI)	118
【그림 IV-67】 시도별 (2015) 청소년 자살률	119
【그림 IV-68】 시도별 (2015) 평균운동시간	120
【그림 IV-69】 시도별 (2015) 평균수면시간	121
【그림 IV-70】 시도별 (2015) 청소년흡연율	122
【그림 IV-71】 시도별 (2015) 청소년음주율	123
【그림 IV-72】 시도별 (2014) 인터넷중독률	124

【그림 IV-73】 시도별 (2015) 학업중단률	125
【그림 IV-74】 시도별 (2016)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126
【그림 IV-75】 시도별 (2014) 학업성취도	127
【그림 IV-76】 시도별 (2015) 사교육비 지출액	128
【그림 IV-77】 시도별 (2015) 청소년교통사고사상률	129
【그림 IV-78】 시도별 (2015) 청소년안전사고사망률	130
【그림 IV-79】 시도별 (2014) 청소년범죄피해율	131
【그림 IV-80】 시도별 (2015) 아동학대피해경험률	132
【그림 IV-81】 시도별 (2014) 학교폭력발생률	133
【그림 IV-82】 시도별 (2013) 문화예술활동참여율	134
【그림 IV-83】 시도별 (2014) 문화여가지출비용	135
【그림 IV-84】 시도별 (2014) 동아리활동참여율	136
【그림 IV-85】 시도별 (2015) 문화예술시설비율	137
【그림 IV-86】 시도별 (2015) 청소년활동시설비율	138
【그림 IV-87】 시도별 (2013) 청소년지도사비율	139
【그림 IV-88】 시도별 (2015) 자원봉사참여율	140
【그림 IV-89】 시도별 (2010) 통학소요시간	141
【그림 IV-90】 시도별 (2015) 녹지접근성	142
【그림 IV-91】 시도별 (2015) 지역경제수준	143
【그림 IV-92】 시도별 (2014) 지니계수	144
【그림 IV-93】 시도별 (2016) 사회복지지출비율	145
【그림 IV-94】 시도별 (2014)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 비율	146
【그림 IV-95】 시도별 (2016) 경제활동 참가율	147
【그림 IV-96】 시도별 (2015) 실업률	148
【그림 VI-1】 성북구청 조직도	165

【그림 VI-2】 아동의 4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사업 내용	167
【그림 VI-3】 완주군청 행정조직도	168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과정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행복은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 지대한 관심을 받는 연구주제이다. 세계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빈곤상태에서 벗어났음에도 여전히 개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학업부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과도한 경쟁사회에 놓여있는 한국사회의 아동·청소년의 삶은 더욱 그러하다. 경제학자인 이스털린은 유명한 ‘이스털린의 역설’에서 경제상황이 어느 수준 이상인 국가들 사이에서는 경제상황의 호전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강조하면서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다양한 측면의 기여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많은 매체에서 한국 아동·청소년의 행복, 삶의 질이 OECD 국가의 최하수준이라는 데 개탄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이는 한국 아동·청소년이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처해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비교적 높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행복,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사실은 아동·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대두시키며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할 뿐 아니라 이러한 노력, 영향변인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표들을 검토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행복을 위한 단초가 제시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개입지점이 밝혀질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아동·청소년 개인 또는 부모 등 가족체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 특히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3년부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행복을 측정하는 객관적, 주관적 차원의 지표가 개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차이, 청소년 행복 수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올해는 2014년, 2015년에 이어 3차년도 청소년 행복 지표 조사가 실시되는 해로 본 연구는 2016년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2014년, 2015년 연구를 종합하여 그 간의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행복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지자체별 차이를 파악하여 어떠한 지자체가 청소년행복에 대한 긍정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3년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도출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보다 심층적인 정책방안 제시를 위해 현재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라북도 완주군의 사례를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검토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친화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성공요인을 살펴보았다.

2. 연구추진과정

본 연구는 크게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구성을 위한 설문조사 및 객관지표 조사, 아동친화도시 정책담당자 면접조사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공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연구추진 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내용 \ 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설문조사 완료	→					
설문조사 분석	→	→	→	→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정책담당자 FGI	→	→	→	→		
결과보고서 작성					→	→

【그림 I-1】 연구추진과정

3.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행복지표 관련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지표

- 본 연구의 청소년행복지표는 2014년 청소년 행복지표(1차)를 2015년에 CFCI(Child Friendly City Index), 유네스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을 참고로 재구성(2차)하여 총 9개 영역 68개 항목으로 구성된 2015년 행복지표를 근간으로 한다. 2015년 행복지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성운숙·홍성호, 2015).
- 관계: 가족관계만족도, 부모(보호자)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직접적 관계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사람), 간접적 관계 일반신뢰도(우리나라전체, 사이버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정부), 가족간의 대화 시간, 담임 교사와 면담횟수,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 주관적 웰빙: 정서상태, 삶의 만족도, 유데미니아
-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고카페인 이용량, 평균운동시간, 평균수면시간, 아침식사율,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 BMI(신체질량지수), 인터넷 중독률, 청소년 자살률, 질병유무
- 교육: 사교육비 지출액, 교과과정 만족도, 학교중단율,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학업성취도, 진로교육만족도
- 안전: 지역사회시설안전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학교시설 안전도, 학교폭력 발생률, 사회안전망(CCTV) 구축 인지정도, 범죄 안전도, 위기상황 대처능력, 청소년교통사고사상률, 청소년범죄피해율, 청소년안전사고 사망률
- 활동: 여가활동시간 만족도, 여가활동공간 만족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놀이친구 접근성, 동아리활동 참여율, 문화여가 지출비용, 문화예술시설 비율, 청소년활동시설 비율, 청소년지도사 비율,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 참여: 아동권리 인지,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 자원봉사 참여율,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존중)
- 환경: 지역사회유해환경인지도, 주택만족도, 통학소요시간, 녹지접근성
- 경제: 가정경제만족도, 실업률, 지니계수, 지역경제수준, 사회복지지출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국민기초생활수혜비율
- 2016년에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2015년 청소년 행복지표(2차 년도)를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수정·보완하되 가능한 3년간 지표의 상호비교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문항 수정을 최소화하였다.

○ 2016년 설문지의 주요 수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설문지와 중고등학교 설문지에 사실상 명확한 차이가 없으나, 설문지를 통일하되 어려운 용어는 초등학교 학생과 중고등학생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다. 단, 리서치회사의 설문조사과정에서 동의서 수령과 관련하여 부득이 초등학교 설문지와 중고등학교 설문지를 별도 표지로 인쇄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별도로 사용하되 사실상 세부 내용은 동일하도록 하였다.
 - 질문지가 애매하거나 명확하지 않는 경우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보완하였다. 그 예로 “부모님, 친구들, 학교 선생님 등...”에 대해 “다음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나요?”라고 질문했던 것은 “다음 대상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나요?” 등으로 수정하였다.
 - 설문지 상의 연도를 설문지가 실시되는 연도인 2016년으로 수정하였다.
 - 설문지 내의 용어를 변경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연구의 연속성상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용어나 질문이 다소 애매한 경우 질문에 대한 의도를 조사원 교육에서 명확히 해주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 대상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 자문 결과 “처음 만난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등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선택지에 추가하였다.
 - 일부 복수응답이 가능한 경우(예: 학생의 질병과 관련하여 선천적 질병과 후천적 질병을 선택하도록 한 경우) 복수응답 체크하도록 설문지에 기재하였다.
 - 문항에 명확한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하였다.(예: 종교를 묻는 질문에서 “없다”라고 응답하는 란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종교에 다시 “없음”이 있어 삭제하는 것 등)
- 이렇게 구성된 3차년도 행복지표를 바탕으로 전국(제주도 포함) 초(46학년)·중·고등학교(1, 2, 3학년) 학생 청소년 약 9,0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 진단을 실시하였다.

4.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설문조사 분석 및 전문가 심층면접 분석이며 설문조사에 관한 표본 설계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¹⁾.

1) 이 절은 호서대학교 강현철 교수가 집필하였음.

1) 모집단 분석

(1) 모집단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이 본 조사의 모집단이다.

(2) 모집단 분석

16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수를 표에 정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학생수는 4,683,052명, 각 학교급별 학생수는 초등학교 1,333,402명(28.5%), 중학교 1,573,960명(33.6%), 고등학교 1,775,690명(37.9%)이다. 고등학교는 고교유형 및 학제를 바탕으로 유형 1(일반고)(일반고 중 일반, 종합고등학교), 유형 2(자율고)(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유형 3(특성화고)(가사, 공업, 농림업, 상업, 수산, 실업, 해양고등학교, 특성화고(대안교육), 특수목적고 중 예술, 체육고등학교), 유형 4(특수목적고)(과학, 국제, 외국어고등학교)로 구분하였다. 지역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교수 및 학생수는 표와 같다.

표 I-1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구분	학생수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68,960	75,688	78,537	76,575	85,997	99,237	598	598	598	384	384	384
경기	111,646	120,900	124,124	120,138	134,725	151,815	1,215	1,212	1,218	613	613	612
인천	23,926	25,500	26,968	25,942	29,551	33,123	241	241	242	134	132	132
강원	12,347	13,249	13,691	14,124	15,872	17,700	330	328	343	162	162	162
충북	13,101	14,254	14,545	14,656	16,869	18,661	262	262	258	128	128	128
충남	19,628	20,968	21,176	20,826	23,641	25,991	427	432	434	205	205	205
대전	13,665	14,963	15,474	15,234	17,093	19,402	147	148	148	88	88	88
경북	19,911	21,103	22,160	22,129	25,596	29,227	399	410	415	287	286	287
경남	28,368	30,670	31,592	31,267	35,964	40,632	477	484	488	272	272	272
부산	23,588	25,808	27,453	27,130	31,546	35,662	306	306	306	171	171	170
대구	20,184	21,817	23,663	23,023	26,886	30,605	220	220	220	124	124	123
울산	10,037	10,730	11,305	10,903	13,021	14,837	120	120	119	62	62	61
전북	15,687	16,852	17,628	18,179	20,654	23,204	384	389	390	209	209	208
전남	14,369	15,742	16,432	16,818	19,368	22,017	411	411	416	246	250	252
광주	13,988	15,458	16,688	16,122	18,697	21,370	153	153	153	89	88	88
제주	5,990	6,229	6,640	6,470	7,333	8,128	112	112	114	45	44	44
합계	415,395	449,931	468,076	459,536	522,813	591,611	5,802	5,826	5,862	3,219	3,218	3,216

표 I-2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64,164	67,478	72,003	14,211	13,148	13,712	18,885	18,310	18,139	2,157	2,191	2,181
경기	118,967	118,930	120,442	3,839	4,111	4,137	20,378	20,562	21,821	2,597	2,543	2,636
인천	21,725	22,175	23,461	1,989	1,747	1,828	7,646	7,565	7,680	761	782	638
강원	14,012	14,405	14,596	157	157	141	3,393	3,516	3,535	214	190	155
충북	11,025	11,300	11,770	1,550	1,589	1,543	5,332	5,469	5,466	247	232	166
충남	17,632	17,236	17,382	2,221	2,221	1,873	6,114	6,203	6,189	447	341	289
대전	11,972	12,468	12,714	2,891	2,857	2,776	3,611	3,727	3,787	434	437	488
경북	19,905	19,307	20,493	2,576	2,627	2,645	7,115	7,051	7,214	233	219	139
경남	30,131	30,512	31,140	2,770	2,747	2,839	5,720	5,859	6,079	562	535	363
부산	21,346	22,383	23,956	3,510	3,596	3,739	9,151	8,893	8,891	1,210	1,239	1,080
대구	18,278	18,533	19,829	5,586	5,723	5,956	6,689	6,446	6,747	328	311	246
울산	10,437	10,688	11,480	1,049	937	979	3,064	3,293	3,242	262	248	182
전북	16,677	17,121	17,346	997	959	908	5,443	5,534	5,554	219	216	174
전남	13,496	13,600	13,723	2,224	2,251	2,318	6,433	6,445	6,791	213	203	131
광주	15,157	15,503	15,995	1,138	1,105	1,050	4,262	4,379	4,771	94	94	12
제주	5,022	4,949	5,091	229	226	222	2,247	2,187	2,281	143	134	106
합계	409,946	416,588	431,421	46,937	46,001	46,666	115,483	115,439	118,187	10,121	9,915	8,986

표 I-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4	184	184	43	43	43	81	81	81	10	10	10
경기	352	344	338	13	13	13	82	82	82	13	13	13
인천	79	79	79	8	7	7	31	31	31	5	5	5
강원	86	86	86	1	1	1	28	27	27	2	2	2
충북	46	46	45	6	6	6	29	29	29	2	2	2
충남	76	72	70	10	10	9	39	39	39	4	3	3
대전	37	37	37	8	8	8	14	14	14	3	3	3
경북	119	117	117	11	11	11	60	60	60	3	3	3
경남	137	136	136	10	10	10	40	40	40	4	4	4
부산	81	80	80	14	14	14	42	42	43	7	7	7
대구	50	50	50	17	17	17	22	22	22	3	3	3
울산	36	35	35	4	4	4	13	13	12	2	2	2
전북	92	91	91	3	3	3	36	36	36	2	2	2
전남	80	80	82	8	8	8	53	53	53	2	2	2
광주	46	46	46	4	4	4	16	16	16	1	1	1
제주	17	17	17	1	1	1	10	10	10	2	2	2
합계	1,518	1,500	1,493	161	160	159	596	595	595	65	64	64

표 I-4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남학생수			여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4학년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5,603	38,929	40,529	33,357	36,759	38,008	39,846	44,740	51,877	36,729	41,257	47,360
경기	57,437	62,188	64,120	54,209	58,712	60,004	62,406	69,903	78,975	57,732	64,822	72,840
인천	12,278	13,093	13,826	11,648	12,407	13,142	13,416	15,231	17,112	12,526	14,320	16,011
강원	6,389	6,901	7,070	5,958	6,348	6,621	7,383	8,313	9,364	6,741	7,559	8,336
충북	6,779	7,465	7,575	6,322	6,789	6,970	7,694	8,757	9,748	6,962	8,112	8,913
충남	10,084	10,806	10,951	9,544	10,162	10,225	10,883	12,127	13,486	9,943	11,514	12,505
대전	7,097	7,714	7,971	6,568	7,249	7,503	7,954	8,950	10,079	7,280	8,143	9,323
경북	10,307	11,140	11,629	9,604	9,963	10,531	11,750	13,489	15,559	10,379	12,107	13,668
경남	14,751	16,140	16,730	13,617	14,530	14,862	16,488	19,016	21,606	14,779	16,948	19,026
부산	12,177	13,268	14,344	11,411	12,540	13,109	14,147	16,459	18,773	12,983	15,087	16,889
대구	10,611	11,433	12,431	9,573	10,384	11,232	12,362	14,163	16,243	10,661	12,723	14,362
울산	5,295	5,676	6,023	4,742	5,054	5,282	5,729	6,927	7,853	5,174	6,094	6,984
전북	8,244	8,672	9,058	7,443	8,180	8,570	9,594	10,567	12,029	8,585	10,087	11,175
전남	7,340	8,213	8,504	7,029	7,529	7,928	8,744	10,125	11,574	8,074	9,243	10,443
광주	7,232	8,024	8,776	6,756	7,434	7,912	8,395	9,669	11,143	7,727	9,028	10,227
제주	3,187	3,305	3,471	2,803	2,924	3,169	3,495	3,874	4,176	2,975	3,459	3,952
합계	214,811	232,967	243,008	200,584	216,964	225,068	240,286	272,310	309,597	219,250	250,503	282,014

표 I-5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1,789	33,895	36,071	9,850	9,009	9,440	8,766	8,345	8,057	821	808	752
경기	61,451	61,496	62,214	1,800	2,011	2,077	11,146	10,981	11,257	843	922	927
인천	11,324	11,524	11,981	1,218	1,045	1,101	3,995	3,911	3,904	335	347	267
강원	6,919	7,159	7,117	86	88	83	2,224	2,305	2,287	104	95	65
충북	5,498	5,622	5,853	896	931	906	3,018	3,077	2,903	91	100	57
충남	8,966	8,703	8,741	1,296	1,250	1,080	3,593	3,578	3,508	187	123	75
대전	5,775	5,970	6,076	1,908	1,861	1,824	2,025	2,154	2,148	188	204	187
경북	9,902	9,488	10,147	1,667	1,717	1,721	4,377	4,239	4,213	121	122	39
경남	14,582	14,686	15,100	2,223	2,231	2,281	3,542	3,645	3,667	223	221	111
부산	10,580	11,366	12,131	1,931	2,033	2,119	5,658	5,420	5,097	524	551	407
대구	8,758	9,293	9,740	3,041	3,204	3,322	4,254	3,978	4,110	170	184	120
울산	5,242	5,556	5,847	567	480	521	1,925	1,989	1,913	106	109	49
전북	8,056	8,343	8,607	863	830	785	3,161	3,204	3,130	84	74	60
전남	6,286	6,220	6,268	1,656	1,663	1,707	3,735	3,710	3,820	91	92	48
광주	7,512	7,802	7,964	689	663	663	2,314	2,312	2,560	81	73	10
제주	2,643	2,631	2,779	0	0	0	1,271	1,193	1,224	59	62	34
합계	205,283	209,754	216,636	29,691	29,016	29,630	65,004	64,041	63,798	4,028	4,087	3,208

표 I-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2,375	33,583	35,932	4,361	4,139	4,272	10,119	9,965	10,082	1,336	1,383	1,429
경기	57,516	57,434	58,228	2,039	2,100	2,060	9,232	9,581	10,564	1,754	1,621	1,709
인천	10,401	10,651	11,480	771	702	727	3,651	3,654	3,776	426	435	371
강원	7,093	7,246	7,479	71	69	58	1,169	1,211	1,248	110	95	90
충북	5,527	5,678	5,917	654	658	637	2,314	2,392	2,563	156	132	109
충남	8,666	8,533	8,641	925	971	793	2,521	2,625	2,681	260	218	214
대전	6,197	6,498	6,638	983	996	952	1,586	1,573	1,639	246	233	301
경북	10,003	9,819	10,346	909	910	924	2,738	2,812	3,001	112	97	100
경남	15,549	15,826	16,040	547	516	558	2,178	2,214	2,412	339	314	252
부산	10,766	11,017	11,825	1,579	1,563	1,620	3,493	3,473	3,794	686	688	673
대구	9,520	9,240	10,089	2,545	2,519	2,634	2,435	2,468	2,637	158	127	126
울산	5,195	5,132	5,633	482	457	458	1,139	1,304	1,329	156	139	133
전북	8,621	8,778	8,739	134	129	123	2,282	2,330	2,424	135	142	114
전남	7,210	7,380	7,455	568	588	611	2,698	2,735	2,971	122	111	83
광주	7,645	7,701	8,031	449	442	387	1,948	2,067	2,211	13	21	2
제주	2,379	2,318	2,312	229	226	222	976	994	1,057	84	72	72
합계	204,663	206,834	214,785	17,246	16,985	17,036	50,479	51,398	54,389	6,093	5,828	5,778

표 I-7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3.9	23.9	23.8	27.0	28.6	30.6
경기	23.3	23.7	23.6	29.2	30.9	31.3
인천	22.4	22.6	22.6	26.3	29.5	31.9
강원	14.1	14.2	13.8	19.5	20.8	23.4
충북	15.4	15.9	16.2	22.4	24.1	26.0
충남	15.9	15.9	16.3	23.4	24.3	25.0
대전	21.4	21.3	21.6	28.7	29.6	31.9
경북	17.2	17.1	17.0	18.9	19.7	20.8
경남	17.4	17.6	17.7	24.1	25.5	27.0
부산	20.9	21.1	21.4	25.6	28.3	30.4
대구	21.8	22.1	22.3	25.2	28.6	31.4
울산	21.2	21.5	21.8	26.7	27.8	30.8
전북	14.8	14.9	14.8	21.0	22.3	23.1
전남	14.7	15.0	15.0	20.5	21.9	22.1
광주	21.8	21.9	22.2	27.1	30.6	32.8
제주	18.0	17.8	17.6	25.9	27.7	28.9
합계	19.4	19.6	19.6	24.6	26.3	27.7

표 I-8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1.0	32.0	33.4	31.4	29.9	30.3	26.8	25.7	25.4	25.1	24.7	23.1
경기	31.7	31.9	33.2	29.7	30.4	30.4	28.2	28.4	29.3	25.0	24.4	24.7
인천	28.1	28.3	30.1	29.3	29.7	30.5	28.6	27.7	28.1	23.2	23.4	16.3
강원	26.9	27.8	27.8	14.3	14.3	12.8	21.4	22.4	22.7	25.5	23.1	17.2
충북	31.1	32.1	33.1	29.0	30.1	29.1	27.2	27.9	27.8	21.1	20.0	12.1
충남	29.8	30.7	31.5	29.6	29.5	28.5	25.5	25.5	25.7	20.0	20.8	17.1
대전	32.1	33.5	34.5	33.7	33.5	32.4	29.0	28.7	28.6	19.3	19.6	18.6
경북	26.5	26.5	28.0	29.9	30.4	30.8	24.1	24.0	24.7	22.4	21.2	10.3
경남	29.5	30.0	30.4	31.0	30.2	31.1	23.3	23.3	23.6	24.4	23.4	15.8
부산	29.1	29.8	31.3	28.7	29.5	30.3	25.9	24.6	23.9	21.4	21.8	19.1
대구	31.9	32.2	34.4	32.2	32.7	33.4	28.7	27.0	27.7	20.5	19.4	14.3
울산	32.2	32.2	34.6	32.6	29.2	30.5	27.6	28.7	28.8	23.2	22.1	16.0
전북	25.4	27.2	27.4	33.2	31.7	29.8	24.2	24.9	24.7	20.0	19.5	13.0
전남	27.2	27.3	27.6	31.6	31.8	32.8	22.2	21.6	22.0	23.3	22.3	13.3
광주	35.8	35.4	36.5	35.6	34.5	33.8	30.1	30.2	30.8	15.7	15.7	6.0
제주	34.2	34.0	35.0	32.7	32.3	31.7	29.8	29.0	30.1	22.9	21.6	15.9
합계	29.9	30.4	31.5	30.9	30.6	30.8	25.9	25.7	25.9	23.0	22.5	18.6

2) 표본설계

(1) 표본크기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 특성, 층화방법 등에 의해 표본크기가 영향 받지만, 단순임의추출 상황 아래서 통계분석 단위별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의 통제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산이 가능하다.

$$n = \frac{N (z s)^2}{N d^2 + (z s)^2}$$

N : 모집단의 크기

s : 관심변수의 표준편차

z 은 신뢰계수(신뢰수준 95%에서 $z = 1.96$)

비율을 조사내용으로 하는 경우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와 같다.

$$n = \frac{N z^2 p q}{N d^2 + z^2 p q}$$

$$p: \text{비율의 값}$$

$$q = 1 - p$$

본 연구의 1차 표본추출 단위는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하므로 목표오차를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 산출 값보다 표본크기를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시간을 고려하여 9,000(초등학교: 3,000, 중학교: 3,000, 고등학교: 3,000)으로 결정되었다. 모비율 추정에 대해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 가정시 95% 신뢰수준에서 약 $\pm 1.0\%P$ 이다. 층화집락추출 상황 하에서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2) 층화

2015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중·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 및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하였다. 층화변수는 다음과 같다.

- 지역구분 : 광역시도 (16개), 단, 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 학교구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6개)
- 학년 (3개)

단, 고등학교 중 유형 2(자율고)와 유형 3(특성화고)은 광역시도별 층화가 어려우므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층화하였다. 유형 4(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층화를 수행하지 않았다.

표 I-9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4	415,395	1,333,402 (28.5%)	3,000 (33.3%)	3,000 (33.2%)
		5	449,931			
		6	468,076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중학교	중학교	1	459,536	1,573,960 (33.6%)		3,000 (33.3%)		3,042 (33.6%)	
		2	522,813						
		3	591,611						
고등학교	유형 1 (일반고)	1	409,946	1,257,955 (26.9%)	1,775,690 (37.9%)	2,125 (23.6%)	3,000 (33.3%)	1,860 (20.6%)	3,003 (33.2%)
		2	416,588						
		3	431,421						
	유형 2 (자율고)	1	46,937	139,604 (3.0%)		236 (2.6%)	3,000 (33.3%)	465 (5.1%)	
		2	46,001						
		3	46,666						
	유형 3 (특성화고)	1	115,483	349,109 (7.5%)		590 (6.6%)	3,000 (33.3%)	546 (6.0%)	
		2	115,439						
		3	118,187						
	유형 4 (특수 목적고)	1	10,121	29,022 (0.6%)		49 (0.5%)	3,000 (33.3%)	132 (1.5%)	
		2	9,915						
		3	8,986						
합계				4,683,052 (100.0%)		9,000 (100.0%)		9,045 (100.0%)	

표 I-1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502	499	344	37	174	49
경기	802	775	605	58	75	
인천	172	169	114			
강원	88	91	73	38	84	
충북	94	96	58			
충남	139	134	88			
대전	99	99	63			
경북	142	147	101	65	200	
경남	204	206	155			
부산	173	180	114			
대구	148	153	96			
울산	72	74	55			
전북	113	118	86	38	58	
전남	105	111	69			
광주	104	107	79			
제주	42	42	25			
합계	3,000	3,000	2,125	236	590	49

* 총계: 9,000명

표 I-11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5.1	19.2	11.1	1.2	6.7	2.2
경기	40.1	29.8	19.5	1.9	2.9	
인천	8.6	6.5	3.7			
강원	4.4	3.5	2.3			
충북	4.7	3.7	1.9	1.2	3.2	
충남	6.9	5.2	2.8			
대전	5.0	3.8	2.0			
경북	7.1	5.6	3.3			
경남	10.2	7.9	5.0	2.1	7.7	
부산	8.6	6.9	3.7			
대구	7.4	5.9	3.1			
울산	3.6	2.8	1.8			
전북	5.6	4.5	2.8	1.2	2.2	
전남	5.2	4.3	2.2			
광주	5.2	4.1	2.5			
제주	2.1	1.6	0.8			
합계	150.0	115.4	68.5	7.6	22.7	2.2

* 총계: 366.5개

표 I-1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4(8)	21(7)	6(2)	3(1)	6(2)	6(2)
경기	39(13)	30(10)	12(4)	3(1)	3(1)	
인천	9(3)	6(2)	3(1)			
강원	6(2)	3(1)	3(1)	3(1)	3(1)	
충북	6(2)	3(1)	3(1)			
충남	6(2)	6(2)	3(1)			
대전	6(2)	3(1)	3(1)			
경북	6(2)	6(2)	3(1)	3(1)	6(2)	
경남	9(3)	9(3)	3(1)			
부산	9(3)	6(2)	3(1)			
대구	6(2)	6(2)	3(1)			
울산	3(1)	3(1)	3(1)	3(1)	3(1)	
전북	6(2)	6(2)	3(1)			
전남	6(2)	3(1)	3(1)			
광주	6(2)	3(1)	3(1)			
제주	3(1)	3(1)	3(1)			
합계	150(50)	117(39)	60(20)	15(5)	21(7)	6(2)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총계: 369(123)개

표 I-1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80	546	186	93	156	132
경기	780	780	372	93	78	
인천	180	156	93			
강원	120	78	93	93	78	
충북	120	78	93			
충남	120	156	93			
대전	120	78	93			
경북	120	156	93	93	156	
경남	180	234	93			
부산	180	156	93			
대구	120	156	93			
울산	60	78	93	93	78	
전북	120	156	93			
전남	120	78	93			
광주	120	78	93			
제주	60	78	93			
합계	3,000	3,042	1,860	465	546	132

* 총계: 9,045명

(3) 표본배분

표본이 학생수에 단순히 비례하도록 지역구분별, 학교급별 59개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I-11>과 같다. 표본 선정된 학교에서 1개 학년, 1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급에 속한 학생들을 전수 조사하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학급당 평균 학생수로 나누면 <표 I-12>과 같이 학교수를 할당할 수 있다. 총 367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 할당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목표보다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층에서 일부 표본크기를 줄여서 변형비례배분 형태의 표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표 I-9>와 같이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할 경우라도 단순비례배분에 비하여 각 층 표본크기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원칙하에 학교수,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별 학교급의 43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를 할당한다.
- 각 학년별 층별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예상 조사 학생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3,000명 총 9,000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전국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초등학교 약 20명, 중학교 약 26명, 고등학교 일반고(유형 1) 약 31명, 자율고(유형 2) 약 31명, 특성화고(유형 3) 약 26명, 특수목적고(유형 4) 약 22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과 학교급별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 크기를 배분하고, 위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 학교수와 예상 조사 학생수를 계산할 수 있다. 결과는 <표 I-11>, <표 I-12>과 같다.

(4) 표본추출

각 학교와 지역 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 추출은 <표 I-12>의 표본배분 결과를 활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였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별, 학교급별 59개 층 내에서 조사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초등학교는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 중·고등학교는 각 학년별 학급수가 3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0명 이상인 학교를 추출하였다.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 표본학급을 무작위 선정하고,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하기로 한다.

학교 측 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시, 동일한 층 내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 대체한다. 사전 학교 섭외 과정에서 특별편성(우열반, 특수반 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고 지역별 성별 구성 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하였다.

(5) 성별 사후층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조사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변수임에도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할 예정이다.

3) 가중치와 모수추정

(1)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층화집락추출법의 일종이라 할 수 있고 학교구분과 지역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각 층 일차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 수 기준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며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본추출률은 아래 식과 같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N_h :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

n_h : h 층의 표본 학교수

B_{hi} :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생수

n_{hi} :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한 학생수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각 세부 층의 성별($k=1,2$)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하면 사후층화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N_{h(1)}, N_{h(2)}$: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

$\sum W_{h(k)j}^a$: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2) 모수추정

①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 = 1, 2, \dots, H$). 학교구분×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 = 1, 2, \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 = 1, 2, \dots, m_{hi}$).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 계산

④ 분산의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 $n_h > 1$ 일 때,

$$\wide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cdot})^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cdot\cdot}$$

$$\bar{e}_{h\cdot\cdot}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h = 1$ 일 때,

$$\wide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⑤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widehat{V}(\bar{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alpha=0.05$) $z_{\alpha/2}=1.96$ 임.

제 II 장

이론적 고찰

1. 청소년 행복에 관한 이론
2. 청소년 행복 영향요인
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례

제 II 장 이론적 고찰

1. 청소년 행복에 관한 이론

행복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중 본 연구에서는 행복기준점 이론(Set point theory), 행복의 상향이론(Bottom-up theory)과 하향이론(Top-down theory), 행복의 통합적 설명모델, 욕망충족 이론, 비교이론, 목표이론, 적응과 대처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행복기준점 이론

행복기준점 이론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높거나 낮은 정서 경험을 한 후 되돌아오는 행복의 평균수준 또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일시적으로 강렬한 기쁨이나 슬픔을 경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정서 상태로 되돌아 온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기준점이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어 낙천주의적 성향을 어떤 사람은 기준점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 비관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된다. 많은 학자들은 유전적 요인이 이러한 행복의 기준점을 상당부분 결정하지만 성장환경, 가족상황, 교육경험, 문화 등에 따라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Lyubomirsky, Sheldon과 Schkade(2005)는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행복=기준점(set point)+삶의 상황+의지적 활동”이라는 등식을 제시하였으며 기준점은 앞에서 설명되었듯이 유전에 의해 결정되고, 삶의 상황은 나이, 성별, 교육수준, 사회계층, 수입, 가족 및 자녀, 지능수준, 신체적 매력도와 같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여건들을 통해 이동한다. Lyubomirsky 등(2005)은 기준점이 행복수준의 50%를 결정하고 의지적 활동을 통해 40%, 삶의 상황이 10%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2) 행복의 상향이론과 하향이론

어떤 요인들이 행복에 중요한지를 보는 시각에 따라 두 가지의 설명방식이 존재한다. 상향이론(Bottom-up theory)은 행복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즐거운 순간의 총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상향이론에 따르면 행복은 인생에서 접하는 긍정적 경험들의 합계이며 사람들은 다양한 긍정적 경험들을 합산하여 주관적 복지감에 대한 전체적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즐거운 경험이나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삶의 환경적 여건들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하향이론(Top-down theory)은 행복이 개인의 유전적 기질, 성격, 정서 성향 등에 의해서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Lykken(1999)은 행복의 장기적 안정성이 유전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마다 유전에 의해 결정된 행복 기준점을 지니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 밖에 낙관성, 외향성, 긍정, 정서성 등의 성격적 요인들이 행복도와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고 연구자들은 강조한다(Diener & Lucas, 1999). 하향이론에 따르면 행복은 개인이 처한 환경적 여건보다 삶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더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행복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의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이론에서 중요하다.

3) 행복의 통합적 설명모델

사회과학에서 인간의 심리적 반응은 대부분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행복은 생활사건, 사회·환경적 여건과 상황, 소속된 국가, 집단, 가족 등에 통합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를 행복의 통합적 설명모델이라고 한다(권석만, 2008). 이 모델은 행복의 종합적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는데 그것은 첫째, 행복은 유전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둘째, 행복의 하향이론과 상향이론은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셋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그 영향력의 근접성에 따라 원격 원인과 근접 원인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격요인은 어떤 심리적 경험을 유발하는 인과적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거나 간접적인 경험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요인을 뜻한다(Crocker, Alloy, & Kayne, 1988). 마지막으로 행복은 이러한 요인들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행복과 관련되는 요인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포괄하여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과연 모델 속에 제시된 인과방향 중 어떤 것들이 행복에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그

인과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원인적 요인들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한 설명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4) 욕망충족이론

욕망충족이론(Desire fulfillment theory)은 인간이 식욕, 성욕, 재물욕, 권력욕, 명예욕 등과 같은 다양한 욕망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욕망이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이론이다. Maslow(1970)는 욕구의 위계적 발달 이론을 주장하면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 욕구, 존중 욕구, 자기실현 욕구)까지의 욕구를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가 낮은 위계의 욕구부터 높은 위계의 욕구로 발달해 나감을 지적한다. 즉 상위욕구로의 발달은 하위욕구의 충족을 전제로 이루어진다(권석만, 2008에서 재인용).

5) 목표이론

목표이론은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목표를 향해 진전되고 있다고 믿을 때 행복을 느낀다는 입장이다(Austin & Vancouver, 1996). 주관적 복지연구의 선구자인 Wilson(1967) 또한 행복을 목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인생에서 목표와 성취간의 격차가 작을수록 더 행복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모든 목표가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며 문화에 따라 가치 있게 여기는 목표와 유형이 다르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목표 이론은 개인이 지향하는 목표의 유형과 구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 목표를 향한 진전 속도에 의해 행복이 결정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인간의 내재적 동기와 잘 부합 할 때 행복감이 증가한다.

6) 비교이론

비교이론 또는 괴리이론(Discrepancy theory)(Michalos, 1985)은 인간은 자신의 상태를 어떤 기준과 비교하여 그 기준과의 긍정적 차이를 인식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인지적 해석, 정보처리과정을 강조한다. 인간은 매우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른 사람, 과거의 삶, 이상적 자기상, 지향하는 목표이다. Aspinwall과 Brunhart(2000)는 낙관주의자들이 비관주의자들보다 수행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과 건강에 대한 부정적 소식을 더 잘 받아들였고 인간관계의 어려운 문제들을 더 잘 직면한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는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라고 하며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수평적 비교(lateral comparison),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상향적 비교(upward comparison),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하향적 비교(downward comparison)로 구분할 수 있다.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상향적 비교보다 하향적 비교를 더 많이 하며(Lyubomirsky & Ross, 1997) 하향비교를 많이 할수록 행복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행복의 자기보고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들은 상당히 융통성 있게 선택적으로 사회적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다. 즉, 행복감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적 비교를 선택하여 활용한다(Lyubomirsky et al., 2005).

7) 적응과 대처이론

아무리 긍정적인 환경과 행복감 속에 있더라도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행복감은 저하되게 된다. 이는 인간이 지속되는 긍정적 상태에 적응을 하기 때문이다. 적응은 지속적인 반복적 자극에 대해서 인식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지각적 경향을 의미하며 둔감화(desensitization) 또는 습관화(habituation)라고 불리기도 한다. 쾌락에 대한 적응과정은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 행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적응은 어떤 특정한 감각을 유발하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우리가 압도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을 지니며, 우리가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민감해 짐으로서 환경 변화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인간은 새로운 변화 상황에 계속적으로 적응하면서 중립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이 대처(coping)이다. 적응은 수동적인 과정인데 반해 대처는 능동적인 적응과정, 대처능력은 주관적 복지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필요한 때에는 도움을 요청할 줄 알고 역경 속에서 분발하며 문제해결적 대처를 하는 사람이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 대처에는 낙관성이 중요한데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사람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을 더 높게 보고한다(Kahneman et al., 1999).

2. 청소년 행복 영향요인

다양한 연구에서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다양한 행복요인 중 선행연구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요인들을 중심으로 관련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Ott(2009)는 정치수준(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이는 좋은 정부가 부가적인 조건, 즉, 안전, 헬스 케어, 최소한의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질은 산출물 효율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절차적 효율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된다.

Ng(2008)은 공공정책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적절한 공적 지출(public spending) 항목은 행복에 공헌하며 따라서 이 분야에서 약간의 비효율성(inefficiency)을 감수하더라도 공적지출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지적한다. 관련하여 Layard(2005)는 직업-생활균형(work-life balance), 가족생활, 빈곤층 지원, 높은 실업률 감소, 정신보건, 지역사회 생활과 관련한 공공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자본(Yip et al., 2007) 또한 다양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지적되는 행복 영향요인이다. 많은 연구들이 사회자본이 건강결과와 복지감 측정에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개인수준의 연구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회자본과 사회관계망이 더 나은 신체적, 감정적 건강상태와 관련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성격 또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Proctor, Linley, & Maltby, 2009). 성격과 기질은 주관적 복지감의 변량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많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오고 있다. 성격의 유전적, 계승적 효과는 긍정적 부정적 감정과 기질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개인의 유아기와 개인의 주관적 복지감의 전반적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과 행복간의 관계도 다양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지적되어 오고 있다(Proctor, Linley, & Maltby, 2009). 청소년 운동과 생활만족도 간에는 긍정적 상관성이 존재한다. 스스로가 사회적 관심이 많다고 응답하거나 구조화된 과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전반적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유사한 결과가 성인에게도 나타난다.

약물남용은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생활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Butler et al. 2006). 아동과 청소년이 사용하는 약물

중에서는 알코올, 담배, 마리화나가 가장 광범위하고 두드러지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문화권에 관계없이 약물남용은 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 미래지향성, 사회적 비교지향성 등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과 관련하여 실업은 심리적 복지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낮은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친다(Creed et al. 200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도 학교를 떠나 바로 취업하지 못한 청소년은 낮은 활동, 낮은 지각된 역량, 낮은 생활만족도, 우울감의 증가 등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종단연구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은 취업한 청소년에 비해 우울감, 자아존중감의 감소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관계된 두드러지는 요인 중 하나는 부모의 혼인상태이다. 부모의 이혼이 아동, 청소년의 심리적, 감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혼재되어 있으며 연구들은 어떻게 아동이 경험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부모의 별거, 이혼, 재혼은 청소년의 복지감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Demo and Acock 1996).

친구와 가족으로부터의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감정 건강에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연구들은 부모와 친구로부터의 지지의 필요성이 발달과정에 따라 변화함을 지적한다.

부모의 양육태도 또한 중요하다. Suldo와 Huebner(2004)는 권위적 부모양육스타일을 세 가지 영역, 사회적 지지-관여, 엄격-감독형, 심리적 자율성 승인형으로 나누어 청소년 행복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면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행복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이사 또한 행복과 영향이 있다(Proctor, Linley, & Maltby, 2009). 이사가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이사 횟수와 이들의 행복은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거주지역에서의 자녀의 거주시간이 길어질수록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3. 아동 · 청소년 친화도시²⁾

1) 아동 · 청소년 친화도시 개념

UNICEF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까지 전 세계의 56% 인구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이중 절반은 24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일 것으로 예측된다(UNICEF, 2009). 안타깝게도 아동 및 청소년이 생활하는 환경은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아동 ·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위태롭게 하는 다양한 위험들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험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성장발달을 촉진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표 II-1 UN 아동권리협약(CRC)의 4대 기본권리

기본권	주요내용
생존권 (Right to Survival)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권 (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Right to Development)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참여권 (Right to Participation)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 출처: UNICEF 홈페이지, www.unicef.or.kr

특히 1989년 UN 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을 위한 중요한 규범적 틀을 제공하였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아동의 4대 기본권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익의 최우선의 원칙(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을 설정함으로써 아동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 현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 틀을 마련하였다(박세경, 2016).

2) 이 절은 협성대학교 김희주 교수가 집필하였음.

UNICEF에서 주관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는 UN의 아동권리 협약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이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 1996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류 거주문제에 대한 UN국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HABITAT II)는 도시가 모두에게 살기 적합한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에 결의하였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의 질’이야말로 건강한 주거 환경, 성숙한 민주적 사회, 공정한 거버넌스의 궁극적 평가지표임을 선언하였다. 이를 토대로 UNICEF는 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전 세계 국가에 적극적으로 권장해왔다.

UNICEF(1996)는 아동과 청소년은 특별한 욕구를 가진 존재로써 국가와 지방정부는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존속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 친화도시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를 의미한다(김웅수, 정진희, 홍문기, 2015).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행주체이며, 중앙정부의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고 있다(UNICEF, 1996; 홍승애, 이재연, 2011). 또한 지방정부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서비스와 자원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환경 수준에 상관없이 아동의 권리가 충실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능과 기본 원칙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UN 아동권리협약에 제시하는 아동의 4대 기본 권리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김웅수 외, 2015).

- ① 아동·청소년의 생활과 관계된 프로그램에 아동과 청소년을 참여시킨다.
- ② 기획, 실행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촉진한다.
- ③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생활에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한다.
- ④ 보건, 교육, 보호소, 안전한 물, 적절한 위생과 같은 기본적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한다.
- ⑤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한다.
- ⑥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화와 건전한 놀이를 위해 안전한 거리와 장소를 유지한다.

- ⑦ 동식물을 위한 녹색 공간을 제공한다.
- ⑧ 오염과 교통을 통제한다.
- ⑨ 문화 및 사회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한다.
- ⑩ 아동·청소년의 인종, 출신, 종교, 소득수준, 성, 종교 또는 장애와 상관없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UNICEF는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총 9단계의 사업추진 단계를 제시하는 친화도시 틀(framework)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과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포함 중앙정부, 비정부기구(NGOs), 학술단체, 언론매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간의 협력적 동반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박세경, 2016). UNICEF가 제시하는 10대 과업과 추진 원칙은 <표 II-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2 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과업 및 추진원칙

실행 과업	추진 원칙
아동·청소년의 참여보장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법체계 구축	모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과 규정을 확보한다.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권리 실현 전략 수립	UN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전략 또는 아젠다를 개발한다.
아동·청소년 정책 조정을 위한 전달기구 구성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자체 상설기구를 마련한다.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영향평가 실시	법, 정책, 관련 업무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영향평가 과정을 마련한다.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확보	아동·청소년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을 분석한다.
정기적인 아동·청소년 실태 보고서 작성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자료를 수집, 보고서를 작성한다.
아동·청소년의 권리 홍보	지역사회에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수행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권리 옴부즈맨 또는 어린이 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한다.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출처: UNICEF 아동친화도시 자료, 박세경(2016) 자료 재구성.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례³⁾

아동친화도시 유럽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Child Friendly Cities, EN-CFC)는 유럽 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UN 아동권리협약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 2000년 구성되었다. 유럽네트워크는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 15개 국가의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유럽네트워크는 사회경제적, 정치적으로 아동발달과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강조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조성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박세경, 2016). 다음은 유럽의 국가들 중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참여한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노르웨이의 ‘Children’s Landscape’는 도시계획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이익에 관심을 두는 웹사이트로 도시 지역의 시설들과 이웃 그리고 학교 운동장과 같은 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현실적인 욕구에 대응한다. 또한 교육을 위한 건축(Architecture for Education), 녹색학교(green schools), 야외교육(Outdoor Education)과 같은 이슈들에도 관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96년부터 독일 UNICEF가 지방정부에 아동·청소년 권리 실행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였고, 2009년에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활동프로그램을 3년 계획으로 진행하였다. 독일 UNICEF는 아동지원단체와 협력하여 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시행하였고, ‘아동친화도시협회’를 통해 도시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인증효과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 실행 계획을 촉진하였고,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추진과 환경조성 등을 요청할 수 있었다. 독일의 대표적인 아동친화도시 중 하나인 뮌헨(Munich)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였고, 독일에서 맨 처음 아동권리협약을 위한 정책 틀을 구성, 협약 사항을 실행하였다. 또한 독일의 중소도시인 하나우(Hanau)시는 2012년 8월 30일 아동친화도시 시범도시로 출발, 2014년 6월 독일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다. 하나우시의 아동친화도시는 가족친화도시의 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후 인증을 획득하면서 가정폭력 지원, 대중교통 및 안전교육, 아동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족 산후도우미 및 신생아 지원 프로그램 등 아동복지를 위한 우선순위 정책들을 설정하였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권리증진,

3) 해외의 아동친화도시 사례는 UNICEF와 김웅수 외(2015) 논문에서 소개된 사례를 인용하였다.

아동·청소년 문화만들기, 정책 제안 등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하나우 시는 업무를 추진할 때 아동과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포럼을 실시하여 지속적 참여 방안들을 논의하고, 네트워크 협력, 학교 프로그램, 녹색장소 구현 등의 영역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영국의 런던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를 위한 전략적 목적으로 런던 아동 및 청소년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양한 우선순위 분야들에서 런던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를 통해 런던시는 첫 번째 아동 청소년전략(Children's Strategy)을 수립, 0-17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4가지 기본권 증진을 목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와 지침을 제공하였다. 아동청소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다양한 관계 기관들이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협력하였다.

제 III 장

청소년 행복지표의 변화

1. 청소년 행복지표(2014~2016) 특성
2. 청소년 행복지표(2014~2016)의 변화

제 III 장 청소년 행복지표의 변화

1. 청소년 행복지표(2014~2016) 특성

청소년 행복지표는 개인이 스스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주관지표와 지역사회 차원의 통계수치를 활용하는 객관지표로 나누어 주관지표는 설문조사를 통해 객관지표는 통계자료 추출을 통해 지표값을 산출한다. 청소년행복지표의 영역은 관계 영역, 주관적 웰빙 영역, 건강 영역, 교육 영역, 안전 영역, 활동 영역, 참여 영역, 환경 영역, 경제 영역의 9개 영역이 있으며 각각의 영역별로 주관지표와 객관지표가 함께 존재한다⁴⁾.

주관지표를 먼저 살펴보면 관계 영역의 경우 가족관계만족도, 부모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부모님, 친구들, 학교 선생님, 이웃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들,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지역사회 전문기관(공공), 지방정부, 중앙정부), 가족간의 대화시간, 담임 교사와 면담 횟수,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이웃(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전반적) 인간관계만족도이다. 주관적 웰빙 영역의 경우 정서상태(즐거움, 편안한, 불안한, 슬픈, 우울한, 행복한), 삶의 만족도, 유데미니아, 성격특성(외향적인, 걱정이 많은)이다. 건강 영역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질병유무, 질병유형, 아침식사율(일주일 중 며칠), 고카페인 이용량, 건강만족도이며 교육 영역의 경우 교과과정만족도, 진로교육만족도, 진로교육체험경험, 학교생활만족도이다. 안전 영역의 경우 지역사회시설안전도, 학교시설안전도, 위기상황대처능력, 범죄안전도, 사회안전망 시설(CCTV) 구축인지도, 생활안전만족도이며 활동 영역의 경우 놀이친구 접근성, 여가활동시간만족도, 여가활동공간만족도, 여가활동용돈만족도, 청소년활동만족도가 있다. 참여 영역의 경우 아동권리인지, 정계소명권, 학칙개정권,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존중(관용성), 학생대

4) 각 지표의 측정과 정의, 출처, 각 지표별 이론적 고찰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성윤숙·홍성호(2015), 김지경 외 (2014)의 보고서에 자세히 나타나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표의 운영위참여기회(사회참여), 학생참여권만족도가 해당하며 환경 영역의 경우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주택만족도, 주거지형태, 지역사회환경만족도가 해당한다. 경제 영역에는 가정경제만족도가 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객관지표의 경우 건강 영역에는 청소년비만율(BMI), 청소년자살률, 평균운동시간, 평균수면시간, 청소년흡연율, 청소년음주율, 인터넷중독률이 포함된다. 교육 영역에는 학업중단율,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학업성취도, 사교육비 지출액이 포함되며 안전 영역에는 청소년교통사고사상률, 청소년안전사고사망률, 청소년범죄피해율, 아동학대피해경험률, 학교폭력발생률이 활동 영역에는 문화예술활동참여율, 문화여가지출비용, 동아리활동참여율, 문화예술시설비율, 청소년활동시설비율, 청소년지도사비율이 해당된다. 참여 영역의 객관지표로는 자원봉사참여율이 해당되며 환경 영역에는 통학소요시간, 녹지접근성이 경제 영역에는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율이 포함된다. 다음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간 중요 주관지표, 객관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청소년 행복지표(2014~2016)의 변화

1) 주관지표(개인수준)

(1) 가족관계만족도

주관지표 중 가족관계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에 3.42점, 2015년에 4.04점, 2016년에 4.15점으로 해마다 유의미하게 상승함을 알 수 있다($p<.001$).

표 III-1 가족관계만족도 변화(2014-2016)

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F 값 (Scheffe)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족관계만족도	3.42	.723	4.04	.891	4.15	.875	2231.03*** (2014년<2015년, 2015년<2016년)

* $p<.05$, ** $p<.01$, *** $p<.001$

(2) 교우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또한 2014년 3.50점, 2015년 4.23점, 2016년 4.32점으로 해마다 유의미하게 상승하여($p<.001$) 청소년의 교우관계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III-2 교우관계만족도 변화(2014-2016)

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F 값 (Scheffe)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교우관계만족도	3.50	.637	4.23	.771	4.32	.767	3777.09*** (2014년<2015년, 2015년<2016년)

* $p<.05$, ** $p<.01$, *** $p<.001$

(3) 교사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를 살펴보면 2014년 2.96점, 2015년 3.57점, 2016년 3.69점으로 역시 해마다 유의미하게 상승하고 있었으나($p<.001$) 가족관계만족도나 교우관계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III-3 교사관계만족도 변화(2014-2016)

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F 값 (Scheffe)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교사관계만족도	2.96	.835	3.57	.957	3.69	.977	1790.19*** (2014년<2015년, 2015년<2016년)

* $p<.05$, ** $p<.01$, *** $p<.001$

(4) 이웃(지역사회)만족도

이웃(지역사회)만족도를 살펴보면 2014년 3.14점, 2015년 3.68점, 2016년 3.80점으로 역시 유의미하게 상승하고 있으나($p<.001$) 교사관계만족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만족도나 교우관계만족도에 비해 낮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III-4 이웃(지역사회)만족도 변화(2014-2016)

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F 값 (Scheffe)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이웃(지역사회) 만족도	3.14	.783	3.68	.917	3.80	.917	1596.75*** (2014년<2015년, 2015년<2016년)

* p<.05, ** p<.01, *** p<.001

(5)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2014년에 6.66점, 2015년에 6.94점, 2016년에 7.25점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고 있어(p<.001)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추세를 알 수 있다.

표 III-5 삶의 만족도 변화(2014-2016)

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F 값 (Scheffe)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삶의 만족도	6.66	2.386	6.94	2.270	7.25	2.245	162.94*** (2014년<2015년, 2015년<2016년)

* p<.05, ** p<.01, *** p<.001

2) 객관지표(전국)

(1) 청소년자살률

다음으로 객관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자살률의 경우 2012년에 전국 평균 8.4점, 2013년에 전국 평균 8.2점, 2015년에 전국 평균 7.6점으로 통계적 유의도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수치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6 청소년자살률 변화(2012-2015)

지표	2012	2013	2015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청소년자살률	8.4	8.2	7.6

* p<.05, ** p<.01, *** p<.001

(2) 평균수면시간

평균수면시간을 살펴보면 2013년에 전국 평균 6.4시간, 2014년에 전국 평균 6.3시간, 2015년에 전국 평균 6.4시간으로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II-7 평균수면시간 변화(2013-2015)

지표	2013	2014	2015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전국 평균
평균수면시간	6.4	6.3	6.4

* p<.05, ** p<.01, *** p<.001

(3) 청소년흡연률

청소년흡연률을 살펴보면 2013년에 전국 평균 9.7점, 2014년에 전국 평균 9.2점, 2015년에 전국 평균 7.8점으로 2015년에 청소년흡연률 수치가 현저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III-8 청소년흡연률 변화(2013-2015)

지표	2013	2014	2015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청소년흡연률	9.7	9.2	7.8

* p<.05, ** p<.01, *** p<.001

(4) 학업중단률

청소년의 학업중단률을 살펴보면 2013년에 전국 평균 1.0%, 2014년에 전국 평균 0.9%, 2015년에 전국 평균 0.85%로 근소한 수치이기는 하나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9 학업중단률 변화(2013-2015)

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전국 평균
학업중단률	1.0	0.9	0.85

* p<.05, ** p<.01, *** p<.001

(5) 사회복지지출비율

사회복지지출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전국 평균 23.1%, 2014년에는 전국 평균 26.1%, 2016년에는 전국 평균 27.71%로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0 사회복지지출 변화(2013-2016)

지표	2013년	2014년	2016년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전국 평균
사회복지지출	23.1	26.1	27.71

* $p<.05$, ** $p<.01$, *** $p<.001$

제 IV 장

청소년 행복지표의 시도별 차이

1. 청소년 행복지표(2016) 개요
2. 청소년 행복지표(2016)의 시도별 차이

제 IV 장 청소년 행복지표의 시도별 차이

1. 청소년 행복지표(2016) 개요

2016년 청소년 행복지표는 2015년 청소년 행복지표의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하되, 2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가 필요성이 대두되거나 현저한 오류가 있는 경우를 일부 수용하여 변화를 최소화하고 기존 설문지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보다 면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6년에 추가된 주요 지표는 모두 주관지표에 해당하며 (전반적)인간관계만족도, 건강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진로교육·체험경험, 생활안전만족도, 청소년활동만족도, 학생참여권만족도, 지역사회환경만족도가 그것이다. 각 영역별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10점 리커트 문항을 추가하여 영역별 비교가 필요할 경우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 내용은 [부록 1]의 설문지에 나타나 있다.

1) 조사대상 일반 특성

2016년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IV-1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학교급	초등학교	3741	35.7	성별	남자	5357	51.1
	중학교	3521	33.6		여자	5135	48.9
	고등학교	3230	30.8		총계	10492	100.0
	총계	10492	100.0	경제적 수준	상	434	4.2
지역	서울	1574	15.0		중	2586	24.8
	부산	532	5.1		하	7392	71.0
	대구	486	4.6		총계	10412	100.0

구분				구분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아버지 학력	광주	540	5.1	도시 규모	대도시	4064	38.7
	인천	324	3.1		중소도시	5288	50.4
	대전	428	4.1		농산어촌	1140	10.9
	울산	261	2.5		총계	10492	100.0
	세종	43	.4	함께 사는 가족 ⁵⁾	(외)할아버지	779	7.5
	경기	2793	26.6		(외)할머니	1512	14.5
	강원	403	3.8		아버지	9456	90.5
	충북	402	3.8		어머니	9627	92.2
	충남	377	3.6		새아버지	61	0.6
	전북	535	5.1		새어머니	49	0.5
	전남	440	4.2		형제또는자매	8494	81.3
	경북	432	4.1		친척	627	6.0
	경남	611	5.8		기타	68	0.7
	제주	311	3.0		없음	218	2.1
	총계	10492	100.0		총계	30891	295.8
	안계심	251	2.4	학업 성적 (2016년 1학기)	매우못하는수준	603	5.8
	학교안다님	8	.1		못하는수준	1873	17.9
	초등학교졸업	51	.5		중간	4381	41.9
	중학교졸업	116	1.1		잘하는수준	2675	25.6
	고등학교졸업	2021	19.4		매우잘하는수준	912	8.7
	2-4년제대학졸업	2,974	34.9		총계	10444	100.0
아버지 학력	대학원졸업	752	7.2	종교 유무	없다	6067	58.1
	잘모르겠음	3597	34.5		있다	4381	41.9
	총계	10436	100.0		총계	10448	100.0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교 35.7%, 중학교 33.6%, 고등학교 30.8%이며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 51.1%, 여자 청소년 48.9%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5.0%, 경남 5.8% 순이었다. 아버지 학력은 24년제 대학 졸업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19.4%였다. 스스로 생각하는 경제적 수준은 하가 7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 24.8%, 상 4.2%로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규모는 중소도시 거주가 5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도시 38.7%, 농산어촌 10.9% 순이었다. 함께 사는 가족을 살펴보면 친아버지, 친어머니와 사는 경우가 각각 90% 이상이었다. 2016년 1학기 학업성적을 살펴보면 중간이 41.9%로 가장

5) 다중응답임

많았으며 다음으로 잘하는 수준 25.6%, 못하는 수준 17.9%, 매우 잘하는 수준 8.7%, 매우 못하는 수준 5.8% 순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전체의 41.9%를 차지하였다.

2) 영역별 청소년 행복지표 값

2016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1) 관계 영역

관계 영역의 지표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값: 관계 영역

지표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최대	최소
가족관계만족도			10469	1	5	4.15	.875
부모관계만족도			10467	1	5	4.15	.887
교우관계만족도			10463	1	5	4.32	.767
교사관계만족도			10455	1	5	3.69	.977
일반 신뢰도 ⁶⁾	사적 대인신뢰 ★	부모님	10479	1	5	4.56	.721
		친구들	10474	1	5	3.96	.850
		학교 선생님	10471	1	5	3.95	.924
		이웃 사람들	10453	1	5	3.11	1.037
	사회적 대인신뢰 ★	처음 만난 사람들	10471	1	5	2.24	1.026
		다른 나라 사람들 ★ 7)	10439	1	5	2.60	1.035
	사회 조직신뢰 ★	우리나라 전체 ★	10442	1	5	2.61	1.024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	10438	1	5	2.29	1.053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	10434	1	5	2.66	1.254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	10440	1	5	2.88	1.011
	정부 조직신뢰 ★	지역사회 전문기관(공공)	10477	1	5	3.88	.929
		지방정부	10476	1	5	3.51	.989
		중앙정부	10472	1	5	3.21	1.178
가족간의 대화시간			10478	1	5	3.49	1.119
담임 교사와 면담횟수			10435	1	5	1.71	1.105
방가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10435	1	5	3.55	1.355
이웃(지역사회)관계 만족도			10451	1	5	3.80	.917
(전반적)인간관계만족도 ★			10210	0	10	7.64	2.006

가족관계만족도는 평균 4.15점이며 부모관계만족도는 4.15점이었다. 교우관계만족도는 4.32점으로 가족관계만족도, 부모관계만족도보다 약간 높았다. 교사관계만족도는 3.69점으로 가족관계만족도, 부모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에 비해 가장 낮았다.

일반 신뢰도를 살펴보면⁸⁾ 부모님에 대한 신뢰는 4.56점, 친구들에 대한 신뢰는 3.96점, 학교 선생님에 대한 신뢰는 3.95점, 이웃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3.11점으로 사적 대인신뢰 중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고 이웃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았다. 처음 만난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2.24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2.60점으로 사회적 대인신뢰가 사적 대인신뢰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신뢰는 2.61점,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신뢰는 2.29점,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신뢰는 2.66점,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에 대한 신뢰는 2.88점으로 사회 조직신뢰 또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전문기관(공공)에 대한 신뢰는 3.88점,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3.51,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3.21점으로 정부 조직신뢰는 사회적 대인신뢰나 사회 조직신뢰보다는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족간의 대화시간은 3.49점으로 높지 않았으며 담임교사와의 면담횟수는 1.71점이었다.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3.55점으로 역시 높지 않았으며 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는 3.80점, (전반적)인간관계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7.64점으로 관계 영역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만족도, 부모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전반적)인간관계만족도를 제외하고는 백분위점수 75점을 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청소년의 관계 영역에 대한 지원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주관적 웰빙 영역

주관적 웰빙 영역의 지표 값을 살펴보면 즐거운 정서상태는 4.0점, 편안한 정서상태는 3.66점, 불안한 정서상태는 2.64점, 슬픈 정서상태는 2.47점, 우울한 정서상태는 2.37점, 행복한 정서상태는 3.96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정서상태의 값이 높음을 알 수 있다⁹⁾.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 2015년 선행연구(성윤숙·홍성호, 2015)에서는 사적 대인신뢰, 사회적 대인신뢰를 직접적 관계로 사회 조직신뢰와 정부 조직신뢰를 간접적 관계로 세부영역화 한 바 있다.

7) ★ 표시가 되어 있는 문항은 2016년에 신규 추가 또는 명명한 문항을 의미한다.

8)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김승현, 2008) 고찰을 바탕으로 부모님, 친구들, 학교 선생님, 이웃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사적 대인신뢰, 처음 만난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사회적 대인신뢰,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에 대한 신뢰를 사회 조직신뢰, 지역사회 전문기관(공공), 지방정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정부 조직신뢰로 구분하여 뒷 부분의 영향지표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각 지표는 해당변인을 모두 합산하여 복합지수화한 후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9) 본 연구에서는 정서상태와 관련하여 즐거운, 편안한, 행복한 정서상태를 긍정적 정서상태로, 불안한, 슬픈, 우울한 정서

7.25점으로 백분위 점수 72.5점으로 특별히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유데모니아는 3.76점으로 나타났다. 외향적인 성격특성은 3.77점, 걱정이 많은 성격 특성은 2.99점으로 나타났다.

표 IV-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값: 주관적 웰빙 영역

지표		빈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정서 상태	즐거움	10473	1	5	4.00	.857
	편안한	10457	1	5	3.66	.984
	불안한	10456	1	5	2.63	1.061
	슬픈	10455	1	5	2.47	1.003
	우울한	10441	1	5	2.37	1.104
	행복한	10461	1	5	3.96	.920
삶의 만족도		10201	0	10	7.25	2.245
유데모니아 ¹⁰⁾		10382	1	5	3.76	.749
성격 특성	외향적인 (다른 사람과 쉽게 잘 어울리는)	10472	1	5	3.77	1.026
	걱정이 많은	10422	1	5	2.99	1.130

(3) 건강 영역

건강 영역을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는 3.92점이며 스트레스 정도는 3.09점으로 나타났다. 질병유무와 관련하여 감기, 배탈, 몸살을 제외한 질병이 있는 경우가 21.4%, 질병이 없는 경우가 78.6%이며 질병이 있는 경우(다중응답) 선천적 질병이 있는 경우가 31.8%, 후천적 질병이 있는 경우가 72.3%였다. 일주일 중 아침식사를 하는 날은 평균 5.13일이며 고카페인 이용량은 2.51점, 건강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46점으로 건강 영역 또한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상태를 부정적 정서상태로 구분하여 각각 복합지수화한 후 문항수로 나누어 뒤 부분의 영향변인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특히 긍정적 정서상태의 경우 다수의 행복관련 연구에서 행복을 측정하는 “정서적 행복”의 척도로 활용된 만큼 (Chapple, 2010)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 행복을 측정하는 종속변인으로 활용하였다.

10) 유데모니아는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밝다고(낙관적) 생각한다.”, “나는 내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다.”, “나는 내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 “나는 나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느낀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의 6개 문항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IV-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값: 건강 영역

지표	빈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주관적 건강상태	10472	1	5	3.92	.936
스트레스 정도	10427	1	5	3.09	1.113
질병유무 (감기, 배탈, 몸살 제외)	없다	8188	78.6	—	—
	있다	2223	21.4	—	—
	총계	10411	100.0	—	—
질병유형 (선천성/후천성) ¹¹⁾	선천적질병	699	31.8		
	후천적질병	1589	72.3		
	총계	2,288	104.1		
아침식사율(일주일 중 며칠)	10467	0	7	5.13	2.382
고카페인 이용량	10445	1	5	2.51	1.005
건강만족도 ★	10374	0	10	7.46	2.263

(4) 교육 영역

교육 영역을 살펴보면 교과과정만족도가 3.54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진로교육만족도는 3.44점, 진로교육·체험경험 또한 3.39점으로 비슷하게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학교생활만족도의 경우 10점 만점에 7.24점으로 백분위 점수 72.4점에 해당하여 역시 높다고 보기 어려웠다.

표 IV-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값: 교육 영역

지표	빈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교과과정만족도	10437	1	5	3.54	.973
진로교육만족도	10421	1	5	3.44	1.056
진로교육·체험경험★	10463	1	5	3.39	1.163
학교생활만족도 ★	10381	0	10	7.24	2.276

(5) 안전 영역

안전 영역에 대한 지표 값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시설안전도는 3.68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았으며 학교시설안전도는 3.77점으로 유사하나 약간 높았다. 위기상황대처능력은 3.74점이었으며 범죄안전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데 3.56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생활안전만족도는 7.40점으로 백분위 74.0점에 해당한다.

11) 다중응답임

표 IV-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값: 안전 영역

지표	빈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지역사회시설안전도	10477	1	5	3.68	.858
학교시설안전도	10480	1	5	3.77	.894
위기상황대처능력	10466	1	5	3.74	.959
범죄안전도(-) ¹²⁾	10475	1	5	3.56	1.133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인지정도	10472	1	5	3.60	.985
생활안전만족도 ★	10344	0	10	7.40	2.029

(6) 활동 영역

활동 영역에 대한 지표 값을 살펴보면 놀이친구 접근성은 3.50점이며 여가활동시간만족도는 3.41점이다. 여가활동공간만족도는 3.51점, 여가활동용돈만족도는 3.50점으로 4개 항목 모두 중간보다 약간 높은 값을 나타냈다. 청소년활동만족도는 6.95점으로 백분위 점수 69.5점으로 높지 않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표 IV-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값: 활동 영역

지표	빈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놀이친구 접근성	10453	1	5	3.50	1.132
여가활동시간만족도	10467	1	5	3.41	1.170
여가활동공간만족도	10462	1	5	3.51	1.099
여가활동용돈만족도	10455	1	5	3.50	1.125
청소년활동만족도 ★	10358	0	10	6.95	2.532

(7) 참여 영역

참여 영역을 살펴보면 아동권리인지가 3.76점이며 징계소명권은 3.44점으로 나타났다. 학칙개정권은 3.95점으로 아동권리인지, 징계소명권보다 약간 높으며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3.65점으로 역시 높지 않은 수치를 나타냈다. 학생대표의 운영위참여기회 또한 3.65점으로 높지 않으며 학생참여권만족도는 6.36점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 학생참여권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12) 문항 옆에 “(-)”가 붙어 있는 지표는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지표의 값이 낮아지는 지표를 뜻한다.

표 IV-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값: 참여 영역

지표	빈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아동권리인지	10473	1	5	3.76	.886
징계소명권	10463	1	5	3.44	1.044
학칙개정권	10449	1	5	3.44	1.083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관용성)	10432	1	5	3.95	1.054
학생대표의 운영위참여기회(사회참여)	10447	1	5	3.65	.981
학생참여권만족도 ★	10392	0	10	6.36	2.543

(8) 환경 영역

환경 영역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는 3.59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으며 주택만족도는 4.23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주거지 형태를 살펴보면 자가 46.3%이며 전세가 11.9%, 월세가 4.6% 순이었으며 모르는 경우도 36.5%에 달하였다. 지역사회환경만족도는 7.00점으로 백분위 70점에 해당하여 높지 않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표 IV-9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값: 환경 영역

지표	빈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10445	1	5	3.59	.975
주택만족도	10263	1	5	4.23	.865
주거지 형태	자가(부모등가족소유)	4841	46.3	—	—
	전세	1241	11.9	—	—
	월세(보증금있음)	370	3.5	—	—
	월세(보증금없음)	114	1.1	—	—
	무상	30	.3	—	—
	기타	38	.4	—	—
	모름	3818	36.5	—	—
	총계	10452	100.0	—	—
지역사회환경만족도 ★	10414	0	10	7.00	2.222

(9) 경제 영역

경제 영역의 가정경제만족도를 살펴보면 평균 7.59점으로 백분위 75.9점에 해당한다.

표 IV-10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값: 경제 영역

지표	빈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가정경제만족도	10412	0	10	7.59	2.175

2. 청소년 행복지표(2016)의 시도별 차이

1) 주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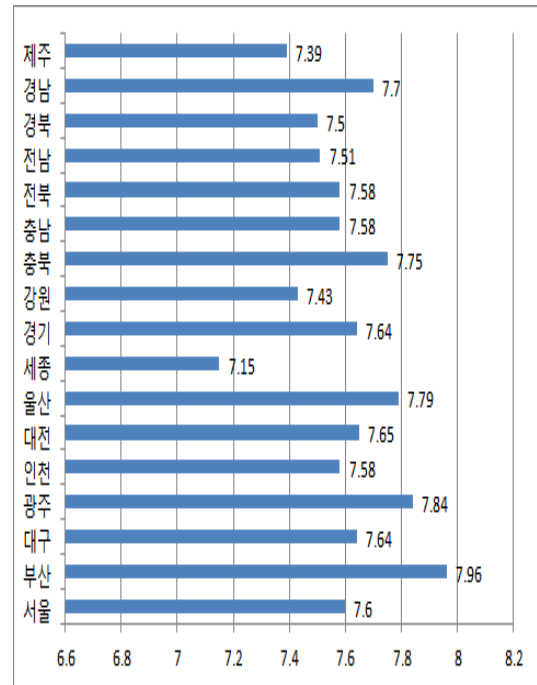
(1) 관계 영역

① (전반적) 인간관계만족도

주관지표의 관계영역 중 (전반적) 인간관계만족도를 살펴보면 부산이 7.9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7.15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II 시도별 (2016) 인간관계만족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7.60	2.006	2.415 ***
부산	7.96	2.008	
대구	7.64	1.998	
광주	7.84	1.912	
인천	7.58	1.997	
대전	7.65	1.974	
울산	7.79	2.118	
세종	7.15	1.967	
경기	7.64	2.008	
강원	7.43	2.047	
충북	7.75	1.909	
충남	7.58	1.942	
전북	7.58	2.116	
전남	7.51	1.962	
경북	7.50	1.954	
경남	7.70	2.009	
제주	7.39	2.109	
총계	7.64	2.006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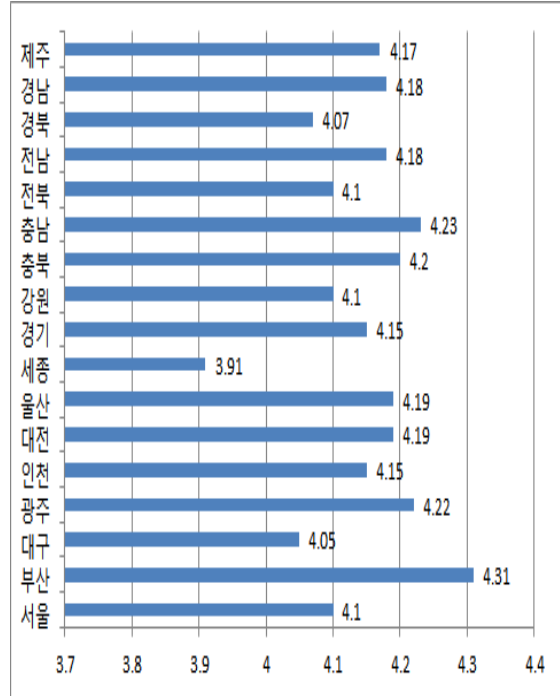
【그림 IV-I】 시도별 (2016) 인간관계만족도

②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는 부산이 4.3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3.91점으로 가장 낮았고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12 시도별 (2016) 가족관계만족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4.10	.897	3.086 ***
부산	4.31	.853	
대구	4.05	.893	
광주	4.22	.856	
인천	4.15	.913	
대전	4.19	.867	
울산	4.19	.869	
세종	3.91	.811	
경기	4.15	.883	
강원	4.10	.826	
충북	4.20	.818	
충남	4.23	.852	
전북	4.10	.891	
전남	4.18	.830	
경북	4.07	.851	
경남	4.18	.879	
제주	4.17	.874	
총계	4.15	.875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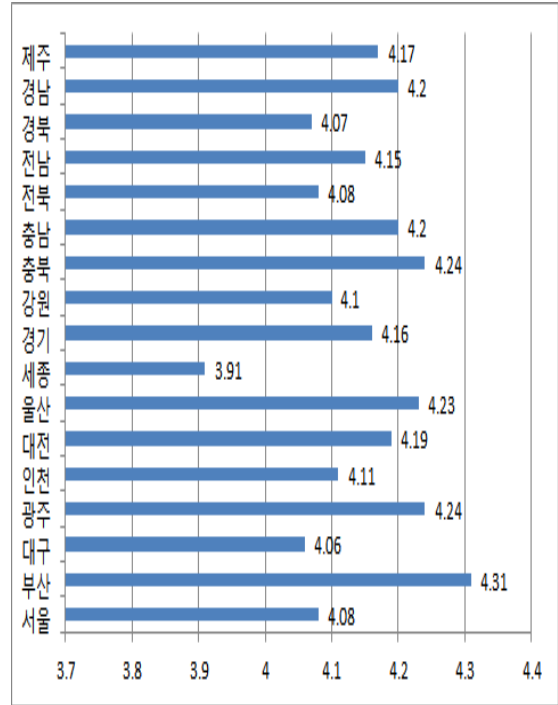
【그림 IV-2】 시도별 (2016) 가족관계만족도

③ 부모관계만족도

부모관계만족도 또한 부산이 4.31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3.91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표 IV-13 시도별 (2016) 부모관계만족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4.08	.917	3.780 ***
부산	4.31	.865	
대구	4.06	.890	
광주	4.24	.844	
인천	4.11	.938	
대전	4.19	.881	
울산	4.23	.861	
세종	3.91	.895	
경기	4.16	.892	
강원	4.10	.871	
충북	4.24	.823	
충남	4.20	.863	
전북	4.08	.896	
전남	4.15	.866	
경북	4.07	.845	
경남	4.20	.886	
제주	4.17	.910	
총계	4.15	.887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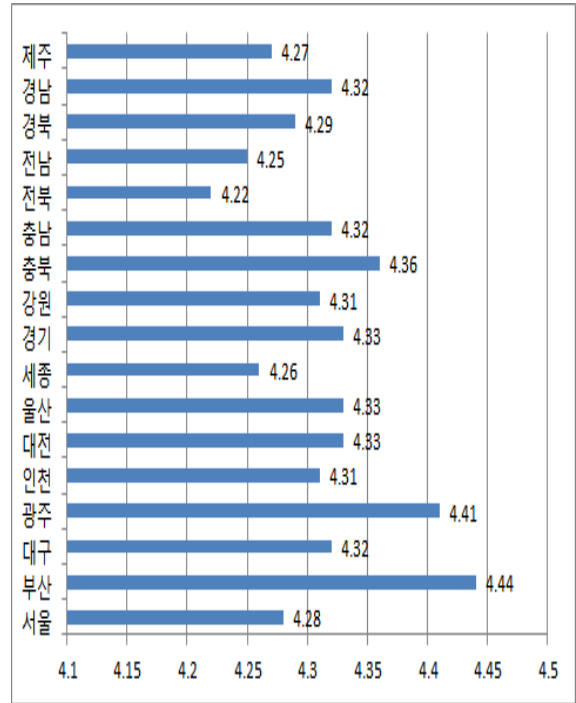
【그림 IV-3】 시도별 (2016) 부모관계만족도

④ 교우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또한 부산이 4.4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4.22점이었
다. 시도별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14 시도별 (2016) 교우관계만족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4.28	.815	2.606 ***
부산	4.44	.744	
대구	4.32	.743	
광주	4.41	.730	
인천	4.31	.809	
대전	4.33	.763	
울산	4.33	.780	
세종	4.26	.539	
경기	4.33	.764	
강원	4.31	.727	
충북	4.36	.721	
충남	4.32	.808	
전북	4.22	.798	
전남	4.25	.758	
경북	4.29	.707	
경남	4.32	.769	
제주	4.27	.720	
총계	4.32	.767	



【그림 IV-4】 시도별 (2016) 교우관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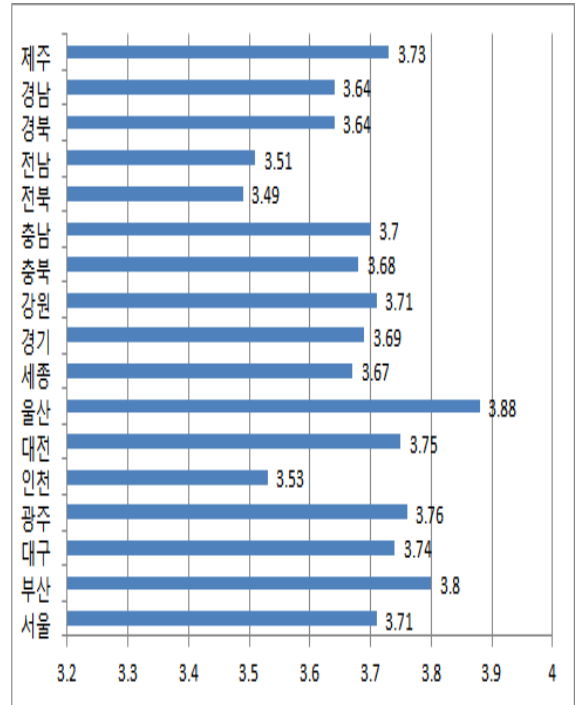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⑤ 교사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는 울산이 3.8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3.49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표 IV-15 시도별 (2016) 교사관계만족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71	1.020	4.543 ***
부산	3.80	.981	
대구	3.74	.952	
광주	3.76	.996	
인천	3.53	1.046	
대전	3.75	.925	
울산	3.88	.923	
세종	3.67	.919	
경기	3.69	.975	
강원	3.71	.886	
충북	3.68	.944	
충남	3.70	.944	
전북	3.49	.971	
전남	3.51	1.006	
경북	3.64	.908	
경남	3.64	1.023	
제주	3.73	.900	
총계	3.69	.97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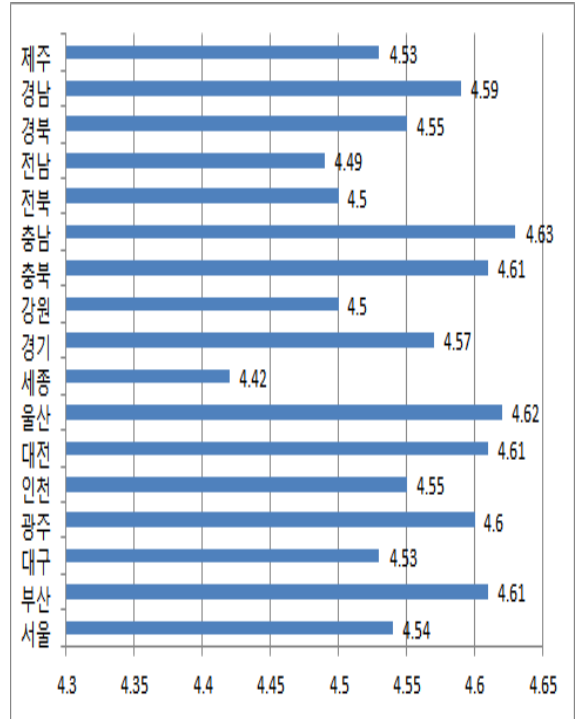
【그림 IV-5】 시도별 (2016) 교사관계만족도

⑥ 사적대인신뢰: 부모님

부모님에 대한 사적대인신뢰는 충남이 4.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4.42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표 IV-16 시도별 (2016) 사적대인신뢰: 부모님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4.54	.728	2.017 **
부산	4.61	.734	
대구	4.53	.728	
광주	4.60	.710	
인천	4.55	.743	
대전	4.61	.694	
울산	4.62	.624	
세종	4.42	.731	
경기	4.57	.719	
강원	4.50	.761	
충북	4.61	.639	
충남	4.63	.700	
전북	4.50	.769	
전남	4.49	.767	
경북	4.55	.659	
경남	4.59	.703	
제주	4.53	.798	
총계	4.56	.721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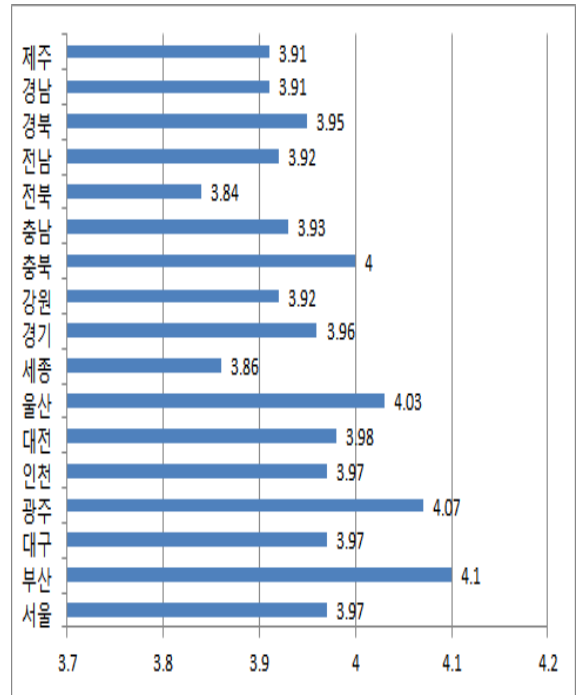
【그림 IV-6】 시도별 (2016) 사적대인신뢰: 부모님

⑦ 사적대인신뢰: 친구들

친구들에 대한 사적대인신뢰는 부산이 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3.8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시도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17 시도별 (2016) 사적대인신뢰: 친구들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97	.878	2.804 ***
부산	4.10	.851	
대구	3.97	.829	
광주	4.07	.859	
인천	3.97	.884	
대전	3.98	.831	
울산	4.03	.856	
세종	3.86	.861	
경기	3.96	.847	
강원	3.92	.760	
충북	4.00	.775	
충남	3.93	.924	
전북	3.84	.869	
전남	3.92	.827	
경북	3.95	.789	
경남	3.91	.847	
제주	3.91	.870	
총계	3.96	.850	



【그림 IV-7】 시도별 (2016) 사적대인신뢰: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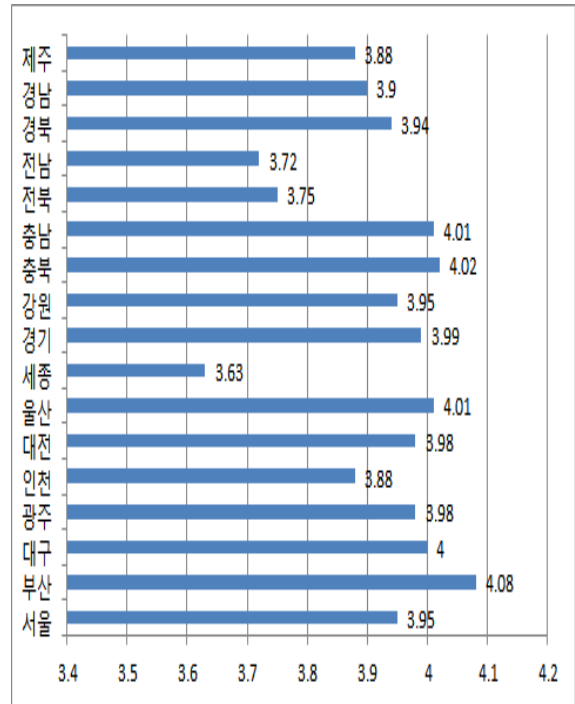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⑧ 사적대인신뢰: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사적대인신뢰는 부산이 4.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3.63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18 시도별 (2016) 사적대인신뢰:
학교 선생님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95	.973	5.347 ***
부산	4.08	.911	
대구	4.00	.852	
광주	3.98	.928	
인천	3.88	.996	
대전	3.98	.874	
울산	4.01	.886	
세종	3.63	.900	
경기	3.99	.922	
강원	3.95	.865	
충북	4.02	.863	
충남	4.01	.874	
전북	3.75	.959	
전남	3.72	.953	
경북	3.94	.863	
경남	3.90	.929	
제주	3.88	.912	
총계	3.95	.924	



【그림 IV-8】 시도별 (2016) 사적대인신뢰:
학교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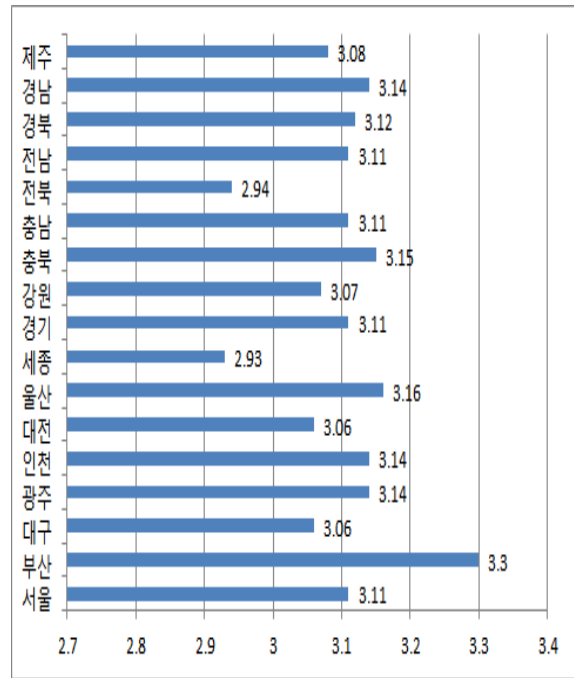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⑨ 사적대인신뢰: 이웃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 대한 사적대인신뢰는 부산이 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2.93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기는 했으나($p<.001$)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표 IV-19 시도별 (2016) 사적대인신뢰:
이웃 사람들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11	1.086	2.506 ***
부산	3.30	1.077	
대구	3.06	.985	
광주	3.14	1.101	
인천	3.14	1.042	
대전	3.06	1.063	
울산	3.16	1.087	
세종	2.93	.961	
경기	3.11	1.044	
강원	3.07	.902	
충북	3.15	1.016	
충남	3.11	.994	
전북	2.94	.982	
전남	3.11	1.001	
경북	3.12	.956	
경남	3.14	1.029	
제주	3.08	1.003	
총계	3.11	1.037	



【그림 IV-9】 시도별 (2016) 사적대인신뢰:
이웃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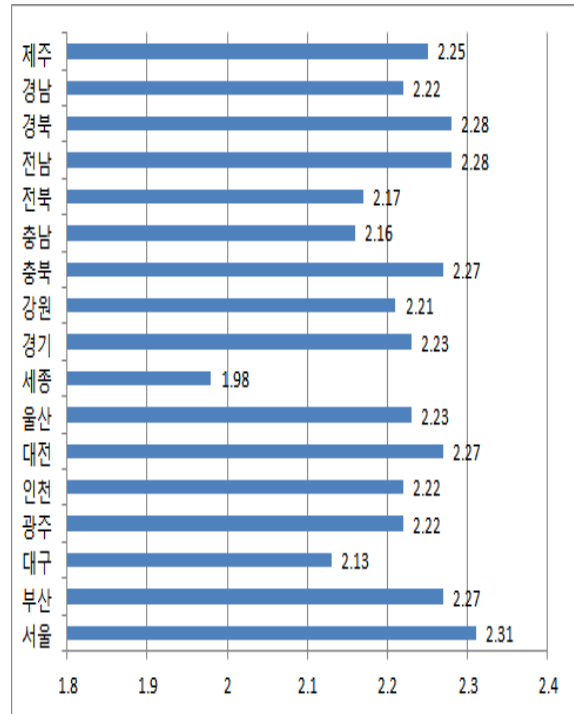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⑩ 사회적대인신뢰: 처음 만난 사람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사회적대인신뢰는 서울이 2.3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1.98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유의미하였으나($p<.001$) 전반적으로 고루 낮은 값을 나타냈다.

표 IV-20 시도별 (2016) 사회적대인신뢰:
처음 만난 사람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2.31	1.070	1.558
부산	2.27	1.071	
대구	2.13	.962	
광주	2.22	1.030	
인천	2.22	.986	
대전	2.27	.998	
울산	2.23	1.027	
세종	1.98	.886	
경기	2.23	1.043	
강원	2.21	.960	
충북	2.27	1.013	
충남	2.16	1.029	
전북	2.17	.986	
전남	2.28	.998	
경북	2.28	.967	
경남	2.22	1.038	
제주	2.25	.994	
총계	2.24	1.026	



【그림 IV-10】 시도별 (2016) 사회적대인신뢰:
처음 만난 사람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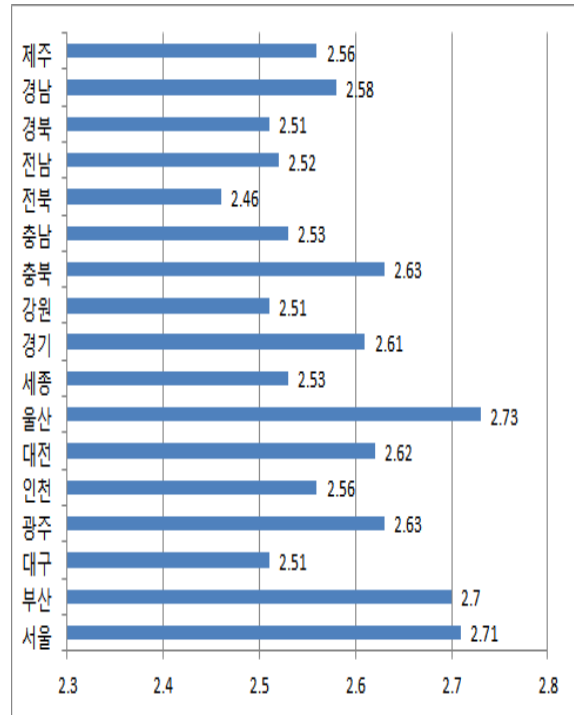
⑪ 사회적대인신뢰: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대인신뢰의 경우 울산이 2.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2.46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p<.001$) 역시 고루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IV-21 시도별 (2016) 사회적대인신뢰: 다른 나라 사람들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2.71	1.039	3.330 ***
부산	2.70	1.068	
대구	2.51	.994	
광주	2.63	1.055	
인천	2.56	1.008	
대전	2.62	1***	
울산	2.73	1.106	
세종	2.53	.984	
경기	2.61	1.044	
강원	2.51	.997	
충북	2.63	1.061	
충남	2.53	1.039	
전북	2.46	1.009	
전남	2.52	.999	
경북	2.51	.979	
경남	2.58	1.043	
제주	2.56	1.018	
총계	2.60	1.035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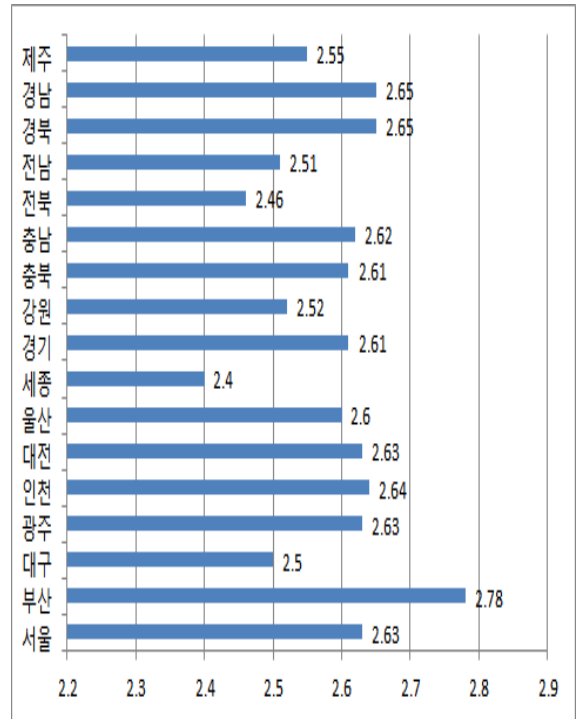
【그림 IV-Ⅱ】 시도별 (2016) 사회적대인신뢰: 다른 나라 사람들

⑫ 사회조직신뢰: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사회조직신뢰는 부산이 2.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2.4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p<.001$) 역시 고루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세종이 또 한번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 관계 영역 전반에 있어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V-22 시도별 (2016) 사회조직신뢰:
우리나라 전체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2.63	1.046	2.785 ***
부산	2.78	1.101	
대구	2.50	.999	
광주	2.63	1.011	
인천	2.64	1.009	
대전	2.63	1.007	
울산	2.60	1.095	
세종	2.40	.955	
경기	2.61	1.028	
강원	2.52	.981	
충북	2.61	1.043	
충남	2.62	1.022	
전북	2.46	.976	
전남	2.51	.987	
경북	2.65	.989	
경남	2.65	1.020	
제주	2.55	.976	
총계	2.61	1.024	



【그림 IV-12】 시도별 (2016) 사회조직신뢰:
우리나라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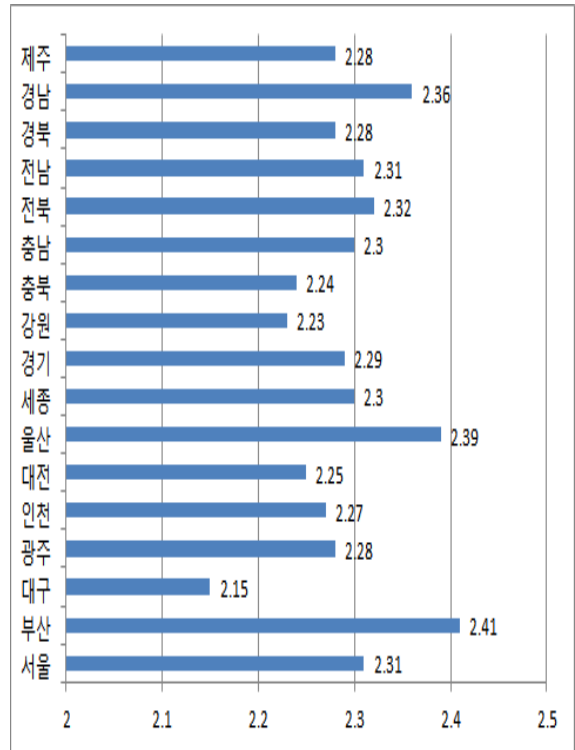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⑬ 사회조직신뢰: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사회조직신뢰를 살펴보면 부산이 2.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가 2.15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골고루 낮은 값을 나타냈다.

표 IV-23 시도별 (2016) 사회조직신뢰: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2.31	1.081	1.573
부산	2.41	1.130	
대구	2.15	.999	
광주	2.28	1.051	
인천	2.27	1.083	
대전	2.25	1.026	
울산	2.39	1.096	
세종	2.30	.964	
경기	2.29	1.055	
강원	2.23	.991	
충북	2.24	1.024	
충남	2.30	1.081	
전북	2.32	1.052	
전남	2.31	1.022	
경북	2.28	.993	
경남	2.36	1.054	
제주	2.28	1.011	
총계	2.29	1.053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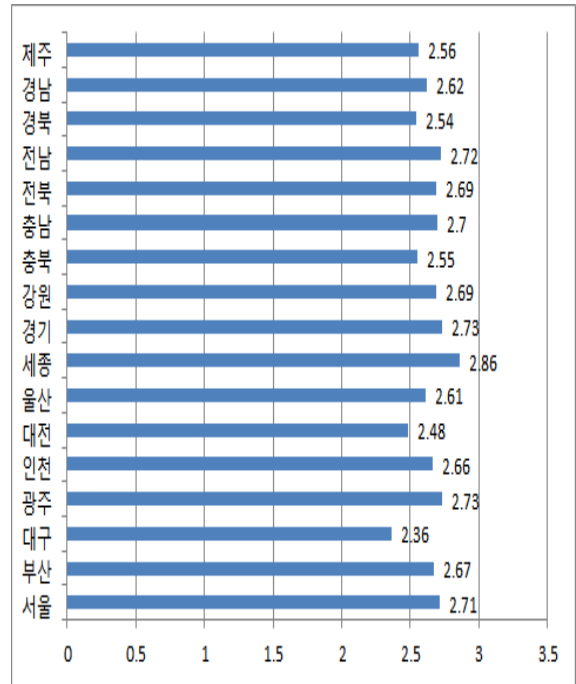
【그림 IV-13】 시도별 (2016) 사회조직신뢰: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

⑭ 사회조직신뢰: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사회조직신뢰의 경우 세종이 2.8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가 2.36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24 시도별 (2016) 사회조직신뢰: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2.71	1.304	3.938 ***
부산	2.67	1.317	
대구	2.36	1.219	
광주	2.73	1.262	
인천	2.66	1.264	
대전	2.48	1.244	
울산	2.61	1.247	
세종	2.86	1.338	
경기	2.73	1.270	
강원	2.69	1.216	
충북	2.55	1.237	
충남	2.70	1.234	
전북	2.69	1.213	
전남	2.72	1.191	
경북	2.54	1.163	
경남	2.62	1.168	
제주	2.56	1.216	
총계	2.66	1.254	



【그림 IV-14】 시도별 (2016) 사회조직신뢰: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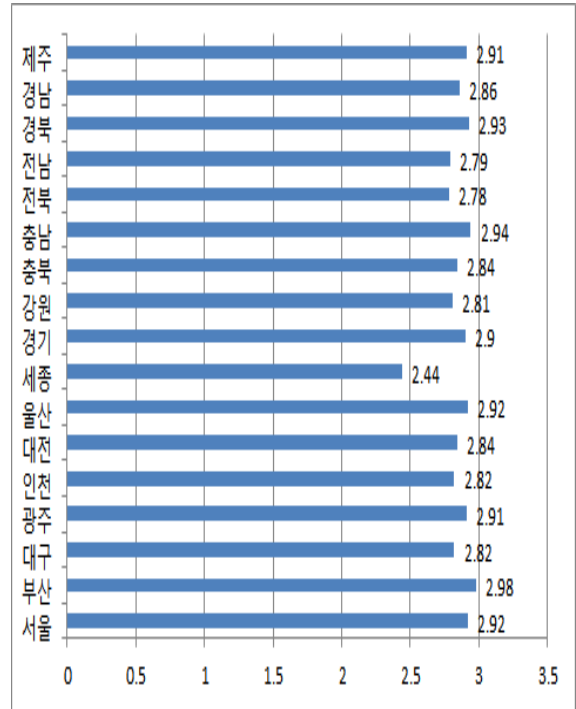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⑮ 사회조직신뢰: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에 대한 사회조직신뢰의 경우 부산이 2.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2.44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p<.001$) 지역에 관계없이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에 대해 높지 않은 신뢰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25 시도별 (2016) 사회조직신뢰: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2.92	1.022	2.211 **
부산	2.98	1.102	
대구	2.82	1.001	
광주	2.91	1.018	
인천	2.82	1.048	
대전	2.84	.965	
울산	2.92	1.024	
세종	2.44	.765	
경기	2.90	1.033	
강원	2.81	.941	
충북	2.84	.976	
충남	2.94	1.026	
전북	2.78	.992	
전남	2.79	1.002	
경북	2.93	.883	
경남	2.86	.994	
제주	2.91	.963	
총계	2.88	1.011	



【그림 IV-15】 시도별 (2016) 사회조직신뢰: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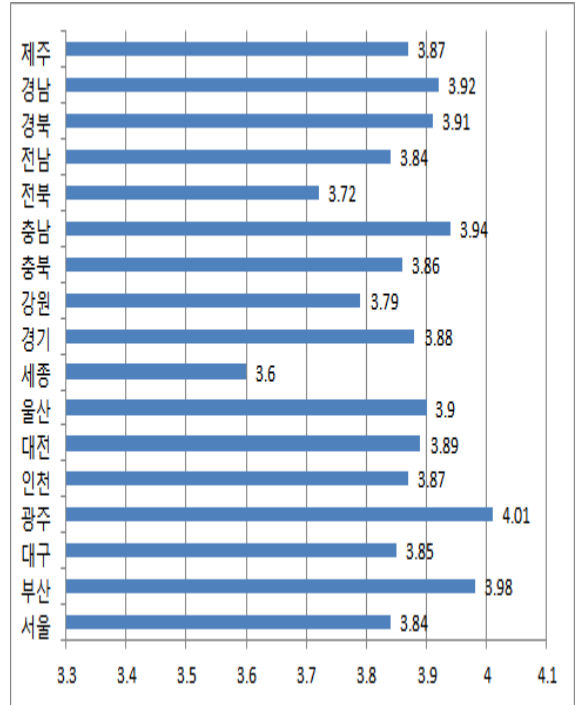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⑩ 정부조직신뢰: 지역사회 전문기관(공공)

지역사회 전문기관(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조직신뢰를 살펴보면 광주가 4.0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3.6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p<.001$) 사회조직신뢰에 비해 다소 높은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표 IV-26 시도별 (2016) 정부조직신뢰:
지역사회 전문기관(공공)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84	.942	2.960 ***
부산	3.98	.948	
대구	3.85	.950	
광주	4.01	.884	
인천	3.87	.945	
대전	3.89	.871	
울산	3.90	1.016	
세종	3.60	1.027	
경기	3.88	.944	
강원	3.79	.882	
충북	3.86	.898	
충남	3.94	.882	
전북	3.72	.940	
전남	3.84	.925	
경북	3.91	.863	
경남	3.92	.923	
제주	3.87	.890	
총계	3.88	.929	



【그림 IV-16】 시도별 (2016) 정부조직신뢰:
지역사회 전문기관(공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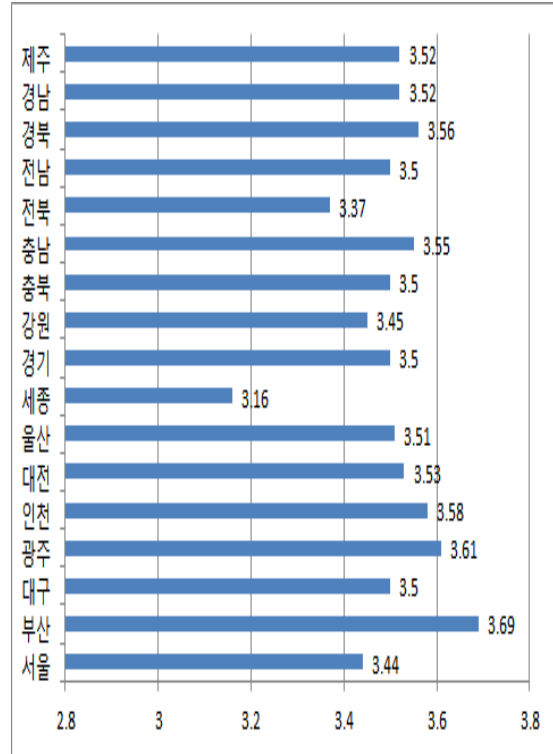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⑪ 정부조직신뢰: 지방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조직신뢰를 살펴보면 부산이 3.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3.16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p<.001$) 지역사회전문기관(공공)보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수치가 다소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IV-27 시도별 (2016) 정부조직신뢰: 지방정부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44	1.023	3.279 ***
부산	3.69	1.005	
대구	3.50	1.011	
광주	3.61	.995	
인천	3.58	.926	
대전	3.53	.929	
울산	3.51	1.069	
세종	3.16	.924	
경기	3.50	1.006	
강원	3.45	.938	
충북	3.50	.964	
충남	3.55	.913	
전북	3.37	.973	
전남	3.50	.987	
경북	3.56	.912	
경남	3.52	.969	
제주	3.52	.950	
총계	3.51	.989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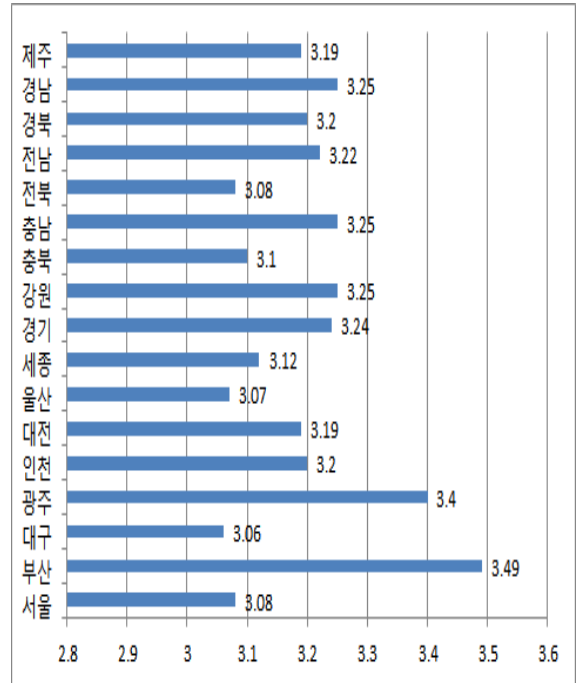
【그림 IV-17】 시도별 (2016) 정부조직신뢰: 지방정부

⑱ 정부조직신뢰: 중앙정부

중앙정부에 대한 정부조직신뢰를 살펴보면 부산이 3.49점으로 가장 높으며 대구가 3.06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001$)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대한 청소년의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표 IV-28 시도별 (2016) 정부조직신뢰: 중앙정부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08	1.223	5.575 ***
부산	3.49	1.193	
대구	3.06	1.224	
광주	3.40	1.161	
인천	3.20	1.198	
대전	3.19	1.143	
울산	3.07	1.300	
세종	3.12	1.219	
경기	3.24	1.182	
강원	3.25	1.099	
충북	3.10	1.175	
충남	3.25	1.107	
전북	3.08	1.167	
전남	3.22	1.153	
경북	3.20	1.079	
경남	3.25	1.111	
제주	3.19	1.111	
총계	3.21	1.178	



【그림 IV-18】 시도별 (2016) 정부조직신뢰: 중앙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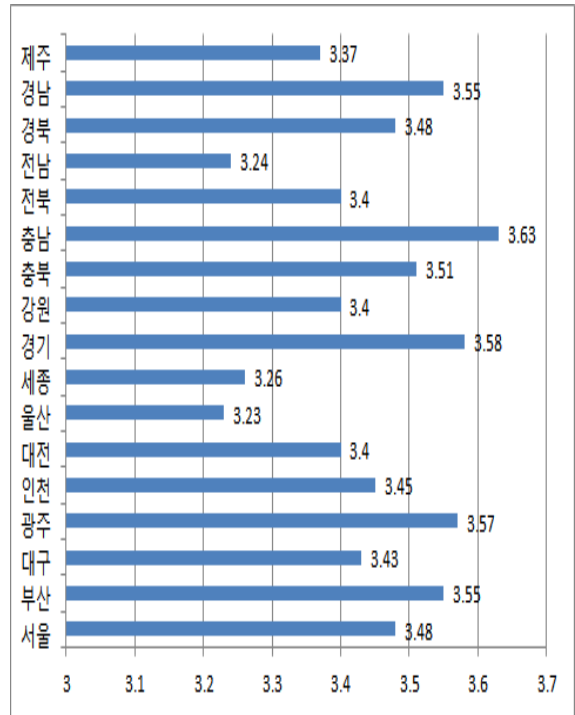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⑬ 가족간의 대화시간(하루평균)

가족간의 대화시간(하루평균)을 살펴보면 충남이 3.63점으로 가장 길었으며 울산이 3.23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29 시도별 (2016) 가족간의 대화시간
(하루평균)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48	1.110	5.017 ***
부산	3.55	1.109	
대구	3.43	1.089	
광주	3.57	1.112	
인천	3.45	1.116	
대전	3.40	1.066	
울산	3.23	1.088	
세종	3.26	1.026	
경기	3.58	1.119	
강원	3.40	1.140	
충북	3.51	1.095	
충남	3.63	1.112	
전북	3.40	1.160	
전남	3.24	1.141	
경북	3.48	1.075	
경남	3.55	1.153	
제주	3.37	1.126	
총계	3.49	1.119	



【그림 IV-19】 시도별 (2016) 가족간의
대화시간(하루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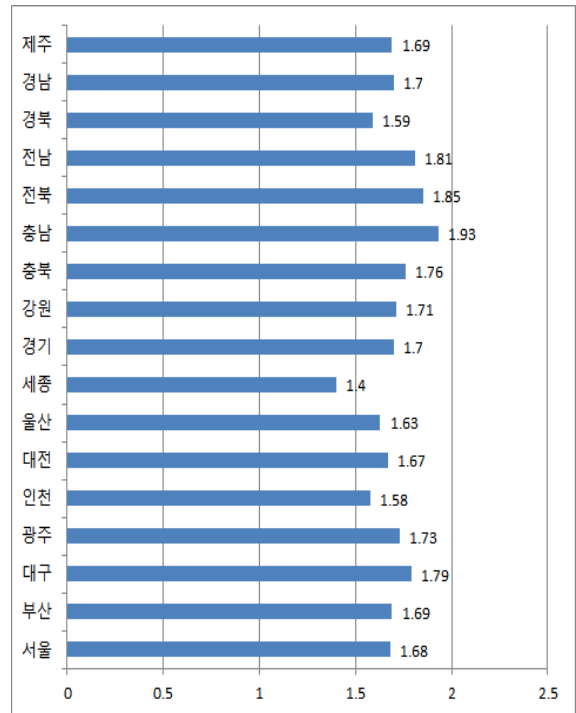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⑳ 담임 교사와 면담횟수(일주일 평균 횟수)

담임 교사와의 면담횟수(일주일 평균 횟수)를 살펴보면 충남이 1.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1.4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30 시도별 (2016) 담임 교사와
면담횟수(일주일 평균)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1.68	1.109	2.992 ***
부산	1.69	1.072	
대구	1.79	1.107	
광주	1.73	1.115	
인천	1.58	.959	
대전	1.67	1.001	
울산	1.63	1.078	
세종	1.40	.791	
경기	1.70	1.104	
강원	1.71	1.040	
충북	1.76	1.091	
충남	1.93	1.279	
전북	1.85	1.230	
전남	1.81	1.167	
경북	1.59	.965	
경남	1.70	1.143	
제주	1.69	1.060	
총계	1.71	1.105	



【그림 IV-20】 시도별 (2016) 담임 교사와
면담횟수(일주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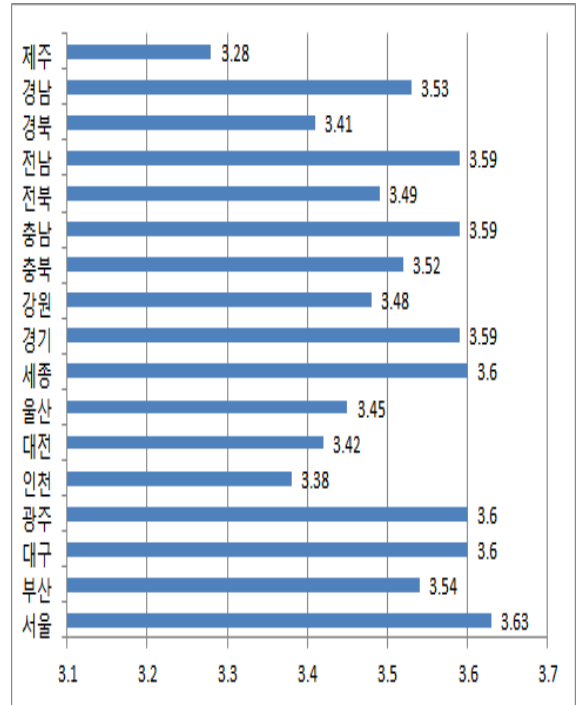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②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하루평균)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하루평균)은 서울이 3.63점으로 가장 길었으며 제주가 3.28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31 시도별 (2016)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하루평균)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63	1.338	2.506 ***
부산	3.54	1.357	
대구	3.60	1.254	
광주	3.60	1.331	
인천	3.38	1.412	
대전	3.42	1.388	
울산	3.45	1.415	
세종	3.60	1.348	
경기	3.59	1.320	
강원	3.48	1.372	
충북	3.52	1.362	
충남	3.59	1.338	
전북	3.49	1.420	
전남	3.59	1.423	
경북	3.41	1.378	
경남	3.53	1.391	
제주	3.28	1.405	
총계	3.55	1.355	



【그림 IV-2】 시도별 (2016)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하루평균)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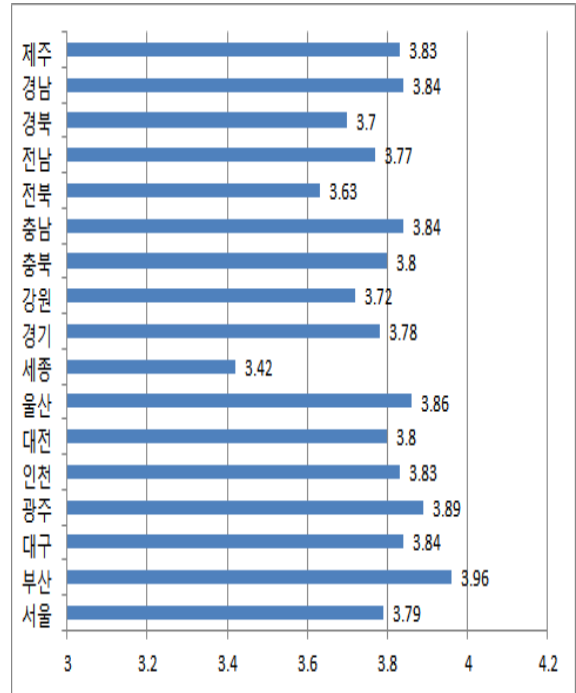
② 이웃(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이웃(지역사회)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부산이 3.9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3.42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32 시도별 (2016) 이웃(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79	.965	3.938 ***
부산	3.96	.951	
대구	3.84	.895	
광주	3.89	.878	
인천	3.83	.866	
대전	3.80	.874	
울산	3.86	.928	
세종	3.42	1.118	
경기	3.78	.914	
강원	3.72	.917	
충북	3.80	.928	
충남	3.84	.842	
전북	3.63	.901	
전남	3.77	.919	
경북	3.70	.892	
경남	3.84	.901	
제주	3.83	.890	
총계	3.80	.917	

* $p<.05$, ** $p<.01$, *** $p<.001$



【그림 IV-22】 시도별 (2016) 이웃(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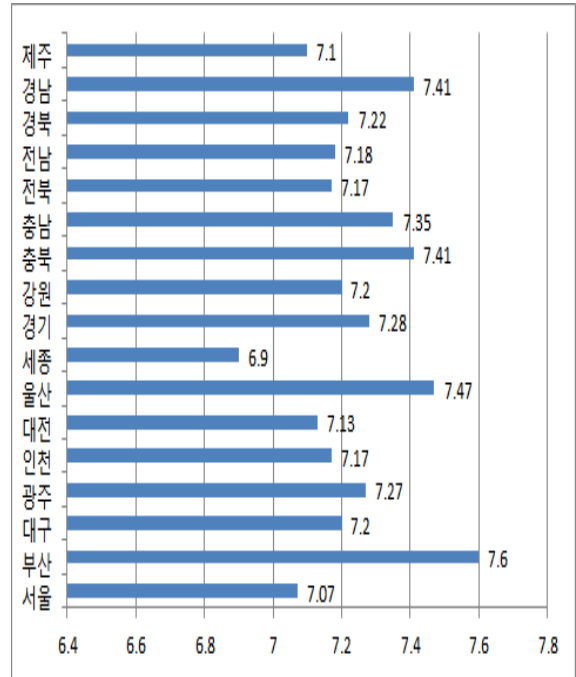
(2) 주관적 웰빙 영역(2016)

① 삶의 만족도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부산이 7.6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6.9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33 시도별 (2016) 삶의 만족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7.07	2.301	2.283 **
부산	7.60	2.278	
대구	7.20	2.205	
광주	7.27	2.218	
인천	7.17	2.250	
대전	7.13	2.238	
울산	7.47	2.258	
세종	6.90	2.416	
경기	7.28	2.251	
강원	7.20	2.245	
충북	7.41	2.170	
충남	7.35	2.202	
전북	7.17	2.381	
전남	7.18	2.243	
경북	7.22	2.040	
경남	7.41	2.177	
제주	7.10	2.168	
총계	7.25	2.245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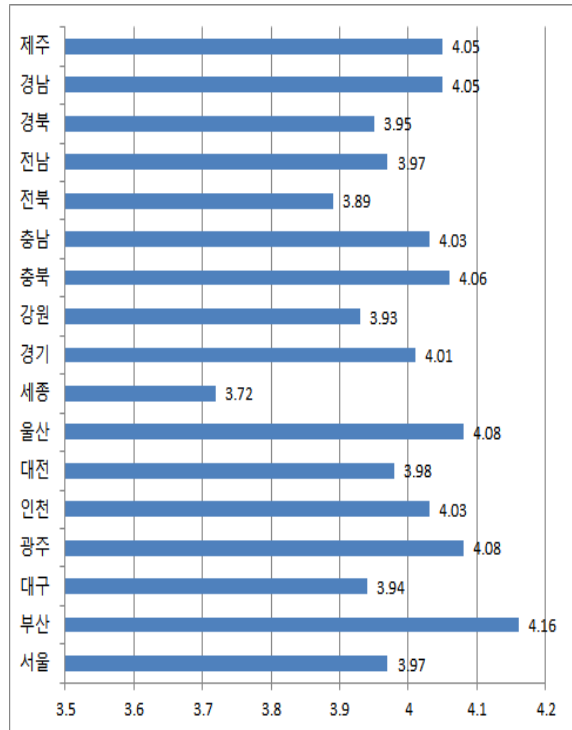
【그림 IV-23】 시도별 (2016) 삶의 만족도

② 정서상태: 즐거운

즐거운 정서상태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부산이 4.1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3.72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34 시도별 (2016) 정서상태: 즐거운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97	.879	3.354 ***
부산	4.16	.889	
대구	3.94	.869	
광주	4.08	.854	
인천	4.03	.834	
대전	3.98	.859	
울산	4.08	.899	
세종	3.72	.854	
경기	4.01	.854	
강원	3.93	.851	
충북	4.06	.761	
충남	4.03	.826	
전북	3.89	.911	
전남	3.97	.812	
경북	3.95	.814	
경남	4.05	.859	
제주	4.05	.822	
총계	4.00	.857	



* $p<.05$, ** $p<.01$, *** $p<.001$

【그림 IV-24】 시도별 (2016) 정서상태: 즐거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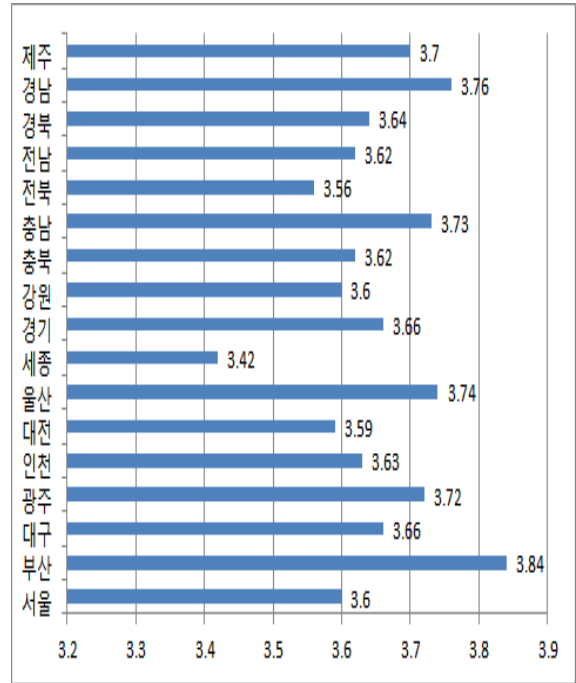
③ 정서상태: 편안한

편안한 정서상태를 살펴보면 부산이 3.8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3.42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표 IV-35 시도별 (2016) 정서상태: 편안한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60	1.011	3.199 ***
부산	3.84	1.017	
대구	3.66	.949	
광주	3.72	1.014	
인천	3.63	1.005	
대전	3.59	1.020	
울산	3.74	1.012	
세종	3.42	.932	
경기	3.66	.990	
강원	3.60	.933	
충북	3.62	.935	
충남	3.73	.924	
전북	3.56	.989	
전남	3.62	.930	
경북	3.64	.919	
경남	3.76	.933	
제주	3.70	1.025	
총계	3.66	.984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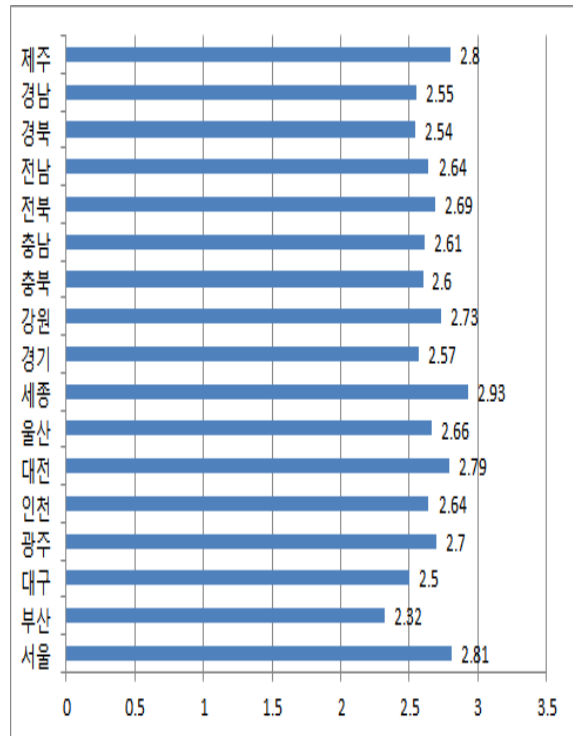
【그림 IV-25】 시도별 (2016) 정서상태: 편안한

④ 정서상태: 불안한

불안한 정서상태를 살펴보면 세종이 2.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2.32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표 IV-36 시도별 (2016) 정서상태: 불안한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2.81	1.097	9.104 ***
부산	2.32	1.036	
대구	2.50	1.023	
광주	2.70	1.101	
인천	2.64	1.064	
대전	2.79	1.080	
울산	2.66	1.080	
세종	2.93	1.121	
경기	2.57	1.044	
강원	2.73	1.019	
충북	2.60	1.066	
충남	2.61	1.001	
전북	2.69	1.052	
전남	2.64	1.034	
경북	2.54	1.008	
경남	2.55	1.023	
제주	2.80	1.095	
총계	2.63	1.061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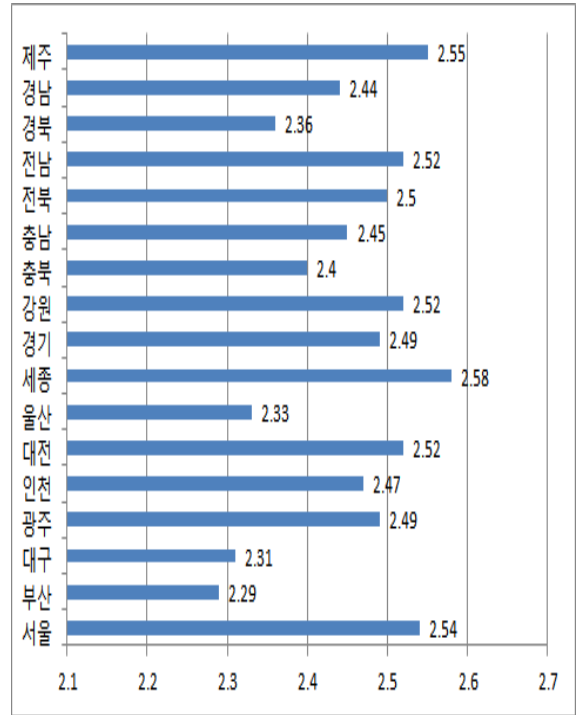
【그림 IV-26】 시도별 (2016) 정서상태: 불안한

⑤ 정서상태: 슬픈

슬픈 정서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세종이 2.5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2.29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표 IV-37 시도별 (2016) 정서상태: 슬픈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2.54	1.065	3.588 ***
부산	2.29	.999	
대구	2.31	.987	
광주	2.49	.993	
인천	2.47	.955	
대전	2.52	1.024	
울산	2.33	.981	
세종	2.58	.906	
경기	2.49	1.004	
강원	2.52	.960	
충북	2.40	.975	
충남	2.45	.950	
전북	2.50	1.039	
전남	2.52	.973	
경북	2.36	.935	
경남	2.44	.968	
제주	2.55	1.011	
총계	2.47	1.00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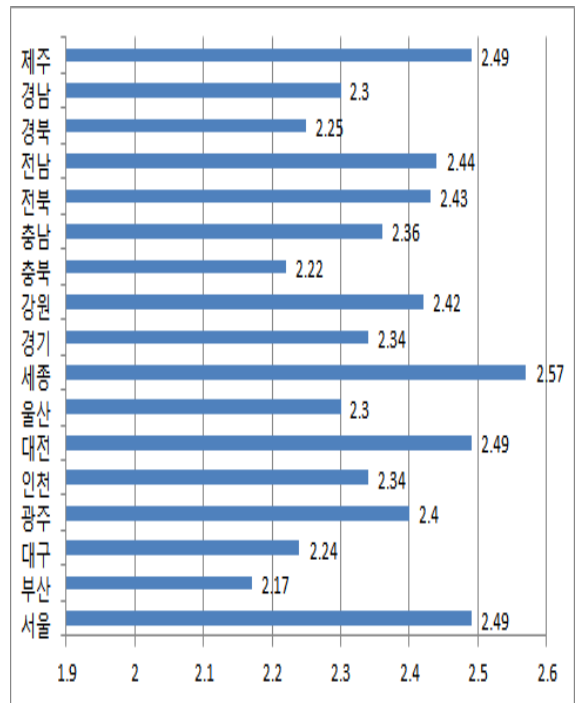
【그림 IV-27】 시도별 (2016) 정서상태: 슬픈

⑥ 정서상태: 우울한

우울한 정서상태를 살펴보면 세종이 25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217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부정적 정서 전반에서 세종 지역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긍정적 정서 전반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을 볼 때 이 지역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복증진, 정서함양 프로그램이 시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38 시도별 (2016) 정서상태: 우울한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2.49	1.148	4.708 ***
부산	2.17	1.077	
대구	2.24	1.035	
광주	2.40	1.125	
인천	2.34	1.137	
대전	2.49	1.151	
울산	2.30	1.090	
세종	2.57	1.039	
경기	2.34	1.109	
강원	2.42	1.032	
충북	2.22	1.078	
충남	2.36	1.056	
전북	2.43	1.119	
전남	2.44	1.055	
경북	2.25	1.038	
경남	2.30	1.071	
제주	2.49	1.121	
총계	2.37	1.104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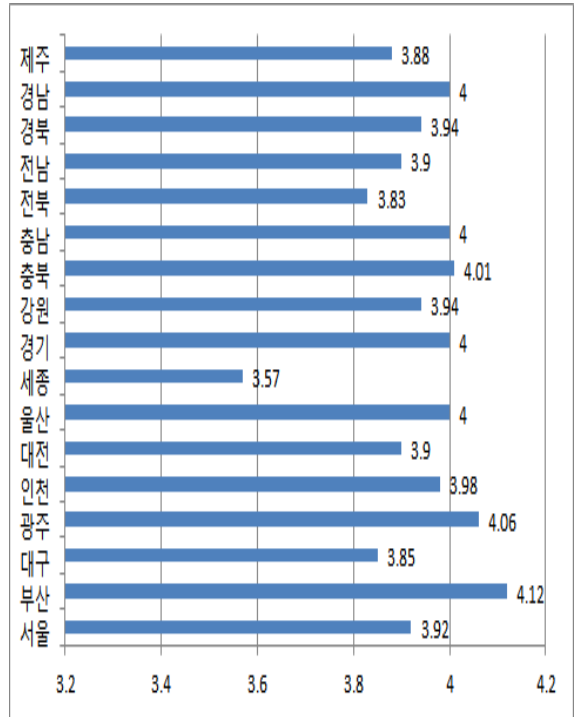
【그림 IV-28】 시도별 (2016) 정서상태: 우울한

⑦ 정서상태: 행복한

행복한 정서상태의 경우 부산이 4.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3.57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39 시도별 (2016) 정서상태: 행복한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92	.930	4.006 ***
부산	4.12	.907	
대구	3.85	.923	
광주	4.06	.888	
인천	3.98	.937	
대전	3.90	.956	
울산	4.00	.926	
세종	3.57	.887	
경기	4.00	.920	
강원	3.94	.913	
충북	4.01	.863	
충남	4.00	.861	
전북	3.83	1.002	
전남	3.90	.904	
경북	3.94	.860	
경남	4.00	.936	
제주	3.88	.876	
총계	3.96	.92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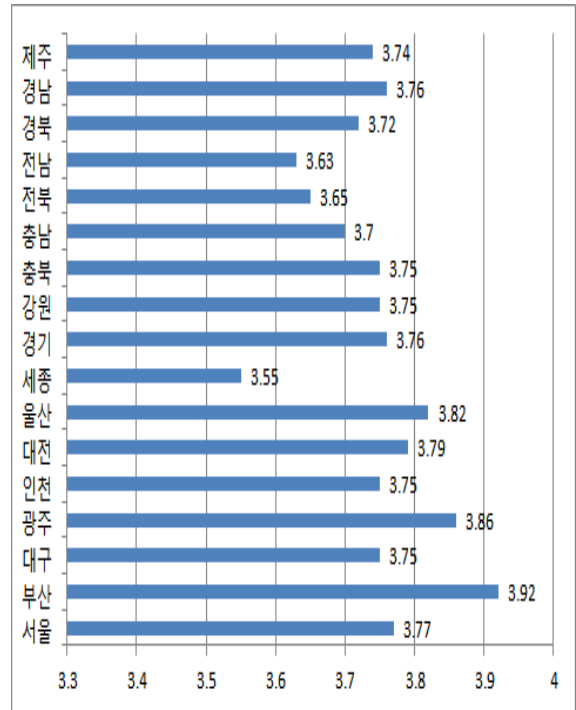
【그림 IV-29】 시도별 (2016) 정서상태: 행복한

⑧ 유데모니아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생각인 유데모니아는 유데모니아에 대한 6개 지문을 복합지수화하여 문항수로 나눈 뒤 1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¹³⁾. 유데모니아의 경우 부산이 3.9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3.55점으로 가장 낮아서 다른 주관적 웰빙 영역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40 시도별 (2016) 유데모니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77	.775	4.371 ***
부산	3.92	.779	
대구	3.75	.808	
광주	3.86	.740	
인천	3.75	.786	
대전	3.79	.731	
울산	3.82	.833	
세종	3.55	.704	
경기	3.76	.732	
강원	3.75	.675	
충북	3.75	.719	
충남	3.70	.731	
전북	3.65	.775	
전남	3.63	.699	
경북	3.72	.669	
경남	3.76	.761	
제주	3.74	.750	
총계	3.76	.749	



* $p<.05$, ** $p<.01$, *** $p<.001$

【그림 IV-30】 시도별 (2016) 유데모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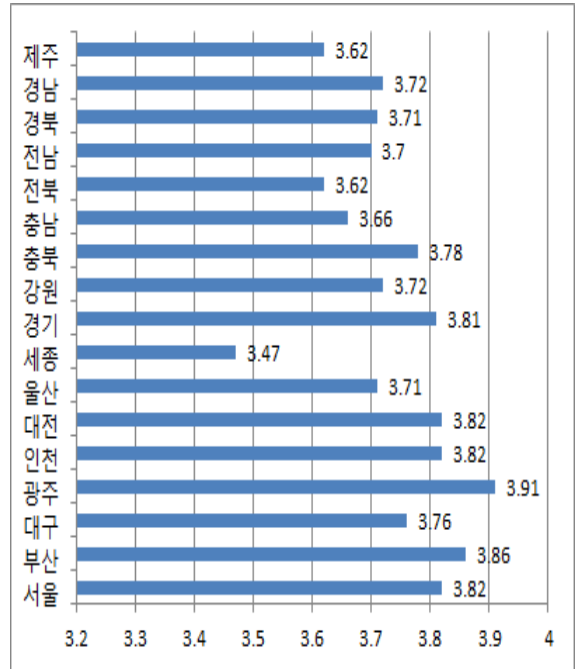
13) 유데모니아 지표의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은 .86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⑨ 성격특성: 외향적인(다른 사람과 쉽게 잘 어울리는)

외향적인 성격특성은 광주가 3.9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3.47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V-41 시도별 (2016) 성격특성: 외향적인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82	1.010	3.611 ***
부산	3.86	1.077	
대구	3.76	1.026	
광주	3.91	1.013	
인천	3.82	1.040	
대전	3.82	1.016	
울산	3.71	1.094	
세종	3.47	.960	
경기	3.81	1.009	
강원	3.72	1.006	
충북	3.78	1.035	
충남	3.66	1.015	
전북	3.62	1.066	
전남	3.70	1.031	
경북	3.71	.968	
경남	3.72	1.055	
제주	3.62	1.050	
총계	3.77	1.026	



【그림 IV-31】 시도별 (2016) 성격특성: 외향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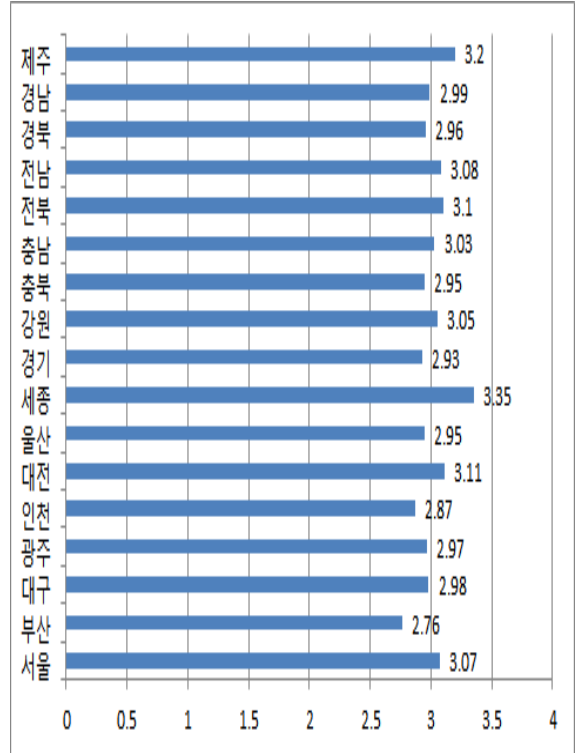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⑩ 성격특성: 걱정이 많은

걱정이 많은 성격특성은 세종이 3.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2.76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표 IV-42 시도별 (2016) 성격특성: 걱정이 많은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07	1.131	4.362 ***
부산	2.76	1.126	
대구	2.98	1.167	
광주	2.97	1.169	
인천	2.87	1.189	
대전	3.11	1.107	
울산	2.95	1.179	
세종	3.35	1.232	
경기	2.93	1.116	
강원	3.05	1.044	
충북	2.95	1.120	
충남	3.03	1.108	
전북	3.10	1.159	
전남	3.08	1.101	
경북	2.96	1.078	
경남	2.99	1.127	
제주	3.20	1.158	
총계	2.99	1.13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32】 시도별 (2016) 성격특성: 걱정이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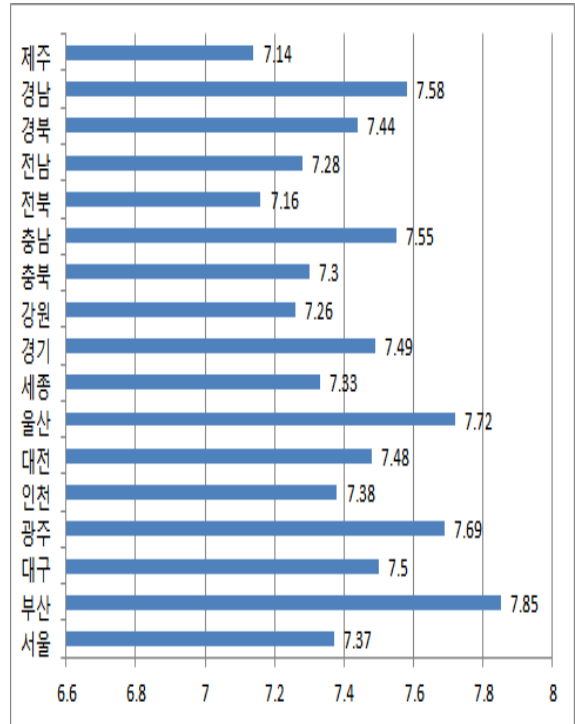
(3) 건강 영역(2016)

① 건강만족도

건강만족도는 부산이 7.8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7.16점으로 가장 낮았다($p<.001$).

표 IV-43 시도별 (2016) 건강만족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7.37	2.322	3.379 ***
부산	7.85	2.271	
대구	7.50	2.212	
광주	7.69	2.081	
인천	7.38	2.385	
대전	7.48	2.286	
울산	7.72	2.258	
세종	7.33	1.861	
경기	7.49	2.241	
강원	7.26	2.238	
충북	7.30	2.305	
충남	7.55	2.144	
전북	7.16	2.357	
전남	7.28	2.325	
경북	7.44	2.093	
경남	7.58	2.257	
제주	7.14	2.365	
총계	7.46	2.263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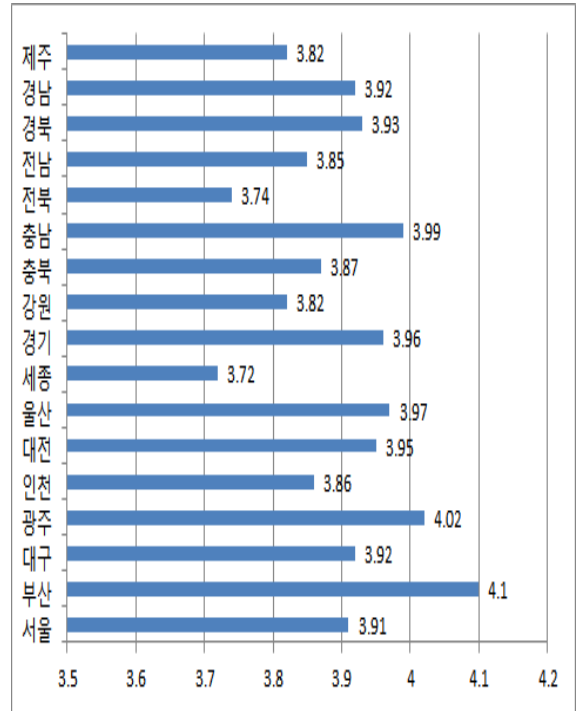
【그림 IV-33】 시도별 (2016) 건강만족도

②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부산이 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3.72점으로 가장 낮았다($p<.001$).

표 IV-44 시도별 (2016) 주관적 건강상태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91	.942	4.285 ***
부산	4.10	.929	
대구	3.92	.967	
광주	4.02	.865	
인천	3.86	1.023	
대전	3.95	.952	
울산	3.97	.934	
세종	3.72	.959	
경기	3.96	.924	
강원	3.82	.919	
충북	3.87	.914	
충남	3.99	.948	
전북	3.74	1.005	
전남	3.85	.928	
경북	3.93	.847	
경남	3.92	.931	
제주	3.82	.930	
총계	3.92	.936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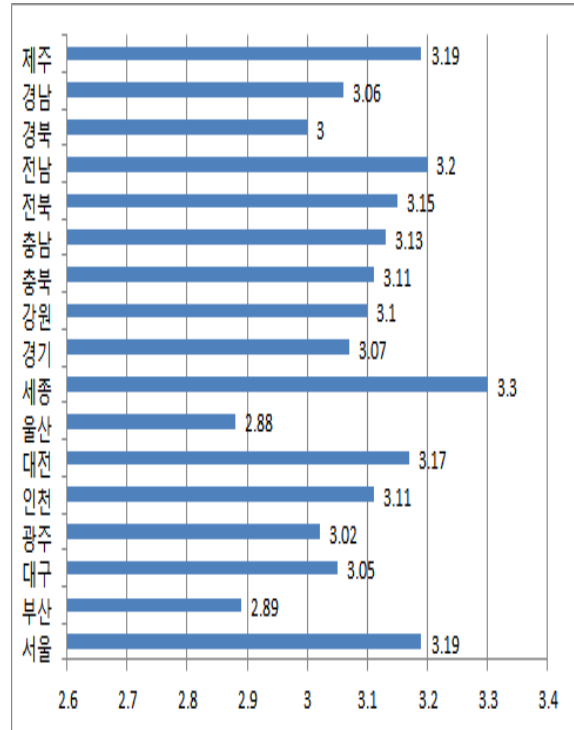
【그림 IV-34】 시도별 (2016) 주관적 건강상태

③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 정도는 세종이 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이 2.88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표 IV-45 시도별 (2016) 스트레스 정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19	1.103	3.616 ***
부산	2.89	1.156	
대구	3.05	1.098	
광주	3.02	1.177	
인천	3.11	1.164	
대전	3.17	1.069	
울산	2.88	1.209	
세종	3.30	1.264	
경기	3.07	1.109	
강원	3.10	1.027	
충북	3.11	1.125	
충남	3.13	1.141	
전북	3.15	1.063	
전남	3.20	1.079	
경북	3.00	1.087	
경남	3.06	1.079	
제주	3.19	1.162	
총계	3.09	1.113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35】 시도별 (2016) 스트레스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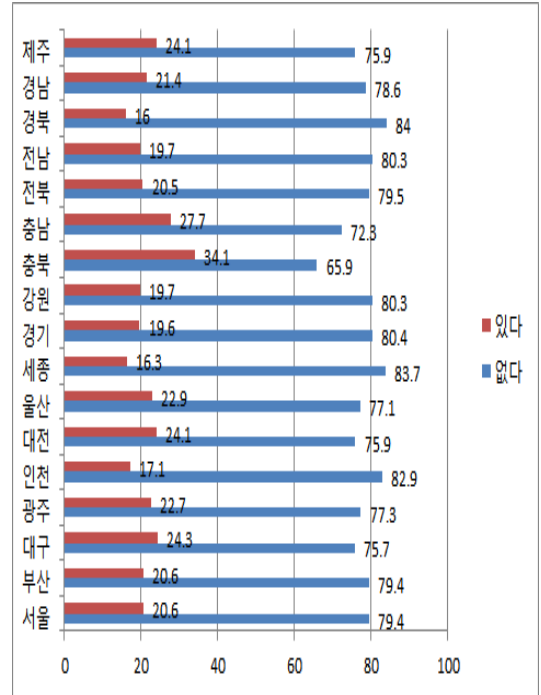
④ 질병유무(감기, 배탈, 몸살 제외)

질병 유무는 총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1%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이 16.0%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표 IV-46 시도별 (2016) 질병유무

시도	없다	있다	x 2
	%	%	
서울	79.4	20.6	73.343 ***
부산	79.4	20.6	
대구	75.7	24.3	
광주	77.3	22.7	
인천	82.9	17.1	
대전	75.9	24.1	
울산	77.1	22.9	
세종	83.7	16.3	
경기	80.4	19.6	
강원	80.3	19.7	
충북	65.9	34.1	
충남	72.3	27.7	
전북	79.5	20.5	
전남	80.3	19.7	
경북	84.0	16.0	
경남	78.6	21.4	
제주	75.9	24.1	
총계	78.6	21.4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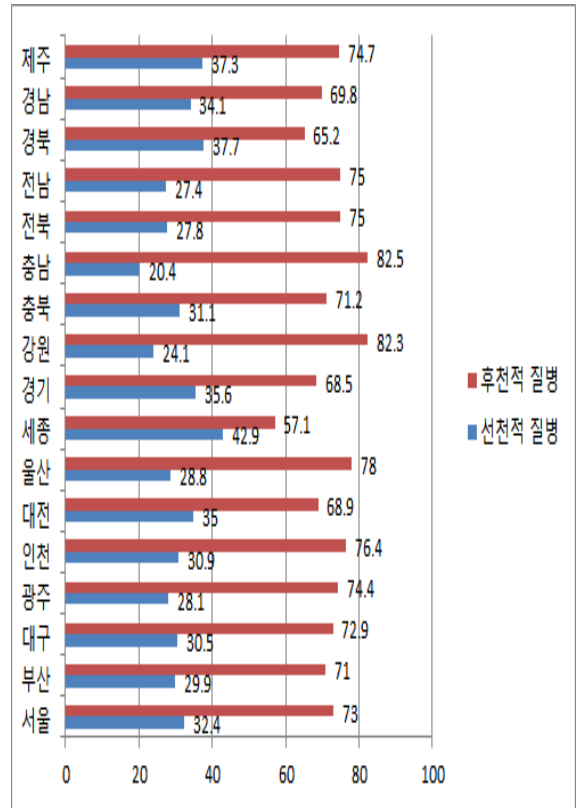
【그림 IV-36】 시도별 (2016) 질병유무

⑤ 질병유형

질병유형(다중응답)을 살펴보면 선천적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세종이 42.9%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이 20.4%로 가장 낮았다. 후천적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강원이 82.5%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57.1%로 가장 낮았다.

표 IV-47 시도별 (2016) 질병유형

시도	선천적 질병	후천적 질병	x 2
	%	%	
서울	32.4	73.0	—
부산	29.9	71.0	
대구	30.5	72.9	
광주	28.1	74.4	
인천	30.9	76.4	
대전	35.0	68.9	
울산	28.8	78.0	
세종	42.9	57.1	
경기	35.6	68.5	
강원	24.1	82.3	
충북	31.1	71.2	
충남	20.4	82.5	
전북	27.8	75.0	
전남	27.4	75.0	
경북	37.7	65.2	
경남	34.1	69.8	
제주	37.3	74.7	
총계	20.9	79.1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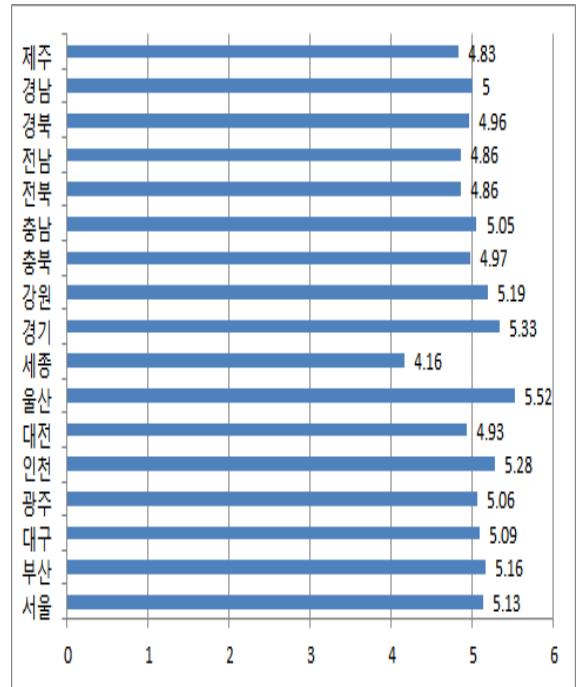
【그림 IV-37】 시도별 (2016) 질병유형

⑥ 아침식사율(일주일 중 며칠)

일주일 중 아침식사를 하는 일자를 살펴보면 울산이 5.52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이 4.16일로 가장 적었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48 시도별 (2016) 아침식사율
(일주일 중 며칠)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5.13	2.323	3.909 ***
부산	5.16	2.449	
대구	5.09	2.396	
광주	5.06	2.408	
인천	5.28	2.324	
대전	4.93	2.448	
울산	5.52	2.192	
세종	4.16	2.751	
경기	5.33	2.299	
강원	5.19	2.357	
충북	4.97	2.542	
충남	5.05	2.438	
전북	4.86	2.513	
전남	4.86	2.432	
경북	4.96	2.352	
경남	5.00	2.449	
제주	4.83	2.455	
총계	5.13	2.382	



【그림 IV-38】 시도별 (2016) 아침식사율
(일주일 중 며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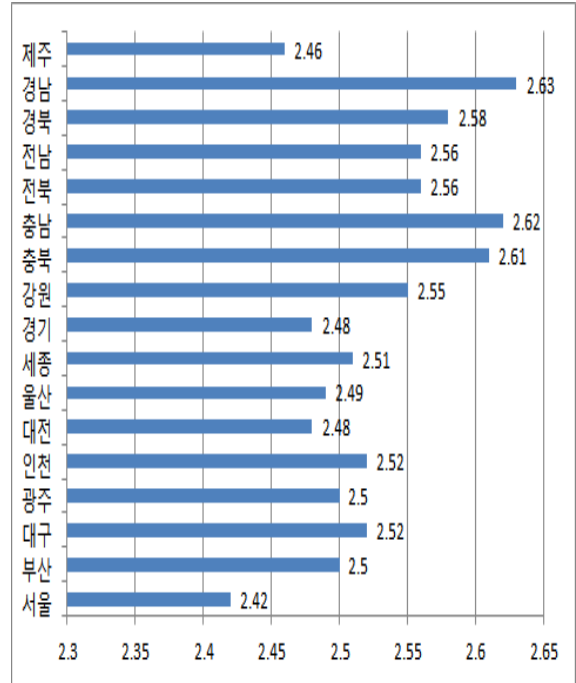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⑦ 고카페인 이용량

고카페인 이용량을 살펴보면 경남이 2.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2.42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표 IV-49 시도별 (2016) 고카페인 이용량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2.42	1.042	2.447 ***
부산	2.50	.977	
대구	2.52	1.009	
광주	2.50	1.014	
인천	2.52	1.015	
대전	2.48	1.008	
울산	2.49	1.029	
세종	2.51	.935	
경기	2.48	.991	
강원	2.55	.918	
충북	2.61	1.017	
충남	2.62	.996	
전북	2.56	.993	
전남	2.56	1.012	
경북	2.58	.981	
경남	2.63	1.021	
제주	2.46	1.021	
총계	2.51	1.005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39】 시도별 (2016) 고카페인 이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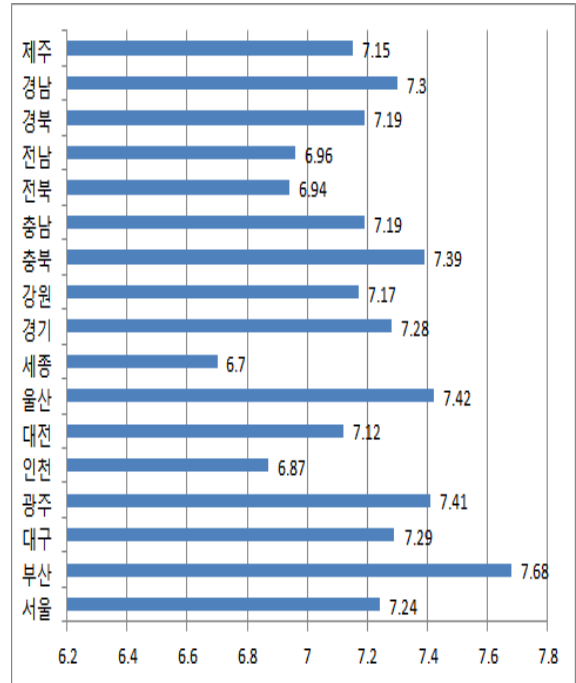
(4) 교육 영역(2016)

①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는 부산이 7.6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6.7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표 IV-50 시도별 (2016) 학교생활만족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7.24	2.326	3.570 ***
부산	7.68	2.274	
대구	7.29	2.256	
광주	7.41	2.218	
인천	6.87	2.468	
대전	7.12	2.255	
울산	7.42	2.382	
세종	6.70	2.455	
경기	7.28	2.273	
강원	7.17	2.116	
충북	7.39	2.170	
충남	7.19	2.182	
전북	6.94	2.425	
전남	6.96	2.252	
경북	7.19	2.142	
경남	7.30	2.264	
제주	7.15	2.164	
총계	7.24	2.276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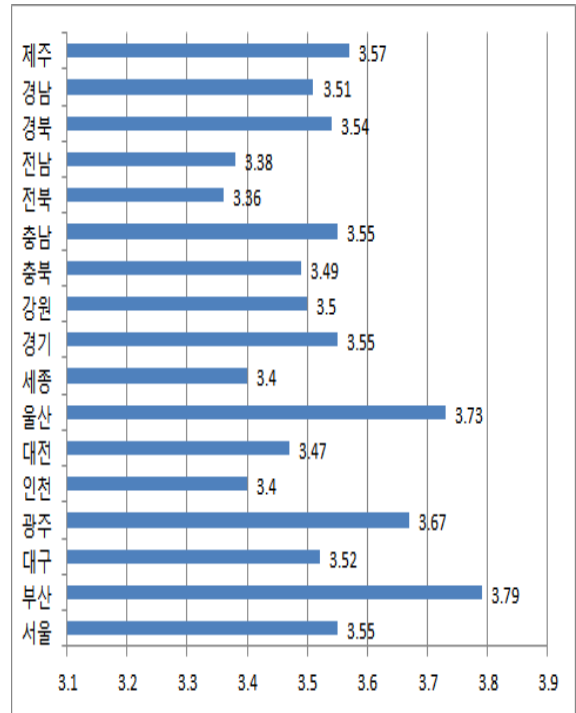
【그림 IV-40】 시도별 (2016) 학교생활만족도

② 교과과정만족도

교과과정만족도는 부산이 3.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3.36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표 IV-51 시도별 (2016) 교과과정만족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55	1.018	6.030 ***
부산	3.79	.992	
대구	3.52	.987	
광주	3.67	.959	
인천	3.40	1.027	
대전	3.47	.971	
울산	3.73	1.012	
세종	3.40	1.072	
경기	3.55	.974	
강원	3.50	.913	
충북	3.49	.974	
충남	3.55	.896	
전북	3.36	.941	
전남	3.38	.956	
경북	3.54	.834	
경남	3.51	.958	
제주	3.57	.920	
총계	3.54	.97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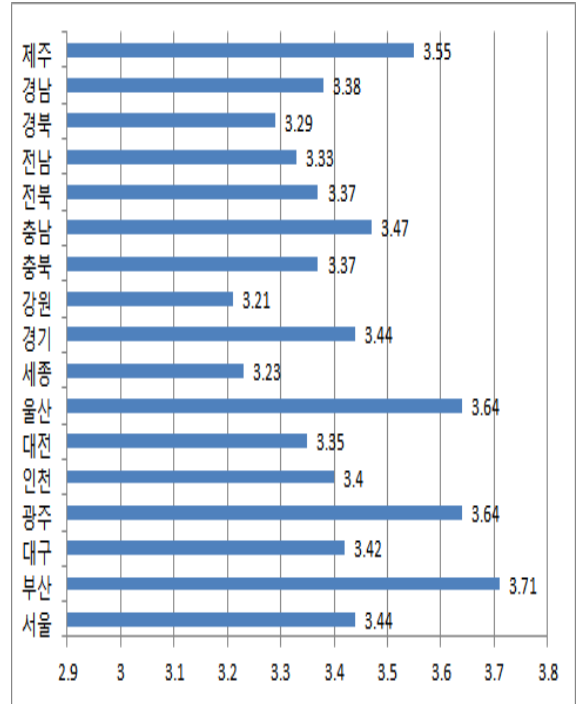
【그림 IV-41】 시도별 (2016) 교과과정만족도

③ 진로교육만족도

진로교육만족도는 부산이 3.7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3.21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표 IV-52 시도별 (2016) 진로교육만족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44	1.080	7.010 ***
부산	3.71	1.040	
대구	3.42	1.069	
광주	3.64	1.087	
인천	3.40	1.121	
대전	3.35	1.097	
울산	3.64	1.058	
세종	3.23	1.192	
경기	3.44	1.036	
강원	3.21	1.089	
충북	3.37	1.010	
충남	3.47	.930	
전북	3.37	1.060	
전남	3.33	1.040	
경북	3.29	.958	
경남	3.38	1.076	
제주	3.55	1.019	
총계	3.44	1.056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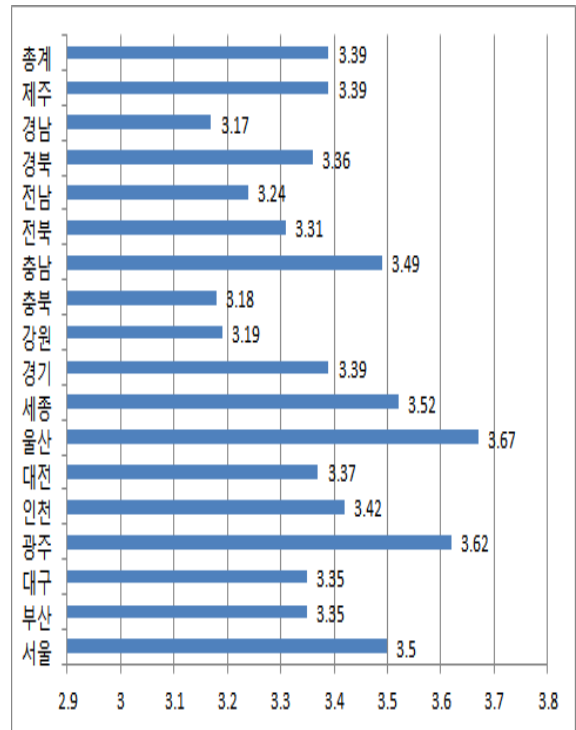
【그림 IV-42】 시도별 (2016) 진로교육만족도

④ 진로교육·체험경험

진로교육체험경험은 울산이 3.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이 3.17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표 IV-53 시도별 (2016) 진로교육·체험경험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50	1.178	6.887 ***
부산	3.35	1.266	
대구	3.35	1.203	
광주	3.62	1.164	
인천	3.42	1.174	
대전	3.37	1.112	
울산	3.67	1.119	
세종	3.52	1.042	
경기	3.39	1.151	
강원	3.19	1.110	
충북	3.18	1.130	
충남	3.49	1.130	
전북	3.31	1.156	
전남	3.24	1.214	
경북	3.36	1.021	
경남	3.17	1.183	
제주	3.39	1.102	
총계	3.39	1.163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43】 시도별 (2016) 진로교육·체험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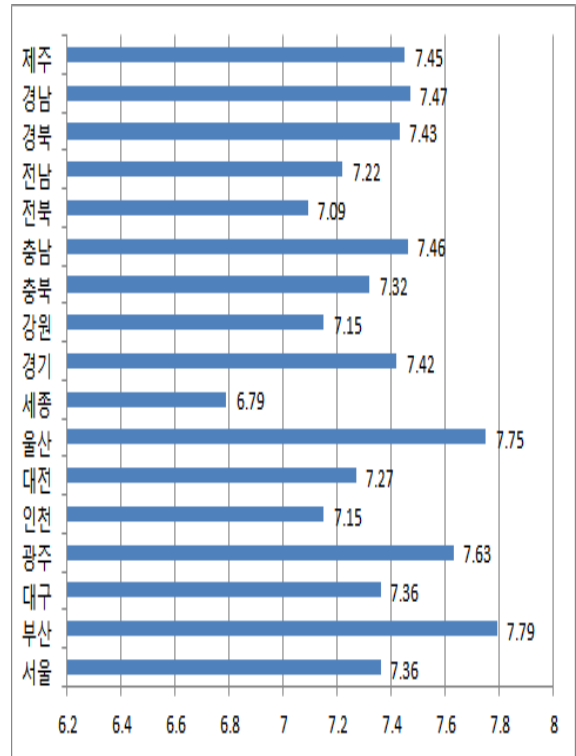
(5) 안전 영역(2016)

① 생활안전만족도

생활안전만족도는 부산이 7.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6.79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표 IV-54 시도별 (2016) 생활안전만족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7.36	2.076	4.343 ***
부산	7.79	2.017	
대구	7.36	2.036	
광주	7.63	1.940	
인천	7.15	2.253	
대전	7.27	2.060	
울산	7.75	1.917	
세종	6.79	2.247	
경기	7.42	2.022	
강원	7.15	1.984	
충북	7.32	1.948	
충남	7.46	1.976	
전북	7.09	2.141	
전남	7.22	2.002	
경북	7.43	1.779	
경남	7.47	2.022	
제주	7.45	2.001	
총계	7.40	2.029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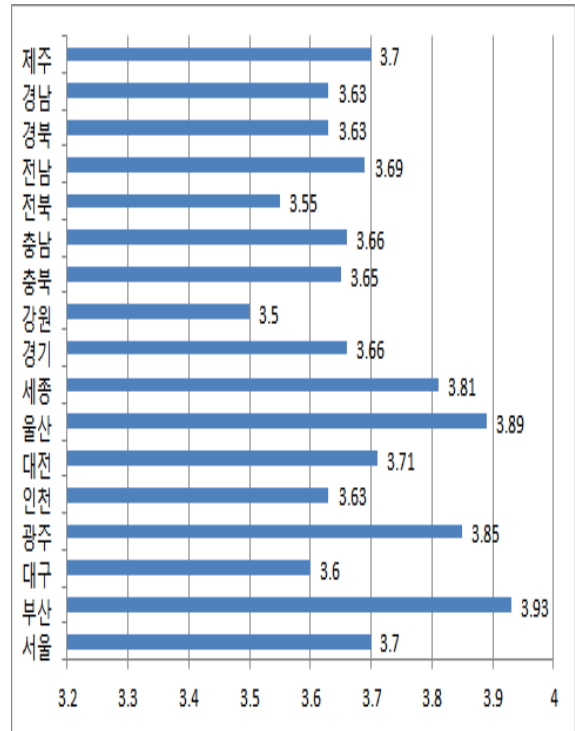
【그림 IV-44】 시도별 (2016) 생활안전만족도

② 지역사회시설안전도

지역사회시설안전도는 부산이 3.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3.5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55 시도별 (2016) 지역사회시설안전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70	.887	7.887 ***
부산	3.93	.855	
대구	3.60	.878	
광주	3.85	.817	
인천	3.63	.841	
대전	3.71	.848	
울산	3.89	.852	
세종	3.81	.732	
경기	3.66	.872	
강원	3.50	.871	
충북	3.65	.819	
충남	3.66	.858	
전북	3.55	.846	
전남	3.69	.827	
경북	3.63	.795	
경남	3.63	.802	
제주	3.70	.821	
총계	3.68	.858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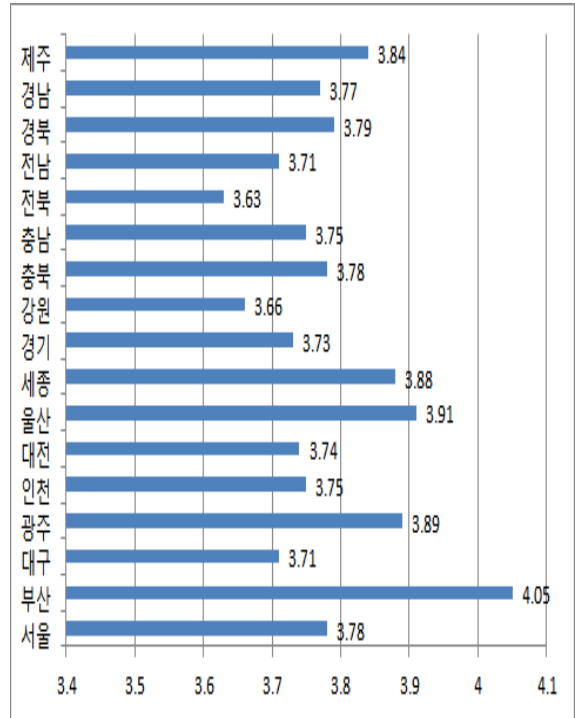
【그림 IV-45】 시도별 (2016) 지역사회시설안전도

③ 학교시설안전도

학교시설안전도는 부산이 4.0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3.63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표 IV-56 시도별 (2016) 학교시설안전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78	.914	6.346 ***
부산	4.05	.841	
대구	3.71	.888	
광주	3.89	.908	
인천	3.75	.857	
대전	3.74	.898	
울산	3.91	.901	
세종	3.88	.879	
경기	3.73	.921	
강원	3.66	.892	
충북	3.78	.857	
충남	3.75	.885	
전북	3.63	.895	
전남	3.71	.917	
경북	3.79	.798	
경남	3.77	.825	
제주	3.84	.812	
총계	3.77	.894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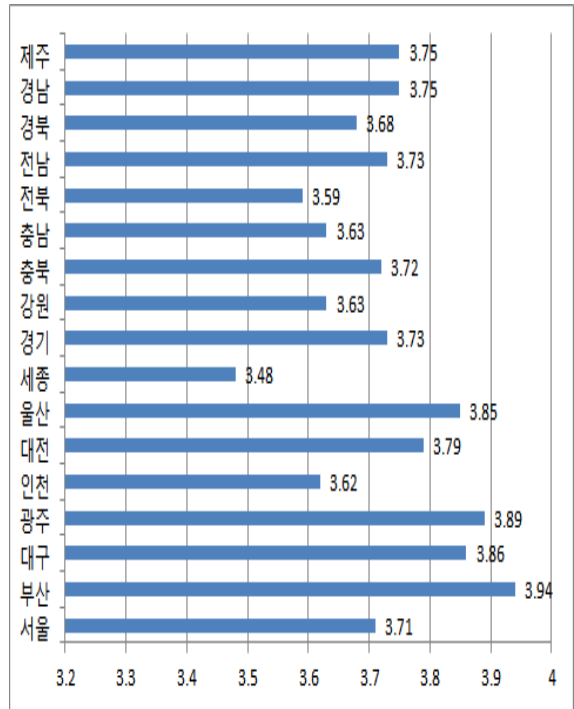
【그림 IV-46】 시도별 (2016) 학교시설안전도

④ 위기상황대처능력

위기상황대처능력은 부산이 3.9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3.48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표 IV-57 시도별 (2016) 위기상황대처능력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71	.987	5.239 ***
부산	3.94	.943	
대구	3.86	.894	
광주	3.89	.939	
인천	3.62	.957	
대전	3.79	.903	
울산	3.85	.932	
세종	3.48	.943	
경기	3.73	.985	
강원	3.63	.918	
충북	3.72	.936	
충남	3.63	.962	
전북	3.59	.925	
전남	3.73	.905	
경북	3.68	.946	
경남	3.75	.959	
제주	3.75	.966	
총계	3.74	.959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47】 시도별 (2016) 위기상황대처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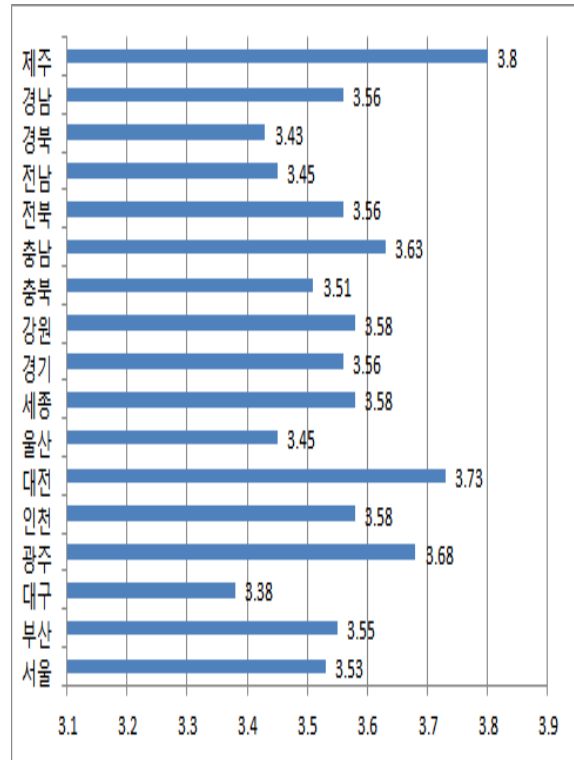
⑤ 범죄안전도(-)

범죄안전도는 값이 높을수록 범죄안전도가 낮아지는 지표로 제주가 3.8점으로 가장 높고 대구가 3.38점으로 가장 낮아 대구가 가장 안전하고 제주가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58 시도별 (2016) 범죄안전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53	1.150	3.606 ***
부산	3.55	1.135	
대구	3.38	1.205	
광주	3.68	1.130	
인천	3.58	1.121	
대전	3.73	1.059	
울산	3.45	1.124	
세종	3.58	1.052	
경기	3.56	1.122	
강원	3.58	1.079	
충북	3.51	1.095	
충남	3.63	1.155	
전북	3.56	1.139	
전남	3.45	1.203	
경북	3.43	1.109	
경남	3.56	1.119	
제주	3.80	1.106	
총계	3.56	1.133	

* $p<.05$, ** $p<.01$, *** $p<.001$



【그림 IV-48】 시도별 (2016) 범죄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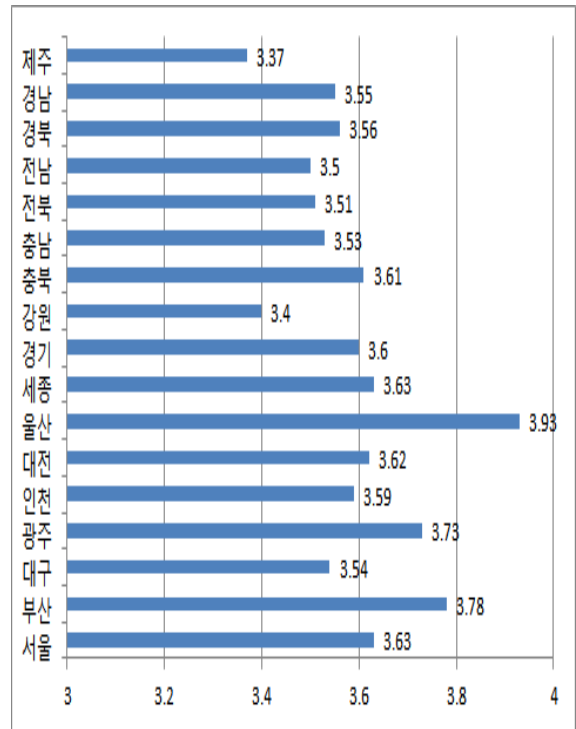
⑥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인지정도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인지정도를 살펴보면 울산이 3.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3.37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59 시도별 (2016)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인지정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63	.976	6.688 ***
부산	3.78	.969	
대구	3.54	1.006	
광주	3.73	.967	
인천	3.59	.988	
대전	3.62	.961	
울산	3.93	.970	
세종	3.63	.900	
경기	3.60	.986	
강원	3.40	.997	
충북	3.61	1.001	
충남	3.53	.940	
전북	3.51	.918	
전남	3.50	1.026	
경북	3.56	.942	
경남	3.55	1.003	
제주	3.37	1.048	
총계	3.60	.985	

* $p<.05$, ** $p<.01$, *** $p<.001$



【그림 IV-49】 시도별 (2016)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인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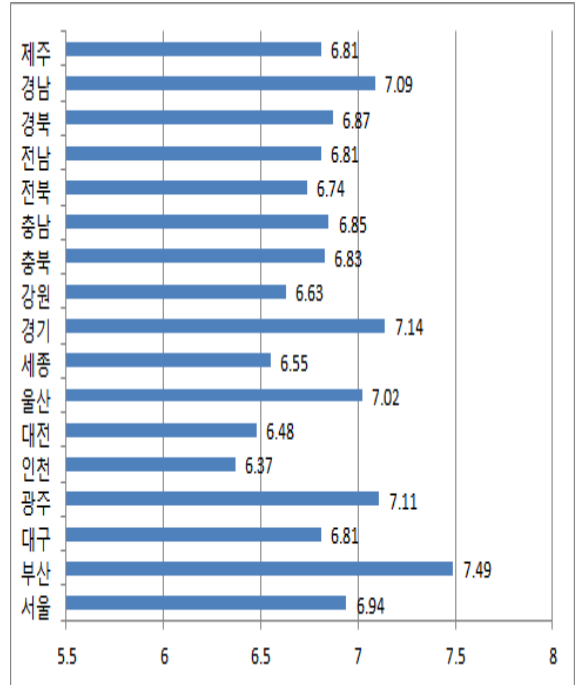
(6) 활동 영역(2016)

① 청소년활동만족도

청소년활동만족도는 부산이 7.4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6.37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60 시도별 (2016) 청소년활동만족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6.94	2.528	5.763 ***
부산	7.49	2.523	
대구	6.81	2.539	
광주	7.11	2.466	
인천	6.37	2.831	
대전	6.48	2.746	
울산	7.02	2.662	
세종	6.55	2.276	
경기	7.14	2.478	
강원	6.63	2.656	
충북	6.83	2.621	
충남	6.85	2.535	
전북	6.74	2.537	
전남	6.81	2.442	
경북	6.87	2.302	
경남	7.09	2.408	
제주	6.81	2.505	
총계	6.95	2.532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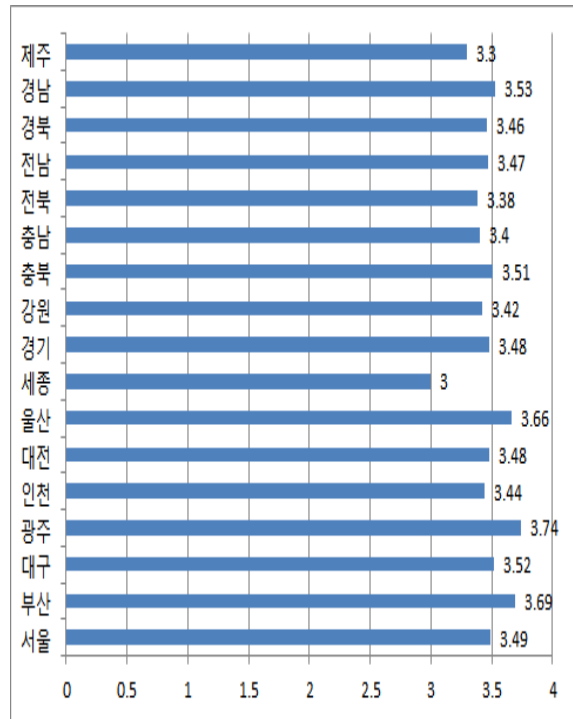
【그림 IV-50】 시도별 (2016) 청소년활동만족도

② 놀이친구 접근성

놀이친구 접근성은 광주가 3.7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3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표 IV-61 시도별 (2016) 놀이친구 접근성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49	1.186	4.869 ***
부산	3.69	1.087	
대구	3.52	1.083	
광주	3.74	1.101	
인천	3.44	1.168	
대전	3.48	1.101	
울산	3.66	1.091	
세종	3.00	1.091	
경기	3.48	1.129	
강원	3.42	1.133	
충북	3.51	1.122	
충남	3.40	1.163	
전북	3.38	1.172	
전남	3.47	1.137	
경북	3.46	1.052	
경남	3.53	1.064	
제주	3.30	1.165	
총계	3.50	1.132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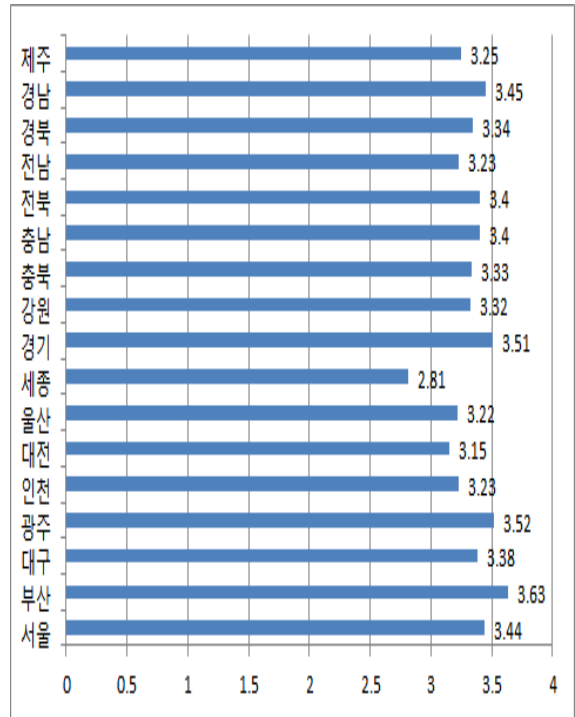
【그림 IV-51】 시도별 (2016) 놀이친구 접근성

③ 여가활동시간만족도

여가활동시간만족도는 부산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2.81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62 시도별 (2016) 여가활동시간만족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44	1.186	7.116 ***
부산	3.63	1.172	
대구	3.38	1.162	
광주	3.52	1.164	
인천	3.23	1.214	
대전	3.15	1.262	
울산	3.22	1.263	
세종	2.81	1.075	
경기	3.51	1.131	
강원	3.32	1.146	
충북	3.33	1.169	
충남	3.40	1.163	
전북	3.40	1.108	
전남	3.23	1.228	
경북	3.34	1.104	
경남	3.45	1.152	
제주	3.25	1.184	
총계	3.41	1.17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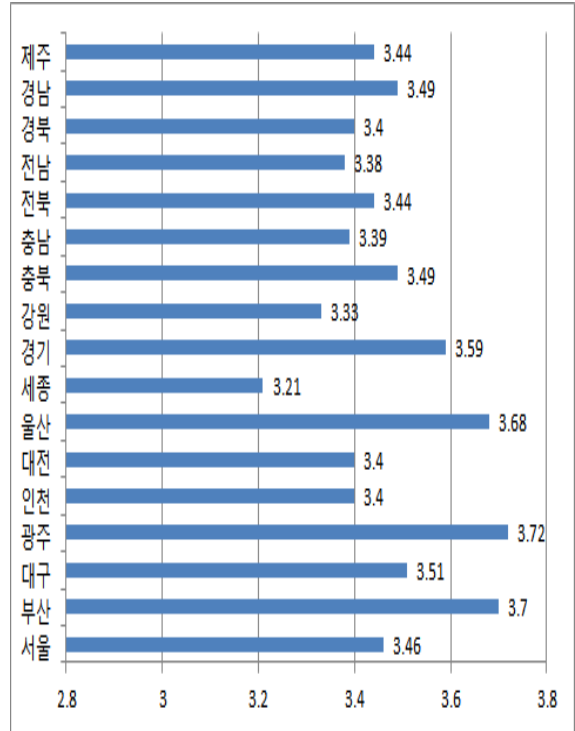
【그림 IV-52】 시도별 (2016) 여가활동시간만족도

④ 여가활동공간만족도

여가활동공간만족도는 광주가 3.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3.21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63 시도별 (2016) 여가활동공간만족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46	1.136	6.256 ***
부산	3.70	1.091	
대구	3.51	1.114	
광주	3.72	1.080	
인천	3.40	1.101	
대전	3.40	1.079	
울산	3.68	1.102	
세종	3.21	1.166	
경기	3.59	1.072	
강원	3.33	1.080	
충북	3.49	1.090	
충남	3.39	1.105	
전북	3.44	1.076	
전남	3.38	1.112	
경북	3.40	1.044	
경남	3.49	1.106	
제주	3.44	1.125	
총계	3.51	1.099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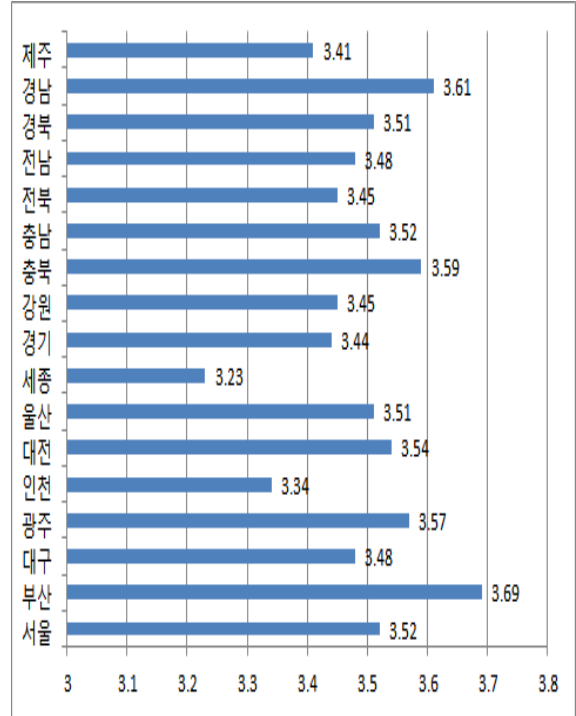
【그림 IV-53】 시도별 (2016) 여가활동공간만족도

⑤ 여가활동용돈만족도

여가활동용돈만족도는 부산이 3.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3.23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64 시도별 (2016) 여가활동용돈만족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52	1.178	3.083 ***
부산	3.69	1.117	
대구	3.48	1.132	
광주	3.57	1.113	
인천	3.34	1.155	
대전	3.54	1.125	
울산	3.51	1.096	
세종	3.23	1.065	
경기	3.44	1.147	
강원	3.45	1.029	
충북	3.59	1.058	
충남	3.52	1.079	
전북	3.45	1.082	
전남	3.48	1.122	
경북	3.51	1.057	
경남	3.61	1.090	
제주	3.41	1.109	
총계	3.50	1.125	



* $p<.05$, ** $p<.01$, *** $p<.001$

【그림 IV-54】 시도별 (2016) 여가활동용돈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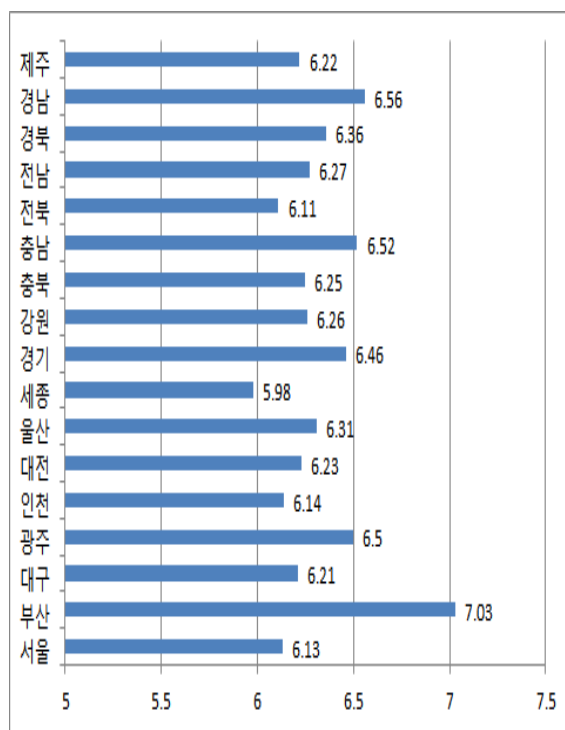
(7) 참여 영역(2016)

① 학생참여권만족도

학생참여권만족도는 부산이 7.0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5.98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표 IV-65 시도별 (2016) 학생참여권만족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6.13	2.680	4.706 ***
부산	7.03	2.514	
대구	6.21	2.563	
광주	6.50	2.530	
인천	6.14	2.735	
대전	6.23	2.642	
울산	6.31	2.965	
세종	5.98	2.764	
경기	6.46	2.496	
강원	6.26	2.436	
충북	6.25	2.504	
충남	6.52	2.287	
전북	6.11	2.527	
전남	6.27	2.430	
경북	6.36	2.238	
경남	6.56	2.456	
제주	6.22	2.535	
총계	6.36	2.54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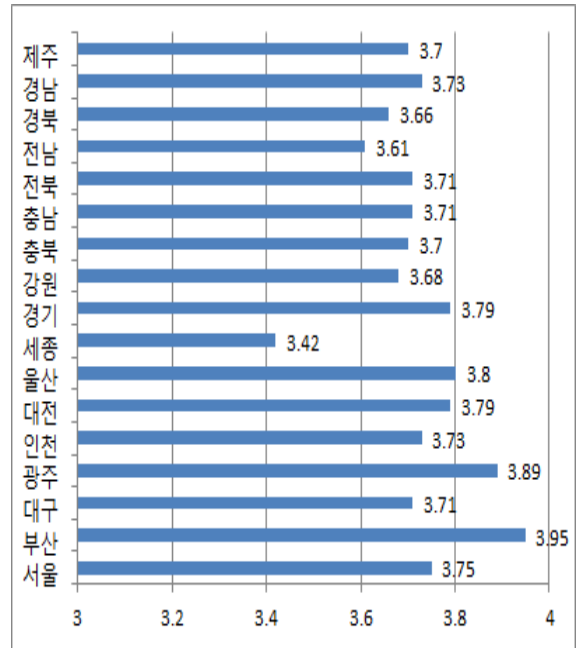
【그림 IV-55】 시도별 (2016) 학생참여권만족도

② 아동권리인지

아동권리인지는 부산이 3.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3.42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66 시도별 (2016) 아동권리인지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75	.916	4.978 ***
부산	3.95	.904	
대구	3.71	.893	
광주	3.89	.866	
인천	3.73	.891	
대전	3.79	.882	
울산	3.80	.937	
세종	3.42	.932	
경기	3.79	.873	
강원	3.68	.844	
충북	3.70	.854	
충남	3.71	.878	
전북	3.71	.902	
전남	3.61	.876	
경북	3.66	.810	
경남	3.73	.876	
제주	3.70	.907	
총계	3.76	.886	



【그림 IV-56】 시도별 (2016) 아동권리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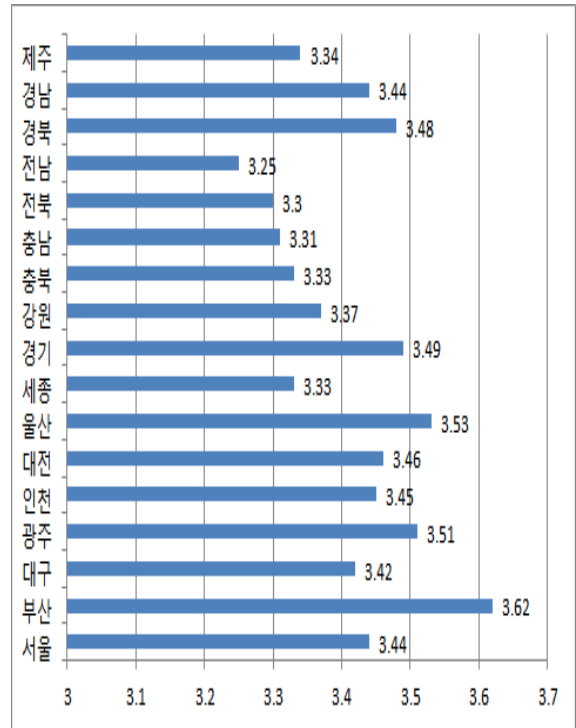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③ 징계소명권

징계소명권은 부산이 3.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3.25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표 IV-67 시도별 (2016) 징계소명권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44	1.127	4.330 ***
부산	3.62	1.082	
대구	3.42	1.047	
광주	3.51	1.059	
인천	3.45	1.085	
대전	3.46	1.053	
울산	3.53	1.054	
세종	3.33	1.085	
경기	3.49	.996	
강원	3.37	.988	
충북	3.33	1.042	
충남	3.31	.962	
전북	3.30	1.087	
전남	3.25	1.062	
경북	3.48	.936	
경남	3.44	1.016	
제주	3.34	1.031	
총계	3.44	1.044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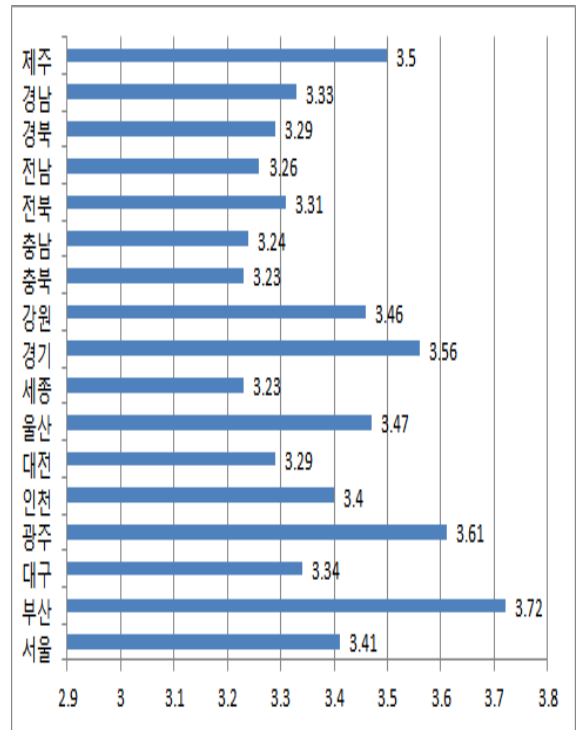
【그림 IV-57】 시도별 (2016) 징계소명권

④ 학칙개정권

학칙개정권은 부산이 3.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과 충북이 3.23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표 IV-68 시도별 (2016) 학칙개정권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41	1.125	10.219 ***
부산	3.72	1.080	
대구	3.34	1.136	
광주	3.61	1.059	
인천	3.40	1.115	
대전	3.29	1.104	
울산	3.47	1.130	
세종	3.23	1.043	
경기	3.56	1.061	
강원	3.46	.985	
충북	3.23	1.117	
충남	3.24	.972	
전북	3.31	1.104	
전남	3.26	1.030	
경북	3.29	.986	
경남	3.33	1.081	
제주	3.50	1.041	
총계	3.44	1.083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58】 시도별 (2016) 학칙개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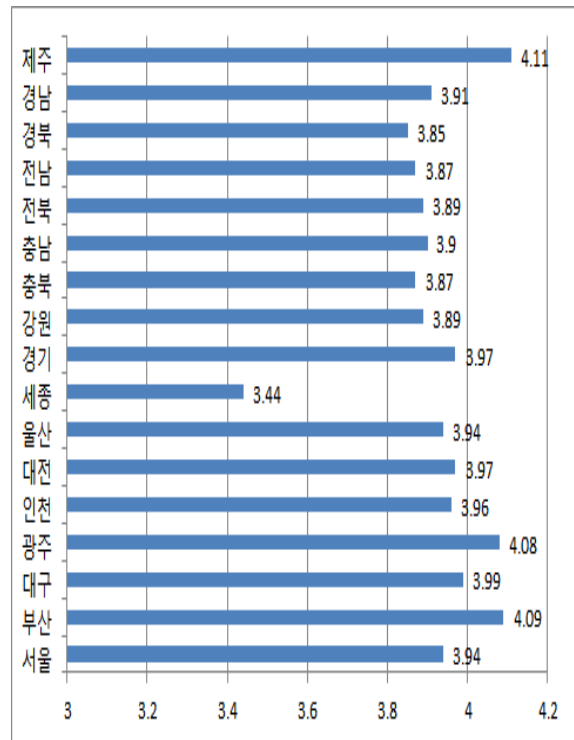
⑤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관용성)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부산이 4.0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3.44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69 시도별 (2016)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관용성)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94	1.123	3.123 ***
부산	4.09	.993	
대구	3.99	1.030	
광주	4.08	1.023	
인천	3.96	1.080	
대전	3.97	1.071	
울산	3.94	1.072	
세종	3.44	1.181	
경기	3.97	1.055	
강원	3.89	1.001	
충북	3.87	1.029	
충남	3.90	1.067	
전북	3.89	1.073	
전남	3.87	1.028	
경북	3.85	1.005	
경남	3.91	.986	
제주	4.11	.997	
총계	3.95	1.054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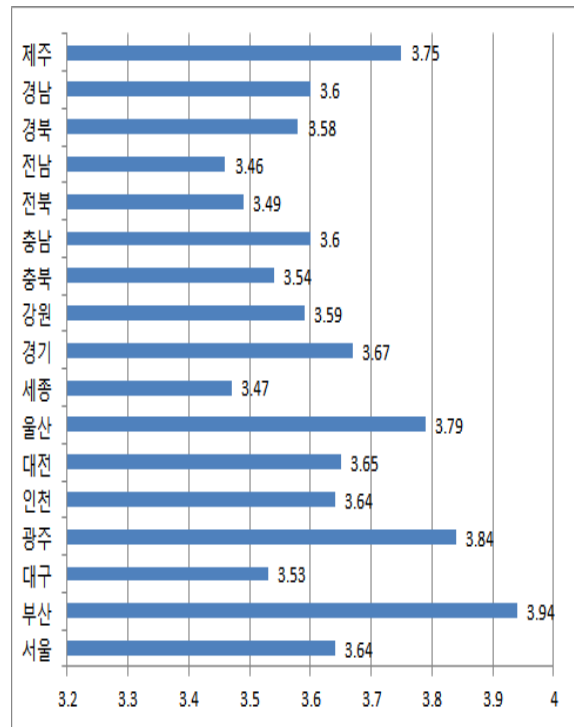
【그림 IV-59】 시도별 (2016)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관용성)

⑥ 학생대표의 운영위참여기회(사회참여)

학생대표의 운영위참여기회를 살펴보면 부산이 3.9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3.46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70 시도별 (2016)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사회참여)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64	1.041	8.085 ***
부산	3.94	.927	
대구	3.53	.995	
광주	3.84	.976	
인천	3.64	.981	
대전	3.65	.948	
울산	3.79	.978	
세종	3.47	1.077	
경기	3.67	.987	
강원	3.59	.926	
충북	3.54	.965	
충남	3.60	.918	
전북	3.49	1***	
전남	3.46	1.012	
경북	3.58	.874	
경남	3.60	.882	
제주	3.75	.969	
총계	3.65	.981	



【그림 IV-60】 시도별 (2016) 학생대표의 운영위참여기회(사회참여)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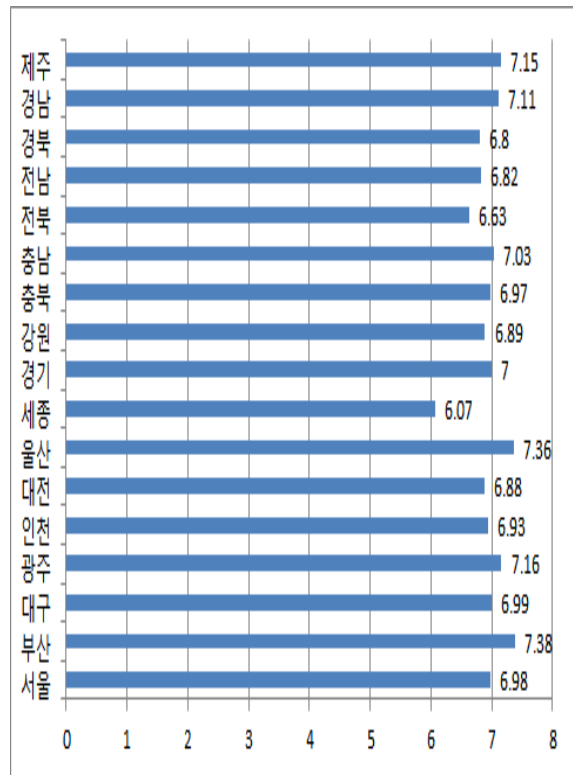
(8) 환경 영역(2016)

① 지역사회환경만족도

지역사회환경만족도는 부산이 7.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6.07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71 시도별 (2016) 지역사회환경만족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6.98	2.249	3.710 ***
부산	7.38	2.277	
대구	6.99	2.132	
광주	7.16	2.205	
인천	6.93	2.247	
대전	6.88	2.319	
울산	7.36	2.154	
세종	6.07	2.482	
경기	7.00	2.235	
강원	6.89	2.154	
충북	6.97	2.199	
충남	7.03	2.185	
전북	6.63	2.211	
전남	6.82	2.240	
경북	6.80	2.061	
경남	7.11	2.190	
제주	7.15	2.187	
총계	7.00	2.222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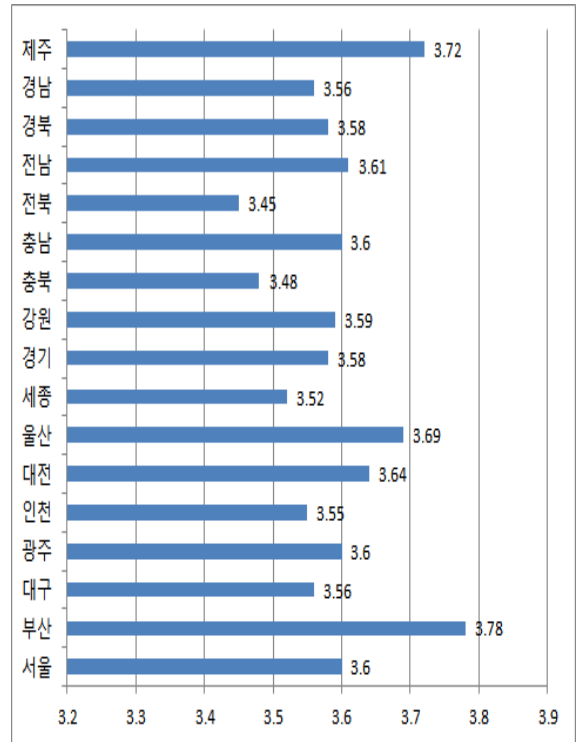
【그림 IV-61】 시도별 (2016) 지역사회환경만족도

②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는 부산이 3.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3.45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72 시도별 (2016)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3.60	1.031	3.082 ***
부산	3.78	.974	
대구	3.56	.965	
광주	3.60	1.009	
인천	3.55	1.029	
대전	3.64	.907	
울산	3.69	1.019	
세종	3.52	.773	
경기	3.58	.949	
강원	3.59	.950	
충북	3.48	.985	
충남	3.60	.979	
전북	3.45	1.013	
전남	3.61	.978	
경북	3.58	.880	
경남	3.56	.931	
제주	3.72	.995	
총계	3.59	.975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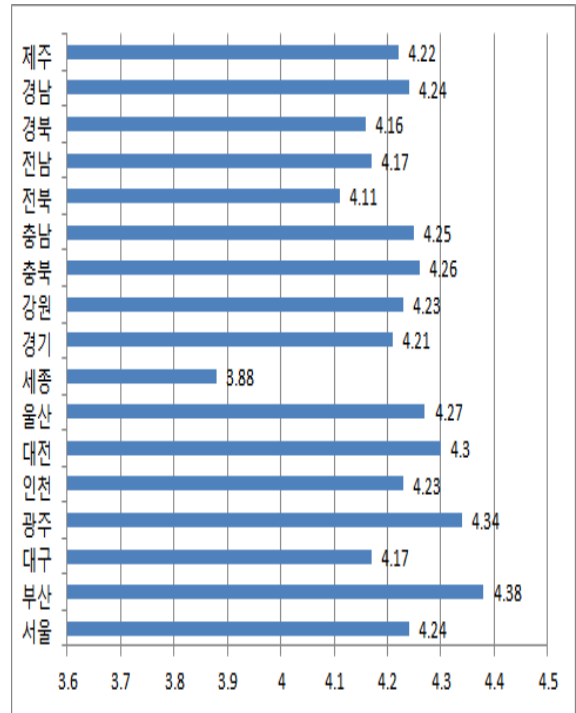
【그림 IV-62】 시도별 (2016)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③ 주택만족도

주택만족도는 부산이 4.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3.88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73 시도별 (2016) 주택만족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4.24	.853	3.374 ***
부산	4.38	.818	
대구	4.17	.873	
광주	4.34	.801	
인천	4.23	.903	
대전	4.30	.771	
울산	4.27	.958	
세종	3.88	.954	
경기	4.21	.881	
강원	4.23	.842	
충북	4.26	.816	
충남	4.25	.870	
전북	4.11	.935	
전남	4.17	.883	
경북	4.16	.835	
경남	4.24	.848	
제주	4.22	.893	
총계	4.23	.865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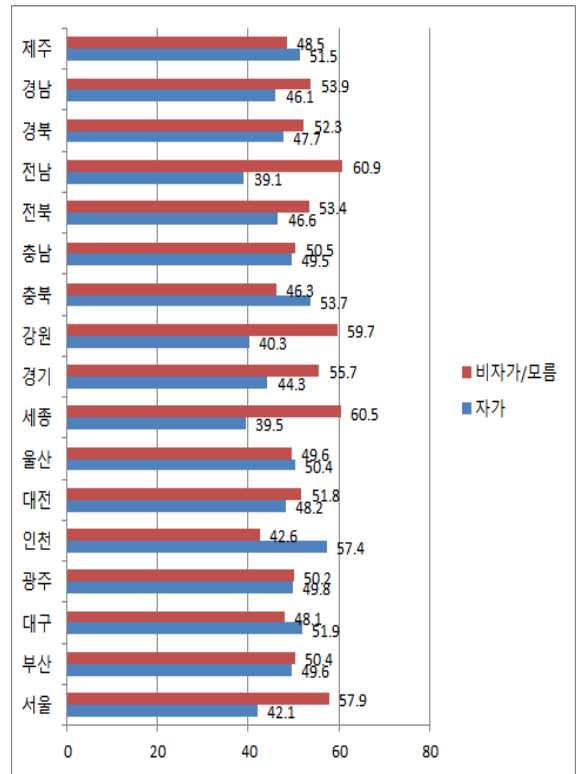
【그림 IV-63】 시도별 (2016) 주택만족도

④ 주거지형태

주거지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인천이 57.4%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39.1%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표 IV-74 시도별 (2016) 주거지형태

시도	자가	비자가/모름	x 2
	%	%	
서울	42.1	57.9	75.156 ***
부산	49.6	50.4	
대구	51.9	48.1	
광주	49.8	50.2	
인천	57.4	42.6	
대전	48.2	51.8	
울산	50.4	49.6	
세종	39.5	60.5	
경기	44.3	55.7	
강원	40.3	59.7	
충북	53.7	46.3	
충남	49.5	50.5	
전북	46.6	53.4	
전남	39.1	60.9	
경북	47.7	52.3	
경남	46.1	53.9	
제주	51.5	48.5	
총계	46.3	53.7	



* $p<.05$, ** $p<.01$, *** $p<.001$

【그림 IV-64】 시도별 (2016) 주거지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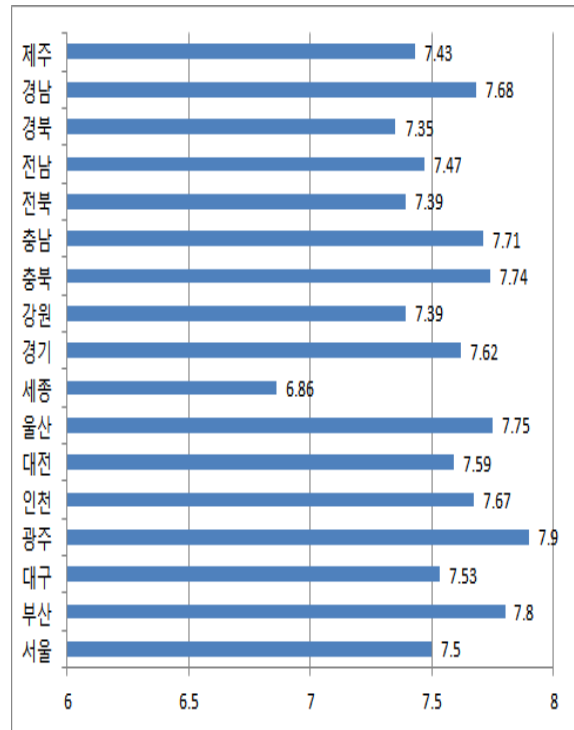
(9) 경제 영역(2016)

① 가정경제만족도

가정경제만족도는 광주가 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6.86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표 IV-75 시도별 (2016) 가정경제만족도

시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서울	7.50	2.213	2.845 ***
부산	7.80	2.253	
대구	7.53	2.180	
광주	7.90	1.968	
인천	7.67	2.164	
대전	7.59	2.254	
울산	7.75	2.271	
세종	6.86	2.295	
경기	7.62	2.188	
강원	7.39	2.163	
충북	7.74	2.078	
충남	7.71	2.032	
전북	7.39	2.209	
전남	7.47	2.096	
경북	7.35	2.088	
경남	7.68	2.190	
제주	7.43	2.206	
총계	7.59	2.175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65】 시도별 (2016) 가정경제만족도

2) 객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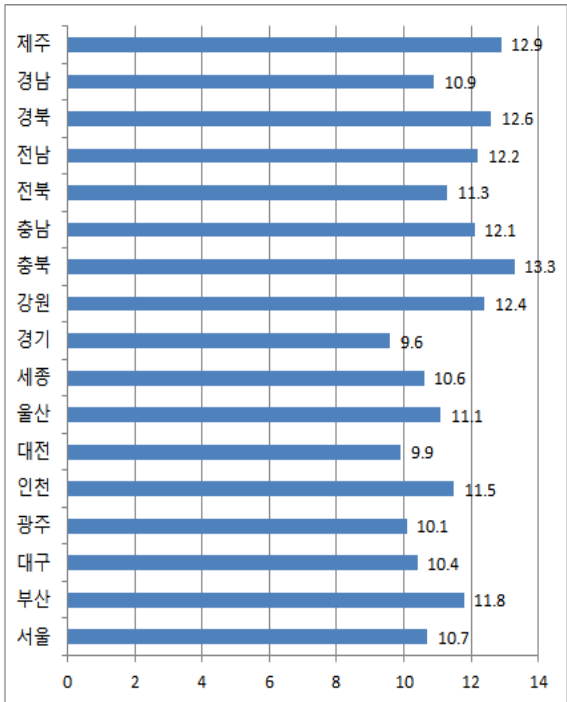
(1) 건강 영역

① 청소년BMI(비만율)

객관지표와 관련하여 청소년비만율(BMI)은 충북이 1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가 9.6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IV-76 시도별 (2015) 청소년(BMI)

시도	2015
서울	10.7
부산	11.8
대구	10.4
광주	10.1
인천	11.5
대전	9.9
울산	11.1
세종	10.6
경기	9.6
강원	12.4
충북	13.3
충남	12.1
전북	11.3
전남	12.2
경북	12.6
경남	10.9
제주	12.9
총계	10.9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192-195.

주1)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인 사람의 분율

2) 체질량지수(BMI)=체중(kg)/[신장(m)] (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3) 청소년(중1~고3)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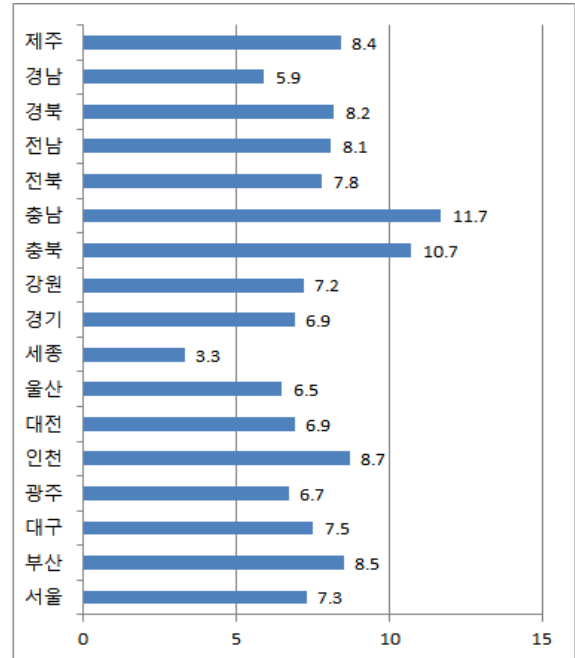
【그림 IV-66】 시도별 (2015) 청소년(BMI)

② 청소년 자살률

청소년자살률은 충남이 1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3.3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77 시도별 (2015) 청소년 자살률

시도	2015
서울	7.3
부산	8.5
대구	7.5
광주	6.7
인천	8.7
대전	6.9
울산	6.5
세종	3.3
경기	6.9
강원	7.2
충북	10.7
충남	11.7
전북	7.8
전남	8.1
경북	8.2
경남	5.9
제주	8.4
총계	7.6



【그림 IV-67】 시도별 (2015) 청소년 자살률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2에서 2016년 10월 5일 인출.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2015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에서 2016년 10월 5일 인출.

주1)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한 청소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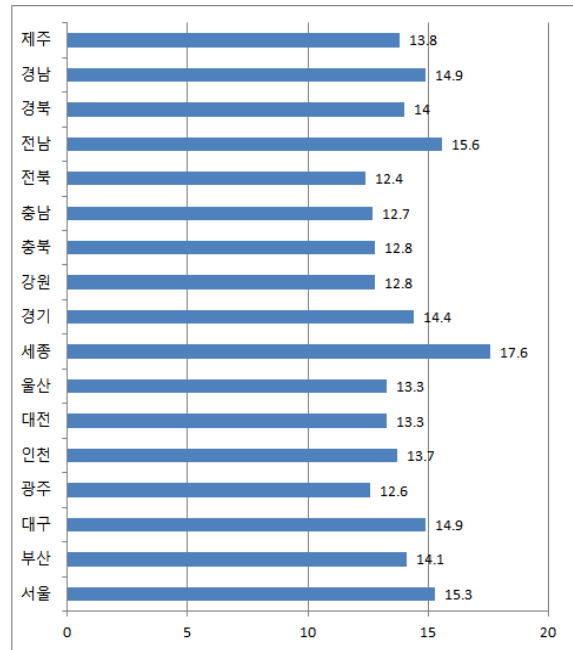
2) 청소년 자살률 = (10-24세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 / 10-24세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③ 평균운동시간

평균운동시간은 세종이 1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12.4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78 시도별 (2015) 평균운동시간

시도	2015
서울	15.3
부산	14.1
대구	14.9
광주	12.6
인천	13.7
대전	13.3
울산	13.3
세종	17.6
경기	14.4
강원	12.8
충북	12.8
충남	12.7
전북	12.4
전남	15.6
경북	14.0
경남	14.9
제주	13.8
총계	14.2



【그림 IV-68】 시도별 (2015) 평균운동시간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140-143면.

주1) 최근 7일 동안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
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비율
(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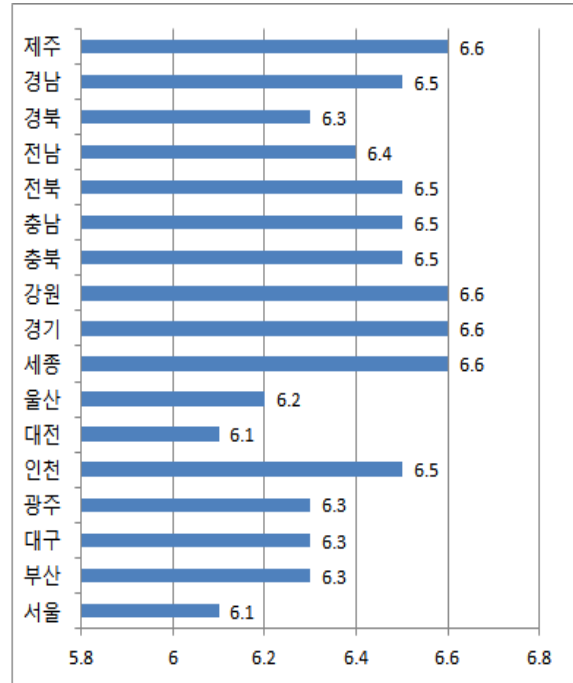
2) 청소년(중1~고3)전체

④ 평균수면시간

평균수면시간은 제주, 강원, 경기, 세종이 6.6시간으로 동일하게 가장 길었으며 대전, 서울이 6.1점으로 가장 짧았다.

표 IV-79 시도별 (2015) 평균수면시간

시도	2015
서울	6.1
부산	6.3
대구	6.3
광주	6.3
인천	6.5
대전	6.1
울산	6.2
세종	6.6
경기	6.6
강원	6.6
충북	6.5
충남	6.5
전북	6.5
전남	6.4
경북	6.3
경남	6.5
제주	6.6
총계	6.4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244~247면.
 주1) 지난주 주중(월~금요일) 수면시간의 평균
 2) 청소년(중1~고3)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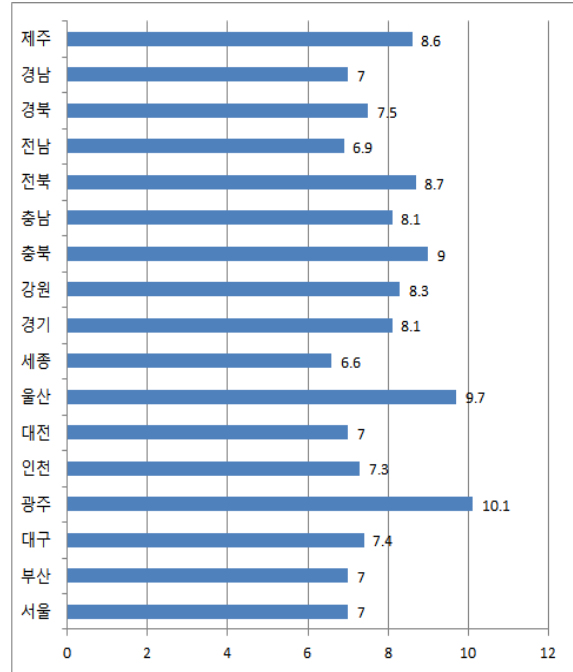
【그림 IV-69】 시도별 (2015) 평균수면시간

⑤ 청소년흡연율

청소년흡연율은 광주가 10.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6.6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80 시도별 (2015) 청소년흡연율

시도	2015
서울	7.0
부산	7.0
대구	7.4
광주	10.1
인천	7.3
대전	7.0
울산	9.7
세종	6.6
경기	8.1
강원	8.3
충북	9.0
충남	8.1
전북	8.7
전남	6.9
경북	7.5
경남	7.0
제주	8.6
총계	7.8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36-39면.

주1)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2) 청소년(중1~고3)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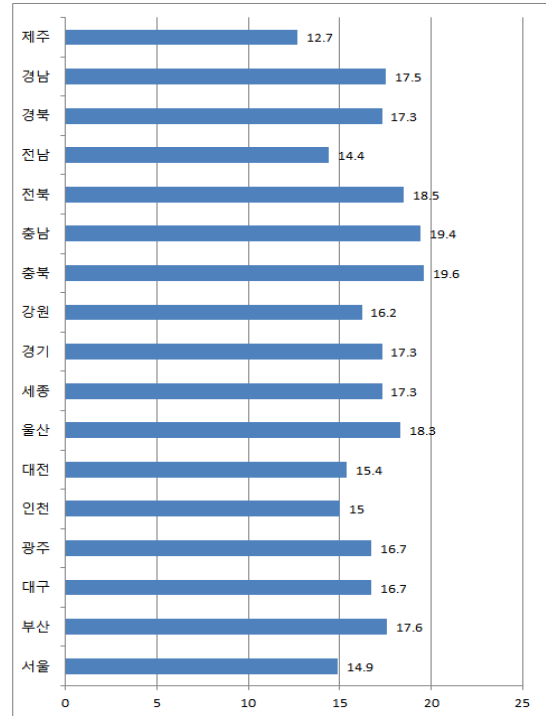
【그림 IV-70】 시도별 (2015) 청소년흡연율

⑥ 청소년음주율

청소년음주율은 충북이 19.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12.7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81 시도별 (2015) 청소년음주율

시도	평균
서울	14.9
부산	17.6
대구	16.7
광주	16.7
인천	15.0
대전	15.4
울산	18.3
세종	17.3
경기	17.3
강원	16.2
충북	19.6
충남	19.4
전북	18.5
전남	14.4
경북	17.3
경남	17.5
제주	12.7
총계	16.7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98-101면

주1) 현재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2) 청소년(중1~고3)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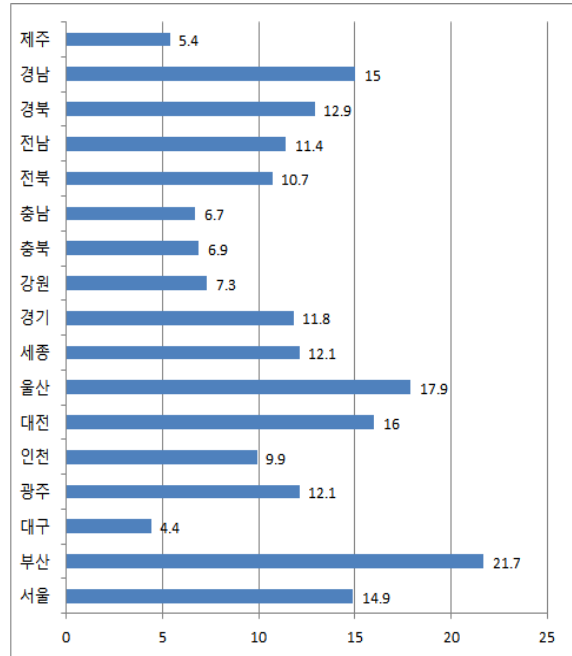
【그림 IV-71】 시도별 (2015) 청소년음주율

⑦ 인터넷중독률

인터넷중독률은 부산이 2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가 4.4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82 시도별 (2014) 인터넷중독률

시도	평균
서울	14.9
부산	21.7
대구	4.4
광주	12.1
인천	9.9
대전	16.0
울산	17.9
세종	12.1
경기	11.8
강원	7.3
충북	6.9
충남	6.7
전북	10.7
전남	11.4
경북	12.9
경남	15.0
제주	5.4
총계	12.5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원 자료.

주1) 인터넷 사용자 중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비율 (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2) 9~24세¹⁴⁾

【그림 IV-72】 시도별 (2014) 인터넷중독률

14) 2015년에 관련 조사가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서 인터넷과 의존실태조사로 바뀌면서 조사대상 연령 확대 등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치로 활용하기에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조사대상수가 5,000명으로 비교적 적어 시도별 수치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2014년 자료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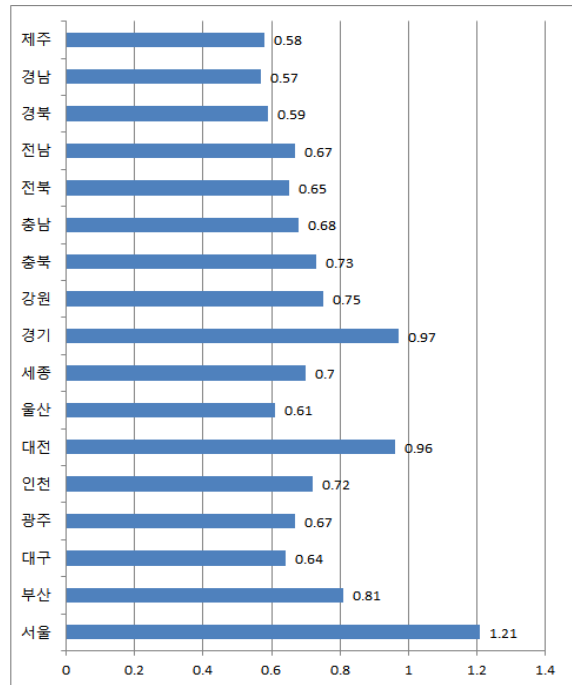
(2) 교육 영역

① 학업중단률

학업중단률은 서울이 1.2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이 0.57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83 시도별 (2015) 학업중단률

시도	2015
서울	1.21
부산	0.81
대구	0.64
광주	0.67
인천	0.72
대전	0.96
울산	0.61
세종	0.70
경기	0.97
강원	0.75
충북	0.73
충남	0.68
전북	0.65
전남	0.67
경북	0.59
경남	0.57
제주	0.58
총계	0.85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교육통계연보
<http://kess.vedi.re.kr/index> 에서 2016년 9월 27일
 인출.

주1)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유예, 면제, 자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요청 또는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
 한 학생수(사망, 자살 제외)(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2) 학업중단률=(학업중단 학생수/학생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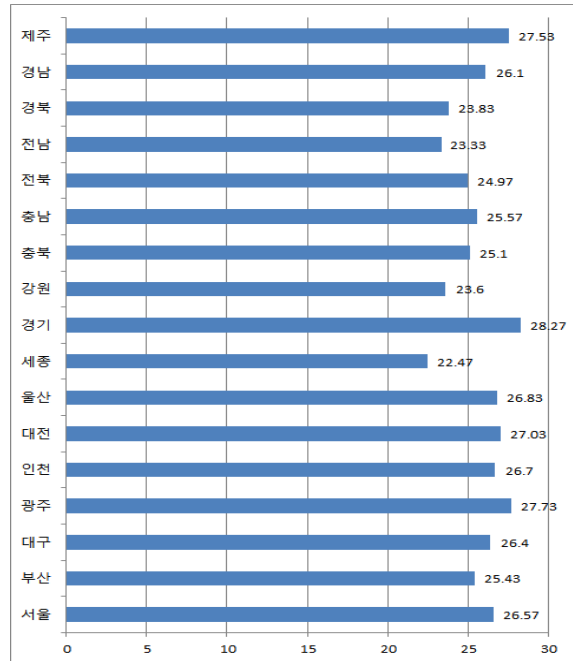
【그림 IV-73】 시도별 (2015) 학업중단률

②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는 경기가 28.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이 22.47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IV-84 시도별 (2016)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시도	2016
서울	26.57
부산	25.43
대구	26.40
광주	27.73
인천	26.70
대전	27.03
울산	26.83
세종	22.47
경기	28.27
강원	23.60
충북	25.10
충남	25.57
전북	24.97
전남	23.33
경북	23.83
경남	26.10
제주	27.53
총계	26.37



【그림 IV-74】 시도별 (2016)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2016).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4&tblId=DT_1963003_002&conn_path=3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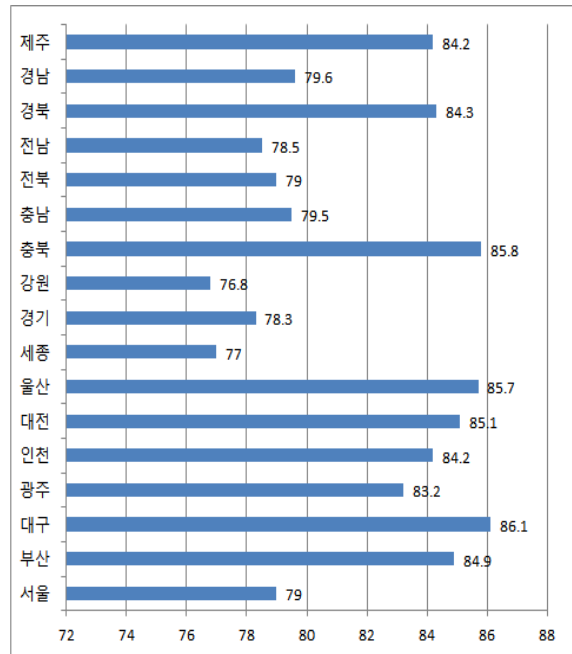
- 주1) 학급 수 대비 학생 수
 2)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학생수/학급수
 3) 전체(초~고)는 시도별 초,중,고 값의 평균

③ 학업성취도¹⁵⁾

학업성취도는 대구가 86.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76.8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85 시도별 (2014) 학업성취도

시도	2014
서울	79.0
부산	84.9
대구	86.1
광주	83.2
인천	84.2
대전	85.1
울산	85.7
세종	77.0
경기	78.3
강원	76.8
충북	85.8
충남	79.5
전북	79.0
전남	78.5
경북	84.3
경남	79.6
제주	84.2
총계	81.84



*출처: 교육부(2014), 2014년 학업성취도 보도자료.

주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 중3, 고2 대상

【그림 IV-75】 시도별 (2014) 학업성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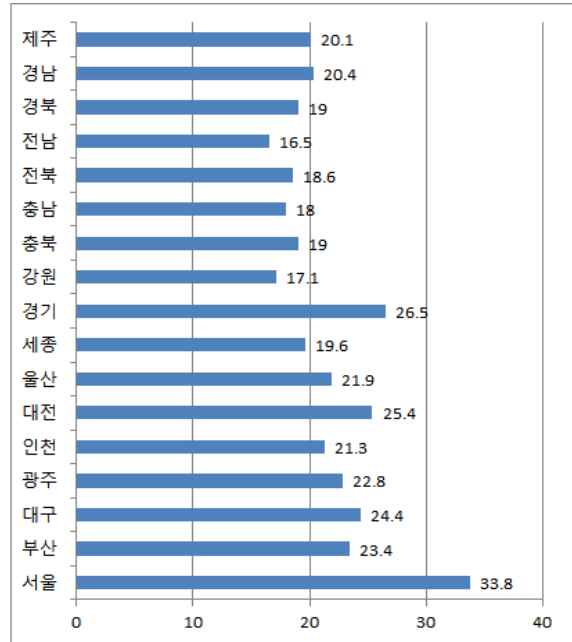
15) 15년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취수준 분석 결과는 성취수준 재설정으로 전년도 결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보고서에서는 보통 이상의 비율을 분석하고 있으나 2014년 보고서 및 2015년 초·중·고 주요 공시정보 분석보고서, 교육부 보도 자료에서는 기초학력 미달의 비율을 분석하고 있어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하기 어려워 2014년 자료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④ 사교육비 지출액

사교육비 지출액은 서울이 3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16.5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86 시도별 (2015) 사교육비 지출액

시도	2015
서울	33.8
부산	23.4
대구	24.4
광주	22.8
인천	21.3
대전	25.4
울산	21.9
세종	19.6
경기	26.5
강원	17.1
충북	19.0
충남	18.0
전북	18.6
전남	16.5
경북	19.0
경남	20.4
제주	20.1
총계	24.4



*출처: 통계청(2015), 사교육비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1PE105&conn_path=2 에서 2016 년 10월 07일
인출.

주1) 단위: 만원

【그림 IV-76】 시도별 (2015) 사교육비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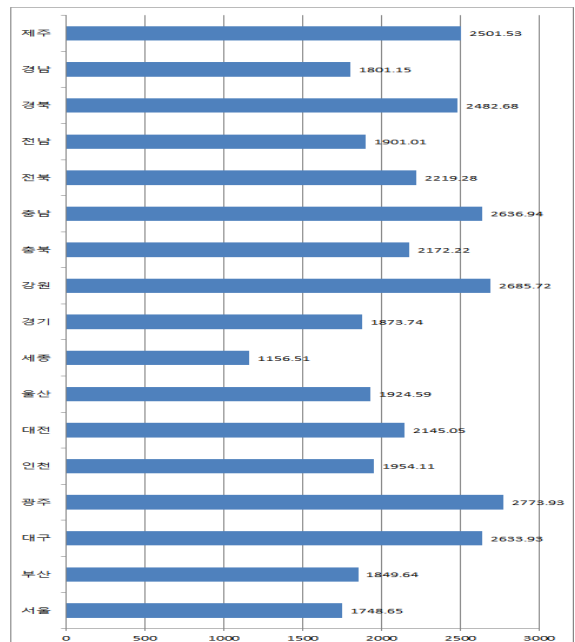
(3) 안전 영역

① 청소년교통사고사상률

청소년교통사고사상률은 광주가 2773.8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1156.51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87 시도별 (2015) 청소년교통사고사상률

시도	2015
서울	1748.65
부산	1849.64
대구	2633.93
광주	2773.93
인천	1954.11
대전	2145.05
울산	1924.59
세종	1156.51
경기	1873.74
강원	2685.72
충북	2172.22
충남	2636.94
전북	2219.28
전남	1901.01
경북	2482.68
경남	1801.15
제주	2501.53
총계	2178.16



【그림 IV-77】 시도별 (2015) 청소년교통사고사상률

*출처: 도로교통공단(2015).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합DB.
http://taas.koroad.or.kr/web/shp/sbm/initStatsAnals.do?menuId=WEB_KMP_STA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2015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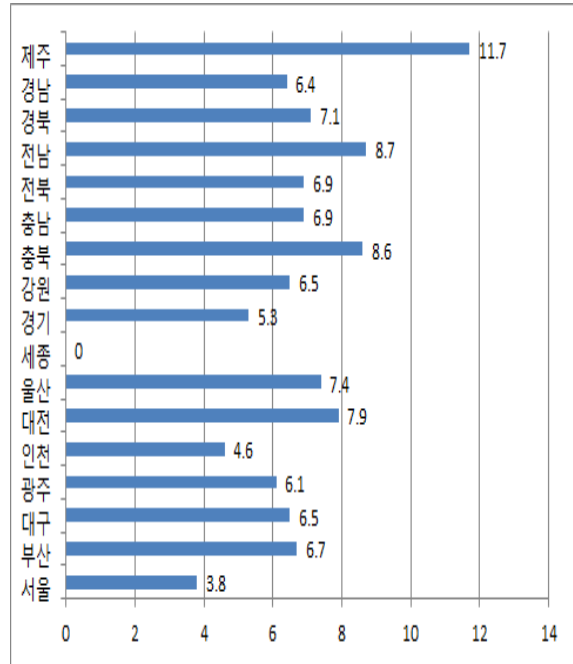
- 주1)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 국가 공식통계는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경찰DB임 그러나 이전 보고서에서 통합DB의 수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 통합DB에서 인출.
- 2) 청소년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수(십만 명 당)
- 3)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 (10~24세 교통사고 사상자수 / 10~24세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 4) 지역 미상인 부상자수 12,925명은 전국 교통사고 사망률 계산시 포함하였음(김지경, 김옥태, 하한주, 2014; 성윤숙, 홍성호, 2015).

② 청소년안전사고사망률

청소년안전사고사망률은 제주가 1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0.0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88 시도별 (2015) 청소년안전사고사망률

시도	2015
서울	3.8
부산	6.7
대구	6.5
광주	6.1
인천	4.6
대전	7.9
울산	7.4
세종	0.0
경기	5.3
강원	6.5
충북	8.6
충남	6.9
전북	6.9
전남	8.7
경북	7.1
경남	6.4
제주	11.7
총계	5.9



【그림 IV-78】 시도별 (2015) 청소년안전사고사망률

*출처: 통계청(2015), 사망원인통계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주1) 운수사고, 추락, 불의의 물에 빠짐,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기타 등으로 사망한 비율(국외 사망자 제외), 기타 사망원인 중 자살 및 타살은 제외

2) 십만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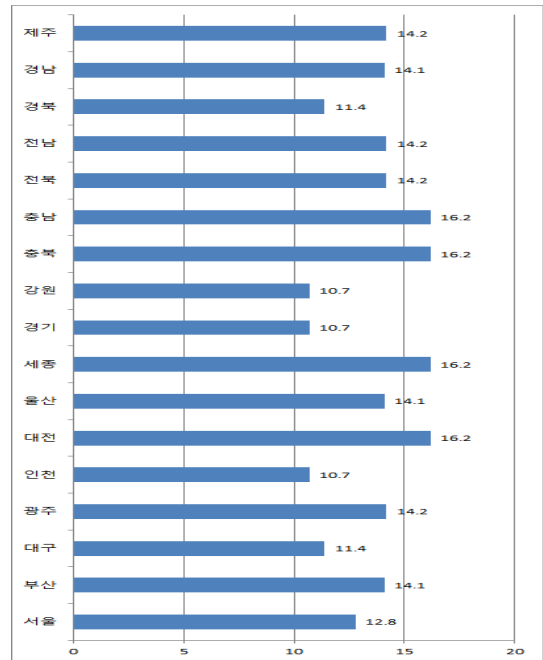
3) 청소년안전사고사망률=(10-24세 안전사고 사망자수/10-24세 주민등록연앙인구)×100

③ 청소년범죄피해율

청소년범죄피해율은 대전, 세종과 충북, 충남이 16.2%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 경기, 인천이 10.7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89 시도별 (2014) 청소년범죄피해율

시도	평균
서울	12.8
부산	14.1
대구	11.4
광주	14.2
인천	10.7
대전	16.2
울산	14.1
세종	16.2
경기	10.7
강원	10.7
충북	16.2
충남	16.2
전북	14.2
전남	14.2
경북	11.4
경남	14.1
제주	14.2
총계	12.7



【그림 IV-79】 시도별 (2014) 청소년범죄피해율

*출처: 홍영호·연성진(2014), 청소년 대상 범죄 피해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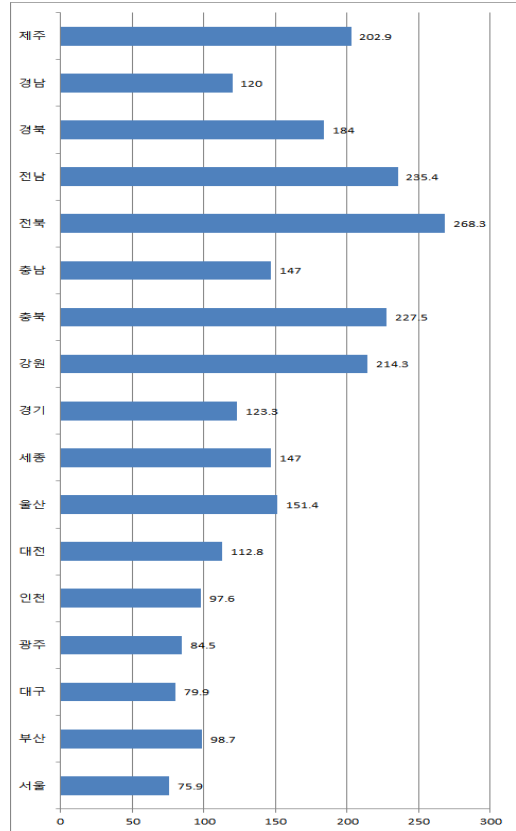
- 주1)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범죄피해(사기, 절도, 강도, 폭행 및 상해, 성추행, 성폭력, 강간, 소매치기, 손괴 등)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
- 2) 금년 조사연구에서는 시와 도에 의한 지역별로 피해율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서울 및 5대권역별로 피해율을 분석함. 서울 외 5대 권역은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제주로 구분되어 있어(홍영호·연성진(2014), 133면) 5대권역별 수치를 해당 지역에 배분함

④ 아동학대피해경험률

아동학대피해경험률은 전북이 268.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가 79.9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90 시도별 (2015) 아동학대피해경험률

시도	평균
서울	75.9
부산	98.7
대구	79.9
광주	84.5
인천	97.6
대전	112.8
울산	151.4
세종	147.0
경기	123.3
강원	214.3
충북	227.5
충남	147.0
전북	268.3
전남	235.4
경북	184.0
경남	120.0
제주	202.9
총계	129.3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년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3 에서 10월 10일 인출.

주1) ‘아동학대발생건수(아동학대사례)’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의미하므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98면).

2)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아동학대 발생건수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3) 세종시는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지역임. 세종시 인구는 충남에 포함되어 산출하였으므로 충남과 동일하게 수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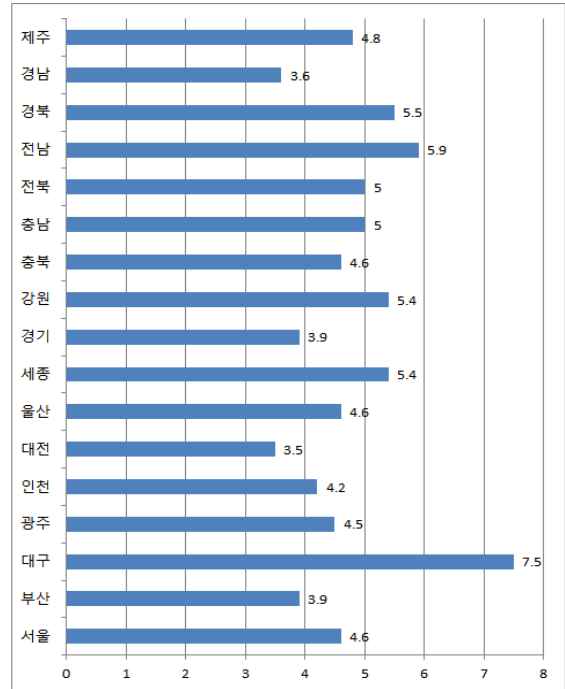
【그림 IV-80】 시도별 (2015) 아동학대피해경험률

⑤ 학교폭력발생률¹⁶⁾

학교폭력발생률은 대구가 7.5점으로 가장 높으며 대전이 3.5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91 시도별 (2014) 학교폭력발생률

시도	2014
서울	4.6
부산	3.9
대구	7.5
광주	4.5
인천	4.2
대전	3.5
울산	4.6
세종	5.4
경기	3.9
강원	5.4
충북	4.6
충남	5.0
전북	5.0
전남	5.9
경북	5.5
경남	3.6
제주	4.8
총계	4.6



*출처: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내부자료

주1) 학생 1,000명당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 중 폭행, 갈취, 협박, 왕따 등의 폭력을 행한 가해 학생 비율

2) 학생 1000명당 가해 건수

【그림 IV-81】 시도별 (2014) 학교폭력발생률

16) 교육부, 2015년 초·중·고등 주요 공시정보 분석보고서는 학교폭력발생률을 가해 학생 비율이 아니라 피해 학생 비율로 산출하고 있어 2014년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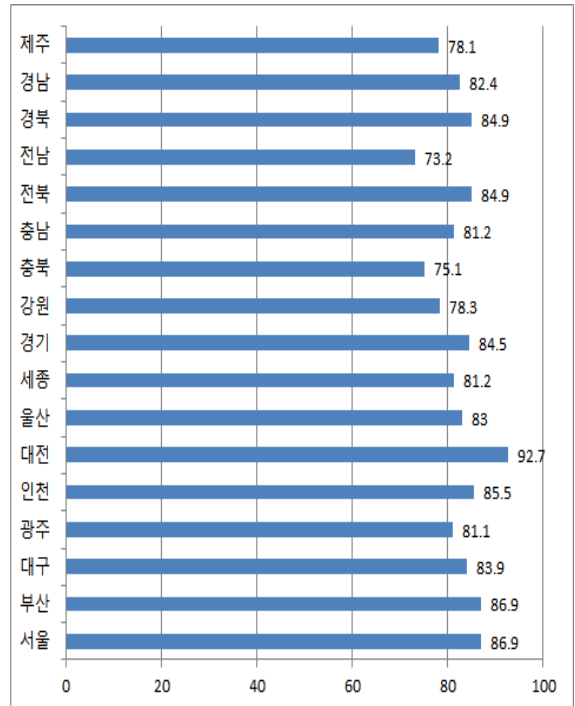
(4) 활동 영역

① 문화예술활동참여율

문화예술활동참여율은 대전이 92.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73.2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92 시도별 (2013) 문화예술활동참여율

시도	2013
서울	86.9
부산	86.9
대구	83.9
광주	81.1
인천	85.5
대전	92.7
울산	83.0
세종	81.2
경기	84.5
강원	78.3
충북	75.1
충남	81.2
전북	84.9
전남	73.2
경북	84.9
경남	82.4
제주	78.1
총계	84.0



* 출처: 통계청(2013). 2013 사회조사 원자료

주1) 지난 1년동안 음악연주회, 연극, 마당극, 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유물전시회 등 포함), 미술관(공예, 서화, 전시회 포함)을 1회 이상 관람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

2) 13-24세

3) 세종은 누락되어 충남의 수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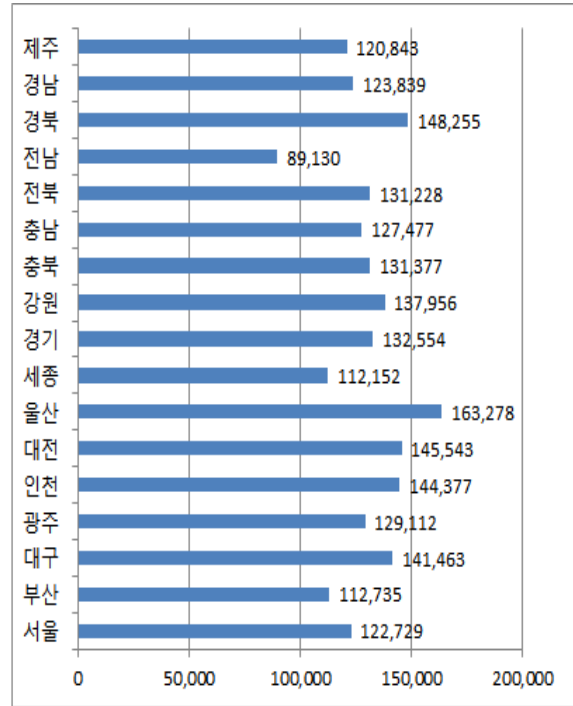
【그림 IV-82】 시도별 (2013) 문화예술활동참여율

② 문화여가지출비용

문화여가지출비용은 울산이 163,278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이 89,130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IV-93 시도별 (2014) 문화여가지출비용

시도	2014
서울	122,729
부산	112,735
대구	141,463
광주	129,112
인천	144,377
대전	145,543
울산	163,278
세종	112,152
경기	132,554
강원	137,956
충북	131,377
충남	127,477
전북	131,228
전남	89,130
경북	148,255
경남	123,839
제주	120,843
총계	130,238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주1) 한달 평균 여가활동 비용(단위: 원)

2) 15세 이상

3) 2년 주기 연구로 2014년까지 자료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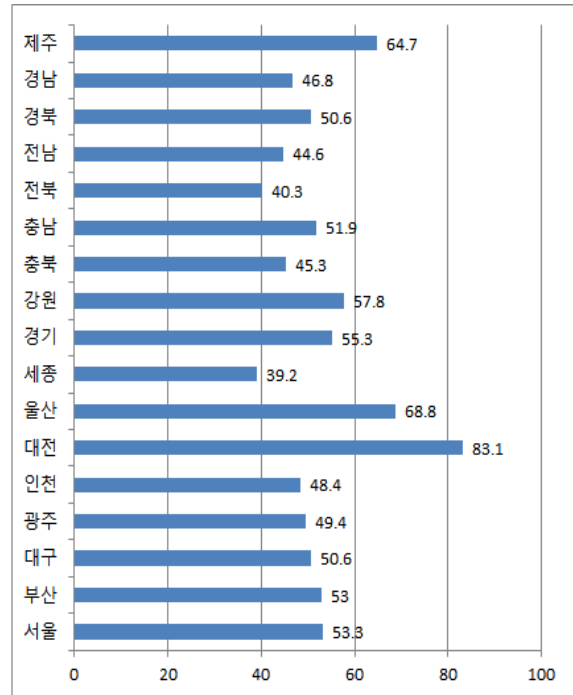
【그림 IV-83】 시도별 (2014) 문화여가지출비용

③ 동아리활동참여율

동아리활동참여율은 대전이 83.1%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39.2%로 가장 낮았다.

표 IV-94 시도별 (2014) 동아리활동참여율

시도	2014
서울	53.3
부산	53.0
대구	50.6
광주	49.4
인천	48.4
대전	83.1
울산	68.8
세종	39.2
경기	55.3
강원	57.8
충북	45.3
충남	51.9
전북	40.3
전남	44.6
경북	50.6
경남	46.8
제주	64.7
총계	52.3



【그림 IV-84】 시도별 (2014) 동아리활동참여율

*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
 주1) 종교단체 제외한 청소년시설·단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 기타 단체나 동아리에 가입하여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

2) 9-2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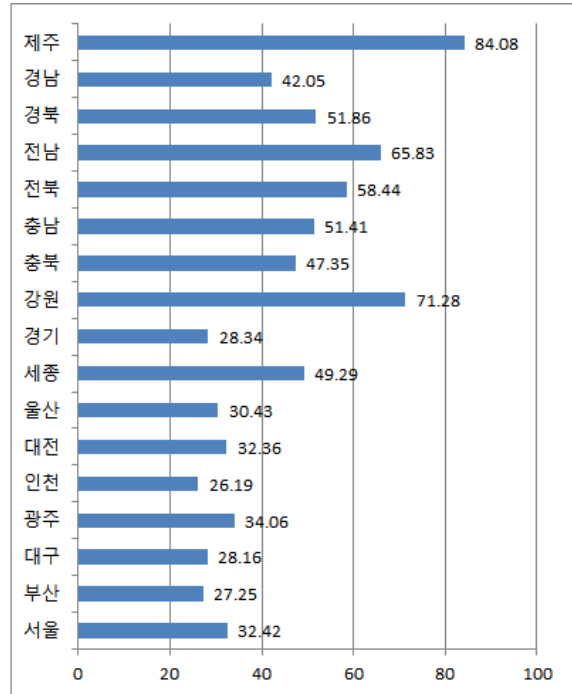
3) 3년 주기 조사로 2013년까지 자료만 있음

④ 문화예술시설비율

문화예술시설비율은 제주가 84.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26.19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95 시도별 (2015) 문화예술시설비율

시도	평균
서울	32.42
부산	27.25
대구	28.16
광주	34.06
인천	26.19
대전	32.36
울산	30.43
세종	49.29
경기	28.34
강원	71.28
충북	47.35
충남	51.41
전북	58.44
전남	65.83
경북	51.86
경남	42.05
제주	84.08
총계	37.44



【그림 IV-85】 시도별 (2015) 문화예술시설비율

*출처: 통계청(2015). 2015 한국의사회지표, 350-351면.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2015년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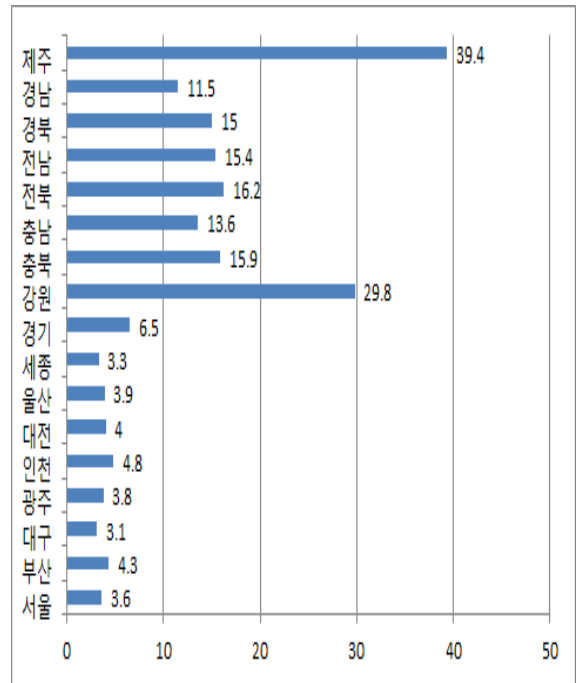
- 주1) 지역 인구 십만 명 당 문화예술 시설
2) 문화예술시설 비율= (문화예술시설수/인구수)×100,000
3) 2013년부터 문화의 집 추가

⑤ 청소년활동시설비율

청소년활동시설비율은 제주가 39.4%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가 3.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 비율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IV-96 시도별 (2015) 청소년활동시설비율

시도	2015
서울	3.6
부산	4.3
대구	3.1
광주	3.8
인천	4.8
대전	4.0
울산	3.9
세종	3.3
경기	6.5
강원	29.8
충북	15.9
충남	13.6
전북	16.2
전남	15.4
경북	15.0
경남	11.5
제주	39.4
총계	8.4



【그림 IV-86】 시도별 (2015) 청소년활동시설비율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청소년백서, 448면.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2015년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주1) 9~24세 청소년 인구 십만 명 당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2)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수/10~24세 청소년 인구)×100,000

⑥ 청소년지도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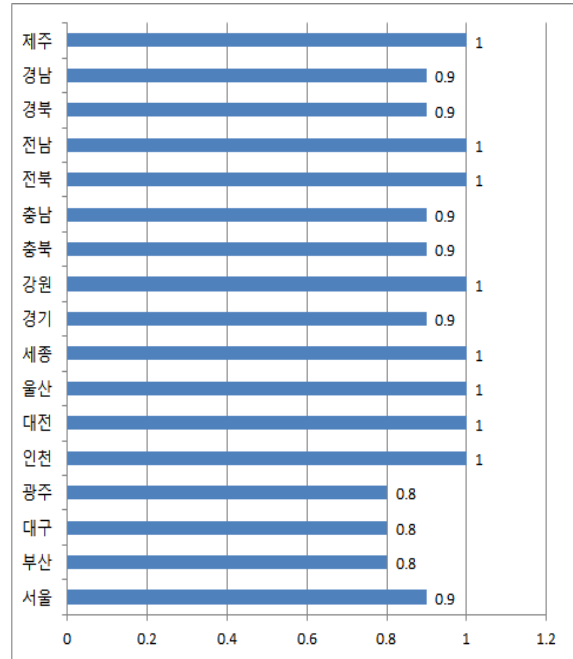
청소년지도사비율은 제주, 전남, 전북, 강원, 세종, 울산, 대전, 인천이 1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 대구, 부산이 0.8점으로 가장 적었다.

표 IV-97 시도별 (2013) 청소년지도사비율

시도	2013
서울	0.9
부산	0.8
대구	0.8
광주	0.8
인천	1.0
대전	1.0
울산	1.0
세종	1.0
경기	0.9
강원	1.0
충북	0.9
충남	0.9
전북	1.0
전남	1.0
경북	0.9
경남	0.9
제주	1.0
총계	0.9

*출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3). 2013년 청소년수련 시설 통계 편람. 2013년 주민등록인구연간인구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주1) 청소년 지도사 비율=청소년 지도사/청소년 수련시설 수



【그림 IV-87】 시도별 (2013) 청소년지도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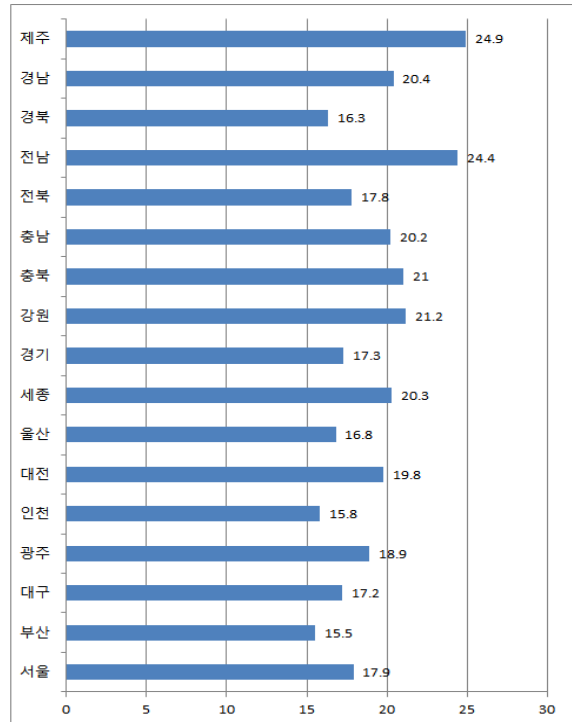
(5) 참여 영역

① 자원봉사참여율

자원봉사참여율은 전남이 24.4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이 15.5점으로 가장 적었다.

표 IV-98 시도별 (2015) 자원봉사참여율

시도	평균
서울	17.9
부산	15.5
대구	17.2
광주	18.9
인천	15.8
대전	19.8
울산	16.8
세종	20.3
경기	17.3
강원	21.2
충북	21.0
충남	20.2
전북	17.8
전남	24.4
경북	16.3
경남	20.4
제주	24.9
총계	18.2



*출처: 통계청(2015). 2015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5SP151R&conn_path=13 에서 2016년 10월 11일 인출.

주1) 자원봉사활동 (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그림 IV-88】 시도별 (2015) 자원봉사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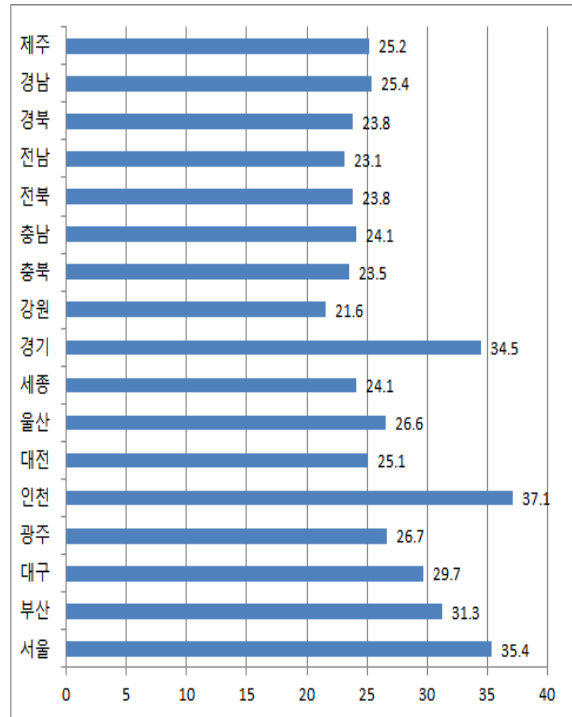
(6) 환경 영역

① 통학소요시간

통학소요시간은 인천이 37.1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강원이 21.6분으로 가장 짧았다.

표 IV-99 시도별 (2010) 통학소요시간

시도	2010
서울	35.4
부산	31.3
대구	29.7
광주	26.7
인천	37.1
대전	25.1
울산	26.6
세종	24.1
경기	34.5
강원	21.6
충북	23.5
충남	24.1
전북	23.8
전남	23.1
경북	23.8
경남	25.4
제주	25.2
총계	30.5



* 출처: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주1) 매일 집에서 학교까지 통행하는 데 걸리는 평균 통학 시간

2) 12세 이상

3) 세종시는 값이 없어 충남 수치를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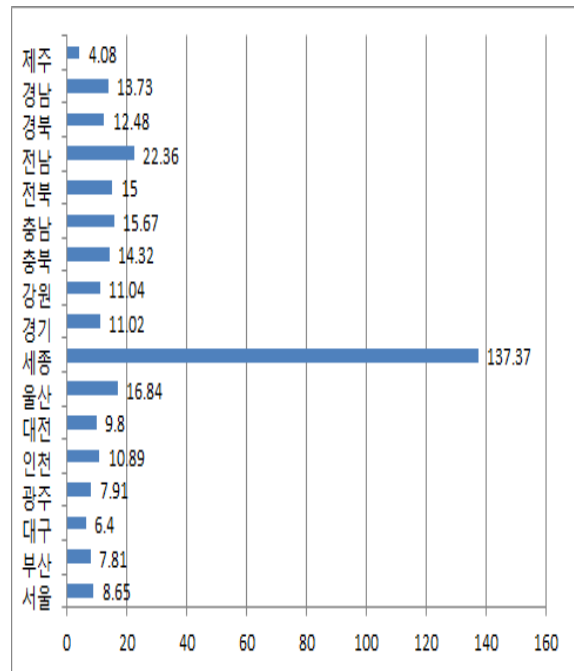
【그림 IV-89】 시도별 (2010) 통학소요시간

② 녹지접근성

녹지접근성은 세종이 137.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4.08점으로 낮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에 대한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이나 도시지역 안 공간임을 고려할 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표 IV-100 시도별 (2015) 녹지접근성

시도	2015
서울	8.65
부산	7.81
대구	6.4
광주	7.91
인천	10.89
대전	9.8
울산	16.84
세종	137.37
경기	11.02
강원	11.04
충북	14.32
충남	15.67
전북	15
전남	22.36
경북	12.48
경남	13.73
제주	4.08
총계	11.42



【그림 IV-90】 시도별 (2015) 녹지접근성

*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e-나라지표

주1) 인구 1인당 도시지역 안 시민의 건강, 휴양을 위한 휴식 공간과 녹지면적

2) 단위: 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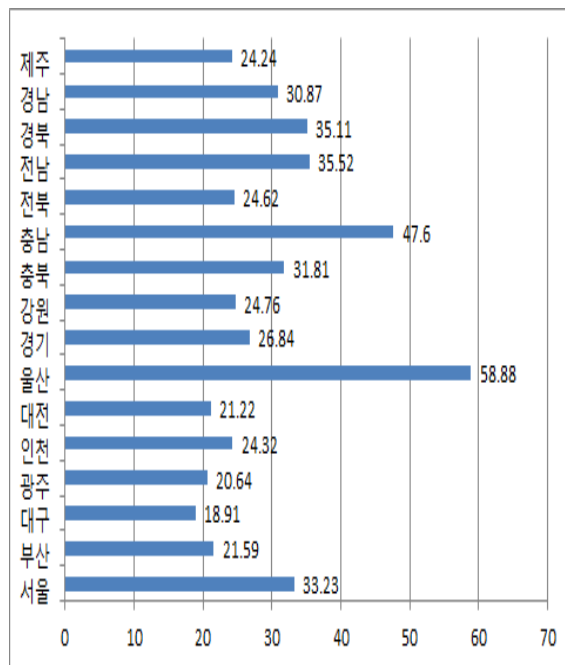
(7) 경제 영역

① 지역경제수준

지역경제수준은 울산이 58.88점으로 가장 높으며 대전이 21.22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101 시도별 (2015) 지역경제수준

시도	평균
서울	33.23
부산	21.59
대구	18.91
광주	20.64
인천	24.32
대전	21.22
울산	58.88
경기	26.84
강원	24.76
충북	31.81
충남	47.60
전북	24.62
전남	35.52
경북	35.11
경남	30.87
제주	24.24
총계	29.46



【그림IV-91】 시도별 (2015) 지역경제수준

*출처: 통계청,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801&conn_path=3 에서 2016년 10월 11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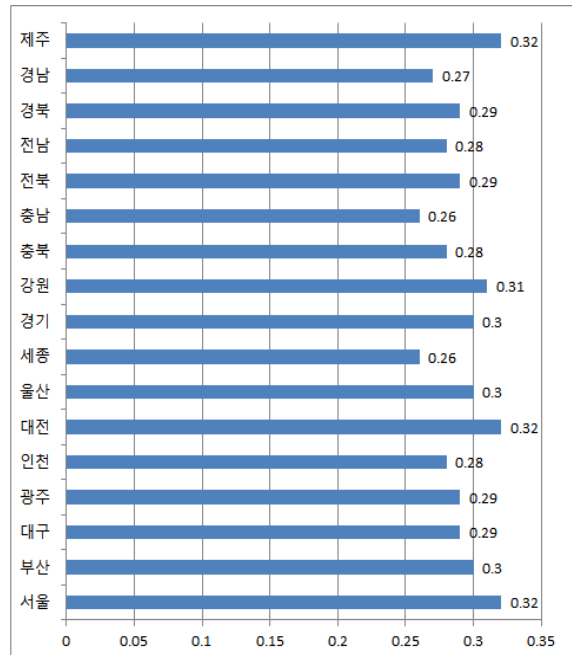
- 주1)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 = 지역내총생산(당해년가격)/추계 인구
 2) 세종특별자치시는 과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충북 및 충남에 포함
 3) 단위: 백만원

② 지니계수

소득불평등을 의미하는 지니계수는 서울, 제주와 대전이 0.32점으로 가장 높고 세종과 충남이 0.26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 제주와 대전이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높고 세종과 충남이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IV-102 시도별 (2014) 지니계수

시도	평균
서울	0.32
부산	0.30
대구	0.29
광주	0.29
인천	0.28
대전	0.32
울산	0.30
세종	0.26
경기	0.30
강원	0.31
충북	0.28
충남	0.26
전북	0.29
전남	0.28
경북	0.29
경남	0.27
제주	0.32
총계	0.29



【그림 IV-92】 시도별 (2014) 지니계수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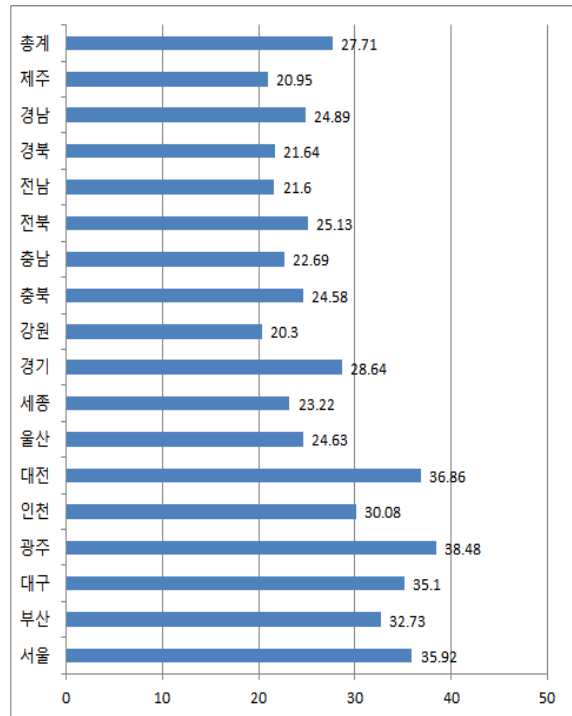
- 주1)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대각선)이 이루는 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시킨 비율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더 평등함을 의미(김지경 · 하현주 · 김옥태, 2014)
- 2) 18-65세 남성 가구주 가운데 임금근로자
- 3) 세종은 값이 없어 충남의 값을 준용

③ 사회복지지출비율

사회복지지출비율은 광주가 38.48점으로 가장 높으며 강원이 20.3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3 시도별 (2016) 사회복지지출비율

시도	평균
서울	35.92
부산	32.73
대구	35.1
광주	38.48
인천	30.08
대전	36.86
울산	24.63
세종	23.22
경기	28.64
강원	20.3
충북	24.58
충남	22.69
전북	25.13
전남	21.6
경북	21.64
경남	24.89
제주	20.95
총계	27.71



*출처: 재정고홈페이지.

http://lofin.moi.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local/budget/sd002_bg500.xml&pageIndex=8 에서 2016년 10월 11일 인출.

주1) 산출방식 = 사회복지분야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2) 사회복지 분야 :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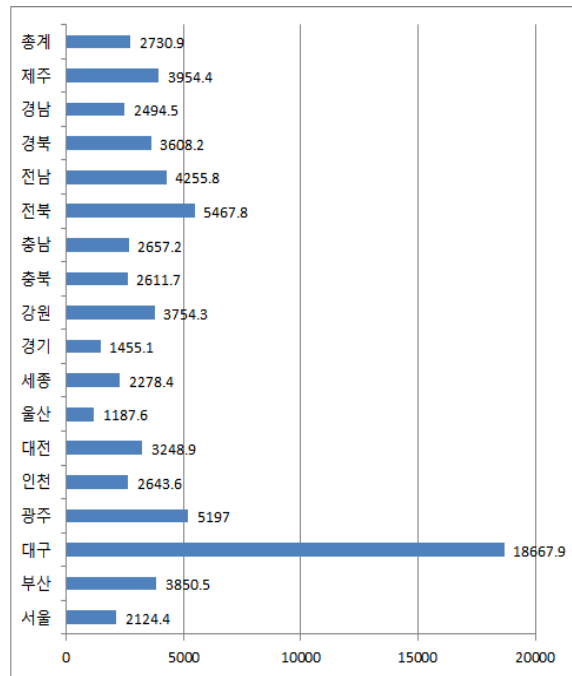
【그림 IV-93】 시도별 (2016) 사회복지지출비율

④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 비율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 비율은 대구가 18667.9점으로 가장 높으며 울산이 1187.6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104 시도별 (2014)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 비율

시도	2015년
서울	2124.4
부산	3850.5
대구	18667.9
광주	5197.0
인천	2643.6
대전	3248.9
울산	1187.6
세종	2278.4
경기	1455.1
강원	3754.3
충북	2611.7
충남	2657.2
전북	5467.8
전남	4255.8
경북	3608.2
경남	2494.5
제주	3954.4
총계	2730.9



【그림 IV-94】 시도별 (2014)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20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32면.

주1)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입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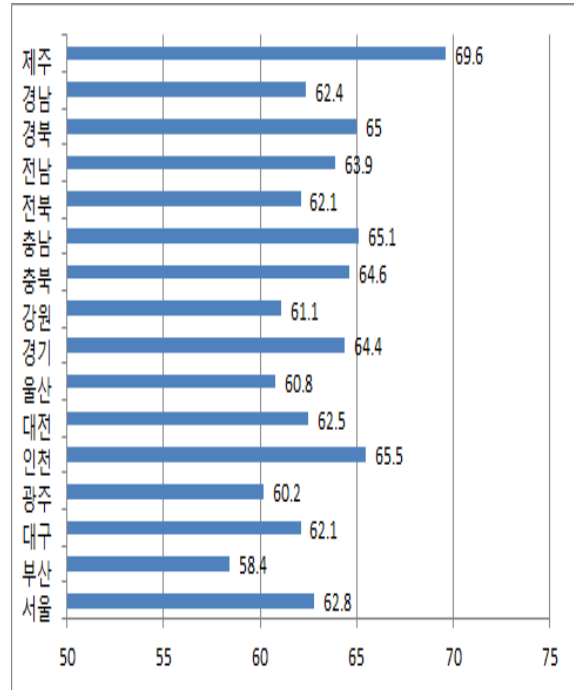
2)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10~24세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입는 아동·청소년의 수 / 10~24세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⑤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은 제주가 69.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58.4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105 시도별 (2016) 경제활동 참가율

시도	수치
서울	62.8
부산	58.4
대구	62.1
광주	60.2
인천	65.5
대전	62.5
울산	60.8
경기	64.4
강원	61.1
충북	64.6
충남	65.1
전북	62.1
전남	63.9
경북	65.0
경남	62.4
제주	69.6
총계	63.2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6).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5&conn_path=3 에서 2016년 9월 27일
인출.

- 주1)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2)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3) 2016년 2/4 분기 기준.
 4) 15세이상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
 5) 세종은 구분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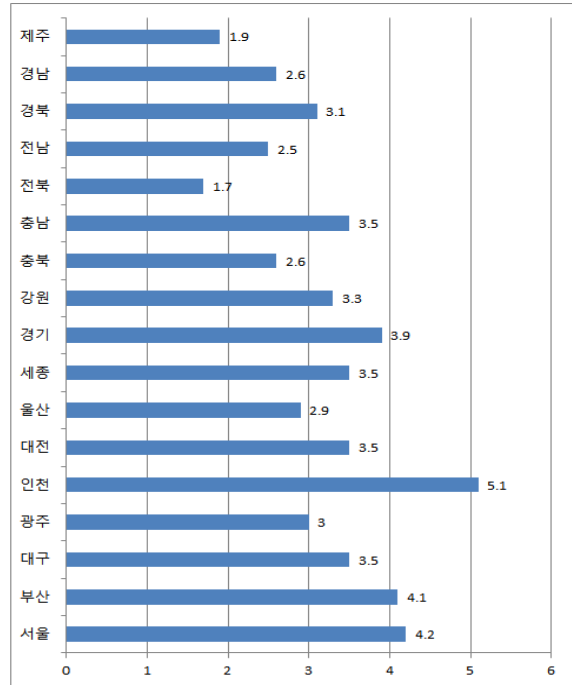
【그림 IV-95】 시도별 (2016) 경제활동 참가율

⑥ 실업률

실업률은 인천이 5.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1.7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106 시도별 (2015) 실업률

시도	2015
서울	4.2
부산	4.1
대구	3.5
광주	3.0
인천	5.1
대전	3.5
울산	2.9
세종	3.5
경기	3.9
강원	3.3
충북	2.6
충남	3.5
전북	1.7
전남	2.5
경북	3.1
경남	2.6
제주	1.9
총계	3.6



【그림 IV-96】 시도별 (2015) 실업률

*출처: 재정고용페이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201&conn_path=I20에서 2016년 9월 27일
인출

주1)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

2) 세종은 별도로 구분되어있지 않아 충남값을 부여함

제 V 장

청소년 행복지표 영향요인

1. 청소년 행복지표간 상관관계
2. 청소년 행복 영향요인

제 V 장

청소년 행복지표 영향요인

청소년 행복지표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주관 지표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 진단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가 없는지 검토하였다. 주관 지표에 대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모든 지표의 VIF가 1에서 10 사이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을 측정하는 종속변인으로 활용되는 지표를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로 선정하였는데 삶의 만족도는 행복의 인지적 측면을 긍정적 정서는 행복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선행연구에서 자주 활용된 바 있기 때문이다(Chapple, 2010).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인지적 행복, 긍정적 정서는 정서적 행복의 지표로 간주된다. 지표의 다중공선성 진단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에 나타나 있으며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2016년 모든 지표를 회귀분석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에 투입하는 것에 무리가 없음이 밝혀져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V-1 다중공선성 진단

지표		인지적 행복 (삶의 만족도)		정서적 행복 (긍정적 정서)	
		공차	VIF	공차	VIF
인구학적 특성	성별(0=여자, 1=남자)	.856	1.169	.857	1.167
	학교급(0=초등, 1=중·고등)	.627	1.596	.626	1.596
	도시규모(0=중소도시/농산어촌, 1=대도시)	.978	1.022	.978	1.022
	학업성적	.773	1.294	.774	1.292
	아버지학력(0=고졸이하/인계심/모름, 1=대졸이상)	.899	1.112	.900	1.112
관계 영역	가족관계만족도	.227	4.407	.228	4.386
	부모관계만족도	.237	4.219	.237	4.228
	교우관계만족도	.551	1.816	.555	1.803

지표		인지적 행복 (삶의 만족도)		정서적 행복 (긍정적 정서)	
		공차	VIF	공차	VIF
	교사관계만족도	.569	1.758	.569	1.757
	사적대인신뢰	.413	2.420	.413	2.419
	사회적대인신뢰	.549	1.820	.551	1.814
	사회조직신뢰	.523	1.914	.523	1.912
	정부조직신뢰	.523	1.912	.522	1.915
	가족간의대화시간	.749	1.336	.749	1.336
	담임교사와면담횟수	.911	1.098	.911	1.097
	방과후친구와보내는시간	.872	1.147	.872	1.146
	이웃관계만족도	.564	1.982	.672	1.875
	인간관계만족도	.385	2.597	.386	2.589
주관적 웰빙 영역	부정적정서	.523	1.911	.527	1.899
	유데모니아	.375	2.663	.396	2.528
	성격특성_외향적인	.607	1.647	.607	1.647
	성격특성_걱정이많은	.579	1.726	.581	1.722
건강 영역	주관적건강상태	.397	2.520	.396	2.524
	스트레스정도	.566	1.767	.568	1.759
	질병유무(0=없음, 1=있음)	.929	1.076	.931	1.075
	아침식사율	.860	1.163	.859	1.164
	고카페인이용량	.908	1.101	.908	1.102
	건강만족도	.322	3.103	.322	3.103
교육 영역	교과과정만족도	.387	2.581	.388	2.580
	진로교육만족도	.440	2.270	.440	2.271
	진로교육체험경험	.815	1.226	.815	1.227
	학교생활만족도	.327	3.062	.332	3.016
안전 영역	지역사회시설안전도	.473	2.116	.473	2.115
	학교시설안전도	.463	2.158	.463	2.158
	위기상황대처능력	.697	1.435	.696	1.437
	범죄안전도(+)	.856	1.168	.856	1.168
	사회안전망시설구축인지정도	.686	1.458	.686	1.459
	생활안전만족도	.393	2.546	.392	2.548

지표		인지적 행복 (삶의 만족도)		정서적 행복 (긍정적 정서)	
		공차	VIF	공차	VIF
활동 영역	놀이친구접근성	.648	1.543	.647	1.544
	여가활동시간만족도	.549	1.820	.555	1.800
	여가활동공간만족도	.568	1.760	.568	1.760
	여가활동용돈만족도	.696	1.437	.696	1.437
	청소년활동만족도	.409	2.443	.409	2.447
참여 영역	아동권리인지	.587	1.703	.586	1.707
	징계소명권	.567	1.762	.567	1.763
	학칙개정권	.511	1.958	.512	1.952
	소수집단에대한관용적태도존중	.719	1.391	.718	1.392
	학생대표의운영위참여기회	.574	1.741	.573	1.745
	학생참여권만족도	.441	2.269	.441	2.270
환경 영역	지역사회유해환경인지도	.674	1.485	.673	1.485
	주택만족도	.611	1.638	.609	1.642
	주거지형태(0=비자가, 1=자가)	.905	1.105	.906	1.104
	지역사회환경만족도	.416	2.405	.417	2.399
경제 영역	가정경제수준만족도	.463	2.160	.463	2.160

1. 청소년 행복지표간 상관관계

청소년 행복지표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지적 행복과 정서적 행복, 대부분의 행복지표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예측될 수 있는 .8 이상의 상관계수는 나타나지 않아 인지적 행복, 정서적 행복 모두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범죄안전도와 도시규모, 아버지학력을 제외하고 모든 지표를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표 V-2 상관관계¹⁷⁾

지표		인지적 행복 (삶의 만족도)	정서적 행복 (긍정적 정서)
안전 영역	지역사회시설안전도	.309***	.337***
	학교시설안전도	.326***	.359***
	위기상황대처능력	.275***	.326***
	범죄안전도(+)	.016	-.003
	사회안전망시설구축인지정도	.279***	.298***
	생활안전만족도	.588***	.535***
활동 영역	놀이친구접근성	.301***	.351***
	여가활동시간만족도	.397***	.434***
	여가활동공간만족도	.363***	.407***
	여가활동용돈만족도	.308***	.314***
	청소년활동만족도	.565***	.535***
참여 영역	아동권리인지	.381***	.420***
	징계소명권	.331***	.353***
	학칙개정권	.312***	.329***
	소수집단에대한관용적태도존중	.284***	.305***
	학생대표의운영위참여기회	.284***	.315***
	학생참여권만족도	.544***	.490***
환경 영역	지역사회유해환경인지도	.294***	.318***
	주택만족도	.357***	.378***
	주거지형태	-.034**	-.032**
	지역사회환경만족도	.534***	.487***
경제 영역	가정경제수준만족도	.524***	.461***

* p<.05, ** p<.01, *** p<.001

17) 지면관계상 인지적 행복(삶의 만족도), 정서적 행복(긍정적 정서)에 대한 지표들의 상관계수만을 제시하였다. 다른 지표들 간에도 골고루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는 .80이상의 상관계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18) 인지적 행복(삶의 만족도)과 정서적 행복(긍정적 정서) 간의 상관계수는 .677(p<.001)이다.

지표		인지적 행복 (삶의 만족도) ¹⁸⁾	정서적 행복 (긍정적 정서)
인구학적 특성	성별	.054***	.013
	학교급	-.271***	-.271***
	도시규모	-.012	.005
	학업성적	.262***	.219***
	아버지학력	-.015	-.001
관계 영역	가족관계만족도	.516***	.544***
	부모관계만족도	.492***	.517***
	교우관계만족도	.414***	.492***
	교사관계만족도	.384***	.433***
	사적대인신뢰	.504***	.543***
	사회적대인신뢰	.189***	.202***
	사회조직신뢰	.259***	.264***
	정부조직신뢰	.410***	.443***
	가족간의대화시간	.283***	.317***
	담임교사와면담횟수	.119***	.137***
	방과후친구와보내는시간	.104***	.142***
	이웃관계만족도	.346***	.396***
	인간관계만족도	.635***	.568***
주관적 웰빙 영역	부정적정서	-.535***	-.491***
	유데모니아	.627***	.651***
	성격특성_외향적인	.353***	.411***
	성격특성_걱정이많은	-.399***	-.395***
건강 영역	주관적건강상태	.395***	.418***
	스트레스정도	-.474***	-.464***
	질병유무	-.087***	-.070***
	아침식사율	.180***	.172***
	고카페인이용량	-.108***	-.085***
	건강만족도	.537***	.484***
교육 영역	교과과정만족도	.475***	.467***
	진로교육만족도	.421***	.422***
	진로교육체험경험	.195***	.217***
	학교생활만족도	.677***	.609***

* p<.05, ** p<.01, *** p<.001

2. 청소년 행복 영향요인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규명하고 규명된 지표를 최종지표(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투입된 지표는 인지적 행복의 64.5%, 정서적 행복의 59.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행복지표의 행복 설명량이 매우 높아 지표의 타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표 V-3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지표

지표		인지적 행복 (삶의 만족도)			정서적 행복 (긍정적 정서)		
		B	S.E	Beta	B	S.E	Beta
인구학적 특성	성별	-.045	.030	-.010	-.055	.012	-.034***
	학교급	.019	.038	.004	-.001	.015	-.001
	학업성적	.054	.016	.024***	-.018	.006	-.022**
관계 영역	가족관계만족도	.233	.034	.091***	.099	.013	.107***
	부모관계만족도	.052	.033	.020	.009	.013	.010
	교우관계만족도	-.084	.025	-.028***	.089	.010	.083***
	교사관계만족도	-.063	.019	-.027***	.009	.008	.011
	사적대인신뢰	.017	.034	.005	.052	.013	.042***
	사회적대인신뢰	.002	.021	.001	-.007	.008	-.008
	사회조직신뢰	.046	.025	.016	.003	.010	.003
	정부조직신뢰	-.036	.022	-.014	.032	.008	.036***
	가족간의대화시간	-.008	.015	-.004	.018	.006	.025**
	담임교사와면담횟수	.004	.014	.002	.007	.005	.009
	방과후친구와보내는시간	-.016	.011	-.009	.007	.004	.012
	이웃관계만족도	-.011	.019	-.004	.008	.007	.009
	인간관계만족도	.209	.011	.186***	.024	.004	.060***
주관적 웰빙 영역	부정적정서	-.332	.021	-.134***	-.075	.008	-.083***
	유데모니아	.609	.030	.202***	.255	.012	.234***
	성격특성_외향적인	-.138	.018	-.063***	.007	.007	.009
	성격특성_걱정이많은	.030	.017	.015	-.005	.006	-.007
건강 영역	주관적건강상태	-.129	.024	-.053***	.018	.009	.021
	스트레스정도	-.084	.017	-.041***	-.041	.007	-.056***
	질병유무	.004	.036	.001	.019	.014	.009

지표		인지적 행복 (삶의 만족도)			정서적 행복 (긍정적 정서)		
		B	S.E	Beta	B	S.E	Beta
교육 영역	아침식사율	-.006	.006	-.006	-1.001E-5	.002	.000
	고카페인이용량	-.010	.015	-.004	.013	.006	.017*
	건강만족도	.090	.011	.090***	.000	.004	.000
	교과과정만족도	.077	.023	.033***	.014	.009	.017
	진로교육만족도	-.032	.020	-.015	-.007	.008	-.009
	진로교육체험경험	-.006	.014	-.003	-.001	.005	-.002
	학교생활만족도	.205	.011	.207***	.049	.004	.137***
안전 영역	지역사회시설안전도	-.033	.024	-.013	-.002	.009	-.002
	학교시설안전도	-.082	.024	-.032***	.001	.009	.002
	위기상황대처능력	-.045	.018	-.019*	.011	.007	.013
	사회안전망시설구축인식정도	-.005	.017	-.002	-.007	.007	-.009
	생활안전만족도	.078	.011	.070***	.011	.004	.028**
활동 영역	놀이친구접근성	-.049	.016	-.025**	.001	.006	.002
	여가활동시간만족도	.091	.016	.048***	.067	.006	.096***
	여가활동공간만족도	-.017	.017	-.008	.017	.007	.024**
	여가활동용돈만족도	.012	.015	.006	-.012	.006	-.016*
	청소년활동만족도	.059	.009	.067***	.014	.003	.044***
참여 영역	아동권리인지	-.033	.021	-.013	.011	.008	.012
	징계소명권	-.053	.018	-.025**	-.006	.007	-.007
	학칙개정권	.004	.018	.002	-.003	.007	-.004
	소수집단에 대한 동등적 대우 존중	-.053	.016	-.025***	-.018	.006	-.024**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	-.047	.019	-.020*	-.007	.007	-.009
	학생참여권만족도	.068	.008	.077***	.002	.003	.007
환경 영역	지역사회유해환경인지도	-.058	.018	-.025***	-.005	.007	-.006
	주택만족도	-.039	.021	-.015	.007	.008	.008
	주거지형태	.043	.030	.010	.021	.011	.013
	지역사회환경만족도	.029	.010	.029**	-.001	.004	-.003
경제 영역	가정경제수준만족도	.070	.010	.068***	.001	.004	.001
상수		1.763	.197	-	.907	.076	
R2		.645			.594		
Adj. R2		.643			.591		
F		317.465***			256.585***		

* p<.05, ** p<.01, *** p<.001

인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 중에서는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인지적 행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성별과 학교급은 인지적 행복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영역에서는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p<.001$) 인지적 행복이 높아진 반면 교우관계만족도가 낮을수록($p<.001$) 교사관계만족도가 낮을수록($p<.001$) 인지적 행복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추후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적대인신뢰, 사회적대인신뢰, 사회조직신뢰, 정부조직신뢰, 가족간의 대화시간,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방과후친구와 보내는시간, 이웃관계만족도는 인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인간관계만족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간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인지적 행복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p<.001$). 주관적 웰빙 영역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정서가 낮아질수록($p<.001$) 인지적 행복이 높아졌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인 유데모니아가 높을수록 인지적 행복이 높아졌다($p<.001$). 외향적인 성격특성을 가질수록 인지적 행복은 낮아졌으며 걱정이 많은 성격특성은 인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건강영역과 관련하여 주관적건강상태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건강만족도가 높을수록 인지적 행복이 높아졌으며($p<.001$) 주관적건강상태가 낮아질수록 인지적 행복이 높아지는 결과에 대해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유무, 아침식사율, 고카페인이용량은 인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교육 영역에서는 교과과정에 대해 만족할수록($p<.001$)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p<.001$) 인지적 행복이 높아졌으며 진로교육만족도, 진로교육체험경험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각 회귀식의 Beta 값은 각 지표의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의미하므로 지표(안) 선정시 이러한 영향력의 크기를 고려하여 각 지표의 배점을 안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안전영역과 관련해서는 생활안전만족도가 높아질수록($p<.001$) 인지적 행복이 높아진데 반해 학교시설안전도에 대한 지각이 낮아질수록 인지적 행복이 높아지고 있어($p<.001$) 이에 대한 추후 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상황대처능력 또한 인지적 행복을 낮추고 있어($p<.001$)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지역사회시설안전도와 사회안전망시설구축인지정도는 인지적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활동영역과 관련하여 놀이친구접근성이 낮아질수록($p<.001$) 여가활동시간만족도가 높아질수록($p<.01$) 청소년활동만족도가 높아질수록($p<.001$) 인지적 행복이 높아졌으며 여가활동공간만족도나 여가활동용돈만족도는 인지적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참여영역과 관련하여 징계소명권이 낮아질수록($p<.001$) 인지적 행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또한 낮을수록 인지적 행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학생대표의운영위참여기회가 낮아질수록 인지적 행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참여권만족도는 인지적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p<.001$) 전반적인 학생참여권만족도를 투입함으로써 다른 관련 지표의 영향력을 희석하거나 다른 측면을 대두시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환경영역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유해환경인지도가 낮을수록($p<.001$) 지역사회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p<.001$) 인지적 행복이 높아지며 주택만족도와 주거지형태는 인지적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경제 영역에서는 가정경제수준만족도가 인지적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정서적 행복에 대한 결과는 인지적 행복에 대한 결과와 일부는 일치하고 일부는 일치하지 않아 선행연구에서 행복의 두 하위요인인 인지적 행복과 정서적 행복이 상관성을 갖기는 하지만 완전히 유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서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은 인지적 행복과는 다르게 남자보다 여자 청소년이 더 정서적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p<.001$).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인지적 행복이 높아졌던 것에 반해 학업성적이 낮아질수록 정서적 행복이 높아지는 결과($p<.001$)가 나타나 흥미롭다. 학교급은 정서적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관계 영역에서는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p<.001$) 교우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적대인신뢰가 높을수록, 정부조직신뢰가 높을수록, 가족간의 대화시간이 높을수록, 인간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행복이 높아지는 것($p<.001$)으로 나타나 인지적 행복과 일부 차이를 보인다.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부정적 정서가 적을수록($p<.001$) 유데모니아가 높을수록 정서적 행복이 높아지며($p<.001$) 건강 영역에서는 스트레스정도가 적을수록($p<.001$), 고카페인 이용량이 높을수록 정서적 행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영역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질수록($p<.001$) 정서적 행복이 높아졌다. 안전영역에서는 생활안전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행복이 높아졌으며($p<.001$) 활동 영역에서는 여가활동시간만족도가 높을수록($p<.001$) 여가활동공간만족도가 높을수록($p<.001$) 여가활동용돈만족도가 낮을수록($p<.001$) 청소년활동만족도가 높을수록($p<.001$) 정서적 행복이 높아졌다. 참여영역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낮을수록 정서적 행복이 높아졌으며($p<.001$) 환경영역과 경제영역은 인지적 행복에서와는 달리 정서적 행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컨대 청소년행복지표에서 청소년 정서적, 또는 인지적 행복에 영향을 미쳐 청소년 행복 지표로 포함될 필요성이 제기된 지표는 (인구학적 특성) 성별, 학업성적, (관계 영역) 가족관계만족

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사적대인신뢰, 정부조직신뢰, 가족간의 대화시간, 인간관계만족도, (주관적 웰빙 영역) 부정적 정서, 유테모니아, 외향적인 성격특성, (건강 영역)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고카페인이용량, 건강만족도, (교육영역) 교과과정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안전영역) 학교시설안전도, 위기상황대처능력, 생활안전만족도, (활동영역) 놀이친구접근성, 여가활동시간만족도, 여가활동공간만족도, 청소년활동만족도, (참여 영역) 징계소명권,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학생대표의 운영위참여기회, 학생참여권만족도, (환경 영역) 지역사회유해환경인지도, 지역사회환경만족도, (경제영역) 가정경제수준만족도이며 이러한 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관, 객관지표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지역사회 행복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가 심층면접과 지역별 지표치 중 지나치게 낮은 값이 많았던 특정 지역들을 보다 활발히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VI 장

청소년 행복지표 우수사례

1. 개요
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현황
3. 우수사례 결과분석
4. 소결

제 VI 장 청소년 행복지표 우수사례¹⁹⁾

1. 개요

본 연구는 국내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선정된 2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이 두 도시가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게 된 과정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자리 잡게 된 성공 요인들과 강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보고서와 홍보 자료들을 검토하여 성북구와 전북 완주군에 대한 지역적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아동·청소년 친화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조사를 위해 2016년 8월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전북 완주군의 정책담당자 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²⁰⁾을 통해 이루어졌고, 면접 장소는 각 지역의 구청과 군청이었다. 인터뷰 시간은 한 회당 약 6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면접내용은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녹음되었고, 녹음된 파일은 분석을 위해 녹취록으로 작성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인터뷰에서 답았던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① 지역의 현황

- 지역 역사, 문화, 주민의 특성
- 지역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전달체계 및 담당 인력, 예산 등

② 아동·친화도시 성공 요인

- 아동·친화도시 추진 배경 및 인증과정
-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19) 이 장은 협성대학교 김희주 교수가 작성함

20) 구체적인 인터뷰 질문(안)은 [부록 2]에 나타나 있다.

- 아동·친화도시 인증의 장·단점
- 아동·친화도시로써 강점

③ 향후발전방향

- 아동·청소년의 행복수준과 지역 아동·청소년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노력

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현황

서울시 성북구와 전북 완주군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 이 두 지역의 지역 현황 및 특성과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및 전달체계에 대해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두 지역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 사업을 시도하고, 성공적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

1) 성북구의 역사와 정책 현황²¹⁾

성북구는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 159호에 의해 설치되었고, 1988년 5월 1일 구단위 지방자치단체를 시행하여 자치구로 승격되었다(성북구청, 2015a). 서울성곽, 정릉, 간송미술관 등 다양한 유적지와 문화재가 있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이며, 8개의 대학교를 포함하여 약 168개의 학교가 있는 교육도시이다. 성북구는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도시로 자리 잡고 있었으나 2000년대 지역의 개발욕구가 높아지면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진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역사와 문화자원 훼손과 성북구 고유의 정체성 상실, 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 베드타운화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였다. 민선5기 성북구에서는 ‘사람이 희망인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 주민의 권리 보장, 인적자본 투자,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고자 노력하였다(성북구청, 2015a).

21) 성북구의 역사와 지역 특성은 2015 성북구 사회지표조사 보고서와 민선5기 구정백서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다.

2016년 2월 현재 성북구 등록 인구는 총 190,406세대, 467,142명으로 서울에서 아홉 번째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주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북구는 고령 인구가 많고, 지속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아동·청소년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²²⁾이다. 그러나 성북구 내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총인구의 17% 정도로 여전히 정책수요가 높은 편이다. 또한 한국 청소년의 높은 자살율과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한 방과 후 아동·청소년 방치 등과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북구는 아동친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과제들을 추진하였고, 2013년 1월 한국에서는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성북구청, 2015c).

성북구청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부구청장 아래 교육 아동·청소년 담당관이라는 독립된 부서를 설치, 총 34명의 전담직원들이 아동·청소년 교육 및 복지, 친환경무상급식, 아동·청소년 친화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성북구의 아동·청소년 친화사업 예산은 약 110억 정도로 성북구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와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이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림 VI-1】 성북구청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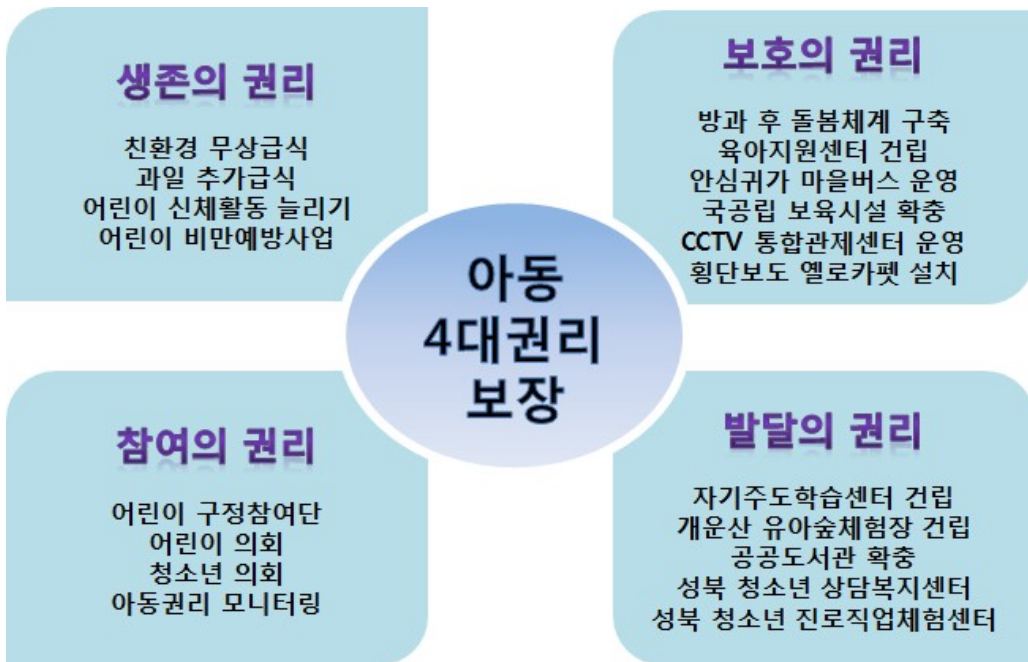
* 출처: 성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ngbuk.go.kr/sb_new/main/main.jsp

22) 이는 2015년 성북구 내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습당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써 성북구는 서울시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였고, 대한민국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UN아동권리협약에서의 아동의 4대 권리인 성장,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성북구가 대표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사업과 4대 권리에 따른 프로그램들은 【그림 VI-2】와 같다.

표 VI-1 성북구 아동·청소년 친화 관련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친환경무상급식 사업	성북구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학부모 모니터단 구성, 식재료 공급실태 및 유통경로 점검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의 4대 권리(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기반으로 정책수립 및 사업 운영
방과 후 돌봄체계	전국 최초 구립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총 4개소) 성북아동청소년센터 보편적 돌봄 서비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진로탐색, 학부모 강좌, 진로적성 검사 등 프로그램 운영
책 읽는 성북 조성	구립도서관 확충 (3개 → 9개소) U-도서관 (도서관 간 상호대차서비스) 독서문화환경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010년 이후 10개소 증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수요 해소 기여
어린이·청소년 건전 육성	어린이·청소년 구정참여단 운영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 출처: 성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ngbuk.go.kr/sb_new/main/main.jsp



【그림 VI-2】 아동의 4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사업 내용

* 출처: 성북구청(2016). 아동친화도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서울시 출입기자단 정책 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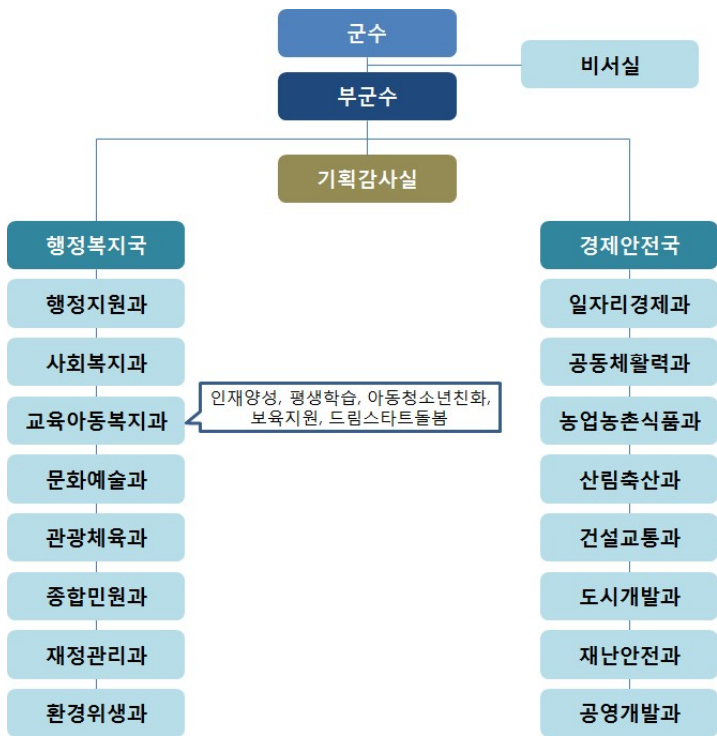
2) 전북 완주군 역사와 정책 현황²³⁾

완주군은 전라북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전북의 대표 도시인 전주를 둘러싸고 있으며, 국도와 지방도, 철도 등이 관통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2016년 9월 현재 완주군의 등록 인구는 총 95,573명(41,097세대)이다. 이중 18세 미만의 아동은 17,585명이고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9~24세)은 15,031명이다. 완주군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아동 인구의 비율은 평균 20%미만이고, 연도별 변화 추이 또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완주군 아동 인구의 연도별 변화 추이는 다른 군 단위 도시와 다르게 증가하고 있고, 아동과 청소년 인구 비율 또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전주, 군산, 익산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역주민 중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교육수준이 높고, 지역 내 공단이 자리 잡고 있어 소득수준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특성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교육환경 및 수준이 타 지역에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23) 완주군의 지역현황과 아동·청소년 정책들을 김웅수 외(2015)의 실태조사 결과를 주로 참고하였다.

나타났다. 또한 국내 대부분 지역의 아동 행복지수는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반면, 완주군의 아동들의 행복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음을 한 NGO기관의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웅수 외, 2015).

하지만 완주군은 지역 내의 취약계층 아동들이 부모의 맞벌이 경제활동과 이혼과 가출 등으로 적절한 양육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과 이러한 결과로써 아동의 발달상의 문제와 빈곤의 대물림 현상들이 초래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였으며 이에 사전 예방적인 맞춤형 아동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자각하였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추진하였고, 2016년 1월 8일 한국에서 2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김웅수 외, 2015).



【그림 VI-3】 완주군청 행정조직도

* 출처: 완주군청 홈페이지 행정조직도 재구성. <http://www.wanju.go.kr>

완주군은 2015년 말 기준 인구가 9만 5,000명을 넘으면서 기존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교육지원과’를 아동 업무를 통합하면서 ‘교육아동복지과’로 확장하였다.

교육아동복지과는 인재양성, 평생학습, 아동·청소년친화, 보육지원, 드림스타트돌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아동·청소년친화 사업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 어린이의회 운영,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완주군은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귀농/귀촌 사업, 로컬푸드 사업 등 농업의 특성을 살린 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전라북도 내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속하고,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완주군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기획하면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예산도 대폭 증가시켰는데 구체적으로 완주군의 연도별 일반회계는 2014년에 비해 2015년도에 15% 증가한 반면, 아동·청소년 친화 예산 규모는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29% 증가했다(완주군청, <http://www.wanju.go.kr>).

표 VI-2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 관련 사업

사업내용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 사업	• 어린이의회 운영 • 방과후 놀이공간 운영 및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운영 • 지역아동센터 지원 • 아동권리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구축(조례 제정) • 아동친화도시 대학생 참여위원회 운영 • 방과후 돌봄서비스

* 출처: 완주군청 홈페이지, <http://www.wanju.go.kr>

3. 우수사례 결과분석

본 절에서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 성북구, 전북 완주군의 아동친화도시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고 인정받게 된 과정, 인증 후 현황 등에서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강점, 우수사항을 파악함은 물론 아동친화도시 추진 과정의 어려움,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제시하였다.

1) 아동친화도시인증의 계기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인증의 계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자체의 발전 전략

서울의 성북구와 전북 완주군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공통 배경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아동학대나 돌봄으로부터 방치되는 아동들의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 및 교육 정책들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데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지자체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자체만의 특성과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지역 모두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사업은 다른 도시에서는 아직 실시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이었고,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청소년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거는 다른 데 다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그래서 학교의 교실이 인제 점점 남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좀 활용을 잘 하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성친화도시, 노인 친화도시 같은 것들이 이미 있었는데 우리는 어린이 친화 도시를 해보자”

“고령화는 계속 되고, 지역은 늙어 가는데 이 늙어가는 지역을 어떻게 하면 젊은 도시로 만들 것인가가 아동·청소년의 친화 도시인거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 인 거죠”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와 지원

두 지역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 및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성북구의 경우 지자체장인 구청장이 아동친화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취임 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교육

및 복지사업이 구의 주요 사업들이 되었고, 구청 내 어린이 친화도시 TF팀을 결성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거듭나는 성북구가 되기 위한 지자체장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유니세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또한 지자체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인증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저희 청장님이 2010년 7월에 취임 하셨는데요, 아동 쪽으로 관심이 많으셔서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이 구의 일반 과제이기도 했어요. 또 취임 하시고 어린이 친화팀을 만든 것이 2011년 초예요. 바로 막 바로 만드신 거죠. 이후 청장님이 어린이 친화 도시를 추진하시면서 어린이 친화도시 TF팀이 만들어졌고, 제가 그 팀에 들어갔어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사업을 알게 되었고, 저희 구가 추진하려는 사업과 잘 맞아서 인증 작업을 하게 되었죠”

또한 인증을 받은 후에도 지자체장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여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업 진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청장님께서 또 지금 일이 많으니까 인센티브를 줘야겠다 생각하시고 전략 과제 하시는 담당자들과 아동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실적 가점이라고 해서 승진에 관계되는 점수를 주셨어요.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민감한 사람들에겐 또 영향이 있어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전북 완주군의 경우에도 비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이 처음부터 군의 핵심 정책은 아니었지만 인증 신청 작업을 준비하면서 지자체장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인증을 받기 위해 군수가 직접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향후 계획들을 발표하고, 군의 의지를 적극 표명하였고, 이러한 지자체장의 노력이 인증을 받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저희 군수님이 아동 친화 도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삶의 질 등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 굉장히 순수하시고 열정적이신 것을 유니세프에서도 본거죠. 군수님도 인터뷰를 하거나 아동 친화 도시 인증 서류를 내면 직접 가서서 ‘우리는 이러 이런 점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인증을 해주면 이를 계기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

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증평가 심사위원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믿음이 가는 거죠”

■ 전담공무원에서 출발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 사업: 실무자의 관심과 의지

두 번째로 인증을 받은 완주군의 경우 일선공무원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알게 되어, 이를 지자체장에게 보고, 건의하면서 인증 신청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성북구와는 달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지자체의 정책 전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아동복지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기존 업무와 함께 친화도시 인증작업을 수행하였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던 공무원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자료를 수집하고 인증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인증에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하였다. 과중한 업무부담 속에서도 전담 공무원들의 의지와 열의가 있었기에 완주군의 친화도시 인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저희는 순수하게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하려고 했어요. 먼저 유니세프의 10가지 원칙 중에 우리 지자체가 과연 뭘 잘 하고 있는지, 46가지 지표에서 뭘 못하고 있고 뭘 잘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분석을 하고 그럼 우리가 뭘 더 해야 하는지를 분석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인증 준비를 한 거죠.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4명이 기존의 일을 하면서 이 인증을 준비했는데 완전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 아동 친화 도시 인증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전문 전담 인력부터 받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친화도시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 진행 및 관리 등 더 많은 수고와 업무량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사업에 대한 자부심 등이 없으면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업무량 때문에 힘든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어린이 친화 도시를 한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좀 힘들기도 합니다”

두 지자체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게 된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일선공무원들의 노력들이 있었기에 친화도시로써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즉 지역 정책 수행에 있어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전략과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구체적인 사업들로 실행하는 담당자들의 추진력이 성공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써 준비된 지자체

현재 구청장의 취임 이후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및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친화도시로 거듭나고자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던 성북구는 유니세프에서 인증 조건으로 강조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4대 권리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증 준비과정에서 큰 장애물이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또한 유니세프가 지향하는 친화도시의 자격조건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은데 외국의 경우 인증 신청을 하기 전 여러 해 동안 시범사업들을 운영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 이후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 절차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에서 준비된 친화도시였다고 볼 수 있겠다.

“아동 친화 도시 로드 맵 이라고 저희가 예전에 만들었던 자료에 있는 건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전담조직부터 시작해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을 했고, 사업에 대한 아동 영향 평가 같은 거는 먼저 실시를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유니세프를 알게 되어서 아동의 4대 권리라든지 10대 원칙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니세프에 맞춘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진행을 한 상태에서 중간에 유니세프의 원칙을 받아들인 거죠”

“외국의 아동 친화 도시는 3년의 시범 기간을 거쳐서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독일의 하나오시도 2014년도에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은 됐지만 이미 그 전부터 시범 사업을 했고, 유럽은 대부분 아동 권리 교육이나 참여에 대한 프로그램이 20-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우리랑 많이 달라요”

아동과 청소년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는 것은 지자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교육을 통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장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정책실행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맨 처음 받은 성북구는 인증 이후에도 유니세프가 요구하는 아동의 4대 권리와 10대 원칙을 반영하여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아동·청소년의 참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 정책에서의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단순히 정책의 대상으로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참여주체로 인식되어 이들의 삶의 만족을 높여줄 수 있다.

“생존, 보호, 발달, 참여가 4대 권린데요, 그 중에서 생존이나 보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되고, 발달의 경우 그래서 우리는 교육열이 높고 하기 때문에 발달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런데 참여가 제일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들을 많이 고민했어요”

2) 아동·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자원과 강점

■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

성북구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보편적 복지를 실시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지자체의 정책이 저소득층이나 학대와 방임의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진정한 아동친화 도시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북구에서 보편적 복지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성북구는 2010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 2014년도에는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여, 지역의 초, 중학생들이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사업으로 구에서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다.

“성북구 아동, 청소년 지원 예산이 11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반 정도가 무상급식 예산이에요. 저희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했는데 지금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는 상황이지요”

② 보편적 돌봄을 보장하는 성북형 돌봄 시스템 구축

성북구는 2012년도부터 지역 아동의 보호와 발달의 권리를 보장하며,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생기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보편적 돌봄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성북형 돌봄 시스템은 성북구 내의 4개 지역에 구립형 방과 후 돌봄 센터를 개소, 운영하며 성북구 만의 공적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에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 센터와는 달리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구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공정하고 보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 차별 없이 보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보편적 돌봄 센터라고 있는데요. 그게 성북형 돌봄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지역아동 센터와 다르게 저소득층 아이들만이 아니고 일반 아동도 돌봐주는 돌봄 센터예요.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하는 구립 돌봄 센터거든요. 우리 구청에 일반 아동들을 돌보는 센터가 권역별로 4개가 있어요. 이것도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서 보호, 발달의 권리 보장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우리 구만 있습니다”

③ 관내 아동·청소년 기관들의 통합 네트워크 허브로써 성북 아동·청소년 센터

또한 성북구는 지역사회 내 200여개의 아동·청소년 교육 및 복지시설 간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브(hub) 역할을 하는 성북 아동·청소년센터를 2013년부터 운영, 바른 성장과 건전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의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성북구내 아동과 청소년 관련 시설의 허브 역할을 통해 활발한 민관 협력관계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지역의 도서관과 같은 민간 자원들과 연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독서 및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도서관의 활성화를 돕는 효과를 보고 있다.

“구립 돌봄 허브라고 아동, 청소년 센터가 또 있거든요. 방과 후 아동들 중 학교에서 보호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저희가 가장 먼저 전국에서 구축을 했어요. 아동 청소년 센터를 허브로 해서 단순히 돌봄만 하는 게 아니고, 작은 도서관, 새마을 문고 또는 종교 시설 등 지역 자원들과 연계망이 잘 되어 있어요”

■ 위기 및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과 보호권을 보장하는 아동·청소년 복지플래너 지원

아동학대나 방임과 같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은 이들의 생존과 보호를 위협하고 삶을 위기로 내모는 사건들로, 성북구의 경우 각 동마다 복지플래너를 배치, 학대와 방임이 의심되는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각 아동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존에는 아동 학대가 발생하면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나 경찰서에서 같이 대응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복지플래너라고 해서 성북구 내 동별로 다 배치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학대나 방임되는 아동들을 돌보는 사업이에요”

■ 아동·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 권리 증진

성북구와 완주군 모두 아동·청소년 친화 사업에 있어서 강조하는 부분이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이슈나 정책에 아동과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사업들이 각 지자체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과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아동과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청소년 의회활동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2개의 지자체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의회는 지자체에서 지역 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활동 참여 희망자를 모집, 정기적으로 의회를 개최하여 아동과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들을 토론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거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참여가 지금 되게 생소한 분야거든요. 저희가 아동 친화 도시 하면서 참여를 확대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긴 해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참여가 보장이 돼야지 생존이라든지 발달, 보호 뭐 이런 권리들이 다 같이 신장이 되는 결과를 가져 오거든요. 참여와 관련해서 가장 의미 있는 사례 중 하나가 어린이, 청소년 의회에서 아이들이 의견을 내서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를 직접 제정한 거예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서 추진하는 의회활동이나 참여 사업들은 활동의 주체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자발성을 독려하고, 이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지자체에서 배려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저희는 어린이 의회 참가자를 직접 공개 모집을 했어요. 공고를 보고 멀리서도 다 알아서 오는 거죠. 저희는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완주군 정책에 반영을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린이 의회 명의로 공문을 보내면 군에서 그 아이들에게 공문을 통해 응답해주기도 해요. 의회 시간도 학생들이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저희 공무원들 못 쉬지만 아이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거죠”

② 아동·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 이후 변화된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지역사회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역사에 아동과 청소년들도 함께 동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동들이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졌다는 것, 그래서 자기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의견들이 또 사업에서 크거나 작게 녹아들 수 있다는 점과 그런 기회가 많아 졌다는 게 좋은 점 인 것 같아요”

아동과 청소년들의 참여는 조례와 정책 제정 외에도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나 건물 설립 또는 개조할 때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공간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존에 어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던 공간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시각에서 새롭게 재구성되고,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참여의식과 애착이 더욱 커지는 효과도 가져왔다. 성북구의 경우 구청 1층의 공간을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 놀이터로 변경하였고, 완주군은 아동들이 참여하여 만들어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건립, 이용하는 아동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시설 이용률도 높아지는 효과를 경험하였다.

“청소년 센터라든지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그 지역 아동들의 의견을 받는 것을 거의 정례화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청 1층에 나가보시면 아이들 북카페가 있거든요. 그것도 아이들 의견 같은 거 받아서 한 거고, 그 옆에 놀이터도 그냥 공무원들 휴식공간이었는데 아이들이 놀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수용을 해서 저희 구청사에 놀이터도 작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기서 놀면서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공립형 지역 아동 센터에 우리가 뭐 타일을 붙인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공립형 지역 아동 센터에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은지 그림으로 그렸던 것들을 활용해서 타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공간에 오고 싶어라 하고, 여기 다니고 싶어라 하면서 애정을 갖는 거죠”

그 밖에 지역사회의 특수한 문제나 이슈들이 있을 때 성인 대상의 주민자치위원회 외에도

아동과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방안들을 스스로 생각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활동은 아동의 참여에 대한 권리의식을 증진시키고, 아동과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들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주민자치 위원회라는 직능단체가 있는데 아동, 청소년 주민자치 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동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문제점들이 있으면 모여가지고 해결 해 나가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청소년 구정참여단이라고 해서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그것도 청소년들이 모여서 저희 구정 사업에 대한 제안 같은 것도 하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등 의견을 독려하고 있어요”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는 때로는 지역의 대학생이나 성인들과 함께 진행되기도 한다. 결국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행복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증대하게 되는 것이다.

“한번은 어린이 의회에서 아이들이 페이스 북에 우리 의회 홍보를 하고 싶은데 나이 제한 때문에 페이스 북 가입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학생 언니, 오빠들 서포트단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동아리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페이스북 홍보를 언니, 오빠들이 해 줬어요. 또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참여하고 어떤 일을 할지 아이들 스스로 정하기도 해요”

종합하여 보면 아동·청소년 의회활동이나 주민자치 위원회 등의 조직들을 운영, 아동과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이슈들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며, 의사결정을 통해 정책과 서비스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써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이들이 단순히 서비스 전달 대상이 아닌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써 인식되면서 지역 사회 아동과 청소년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청소년 정책을 위한 담당부서와 민간 전문가 영입

지자체가 특정 대상을 위한 정책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책과 사업을 전담하는 전담부서 설치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북구와 완주군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을 수행할 담당부서를 설치하였고, 친화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의 사업예산 투입은 물론 전담 부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완주군의 경우 아동·청소년 친화 환경 조성 및 정책 수립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지자체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유니세프에서 말하는 10대원칙에서 아동 전담 기구라는 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교육 아동·청소년 담당관 이라는 전담 기구가 있거든요. 이런 게 없는 데도 많아요. 보통 아동 복지팀이나 청소년팀이라고 있는데, 아동 복지팀같은 경우는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니세프에서 말하는 일반 아동이 아닌 거예요. 청소년팀의 경우 청소년은 또 아동하고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유니세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전담기구가 아니라고 보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담 기구가 이렇게 있으면서 또 구청에서 최고 1번 부서이구요”

“저희가 아동친화 도시 인증은 어찌어찌 해서 받았는데 이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니까 겁이 나고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이 사업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는데 군수님이 받아들여 주셔서 전문가를 뽑게 된 거죠”

■ 지역사회 기관과의 민·관 협력을 통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완주군의 경우 아동·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수행은 인증 이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인증 이전부터 종사자 처우 개선이나, 지역 ngo기관 지원 등 충분한 예산을 분배, 지원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다지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NGO단체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주는 거는 저희 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가 세이프 더칠드런에서 공립형 지역 아동 센터를 짓는 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저희 군수님께서 1억을 지원 해 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국적인 사례가 되었어요. 지역 아동 센터를 보자면 저희는 종사자 수당이라든가 처우 개선, 영향 강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미 다 세워서 그런 분들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어요”

이러한 민관 협력관계는 전담공무원들이 유니세프 인증 작업을 하면서 효과를 발휘하였다. 예를 들면 아동영향 평가 및 실태조사와 같은 전문적인 영역들은 지역의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전담 공무원들은 민과 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행정 전문가로써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민간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함께 협력하는 형태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들을 수행하였다. 이는 유니세프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과업 추진에 있어서 정부기관과 NGO들, 학술단체, 아동과 청소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어서 완주군의 이러한 민·관 협력을 통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은 지역의 강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 다 도와 주신 거예요. 아동 실태 조사도 예산도 정말 조금인데 너무 너무 훌륭하게 잘 해주신 거예요. 이 교수님이랑 다른 참여했던 분들이 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자체 혼자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나는 행정가일 뿐이지 전문가는 아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교수님이나 현상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자원을 연계해서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가기 때문에 행정가로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연계를 해서 그분들하고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사회와도 연계가 중요하다. 모든 것을 전문가가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은 뒷받침해주는 역할 밖에 없다”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위한 법제도 구축과 아동영향평가 실시

지자체가 아동과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본 권리를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일련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과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북구의 경우 아동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맨 처음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 법제도를 구축하여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의 근거를 만들었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모든 정책들이 수립 및 집행되는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들을 파악할 수 있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지자체의 정책에 있어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른 부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아동 영향 평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업무 프로듀스가 만들어졌고, 자기들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동 친화 도시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올라 간 상태에 있어요”

또한 성북구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3개년도 중장기 전략추진 계획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저희구의 경우 어린이 친화 도시 전략 과제는 3개년도 계획이에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간에서 좀 많이 보완을 하고 실행을 확실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략 과제가 있고 정책 과제가 있고 그 안에 세부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3단계로 총 7대 과제가 있고, 특별 과제가 2개 있는 형태로 정책을 세운 것은 저희가 처음이죠”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의 인식제고

두 지역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써 자리 잡고 성장하는데 있어서 법과 제도 외에도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인식과 협조가 필요하다. 즉 도시 전체를 아동·청소년 친화적으로 조성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법과 정책을 만들고, 일부의 서비스를 시행하는 차원을 넘어서 도시 전체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 공무원, 지역주민, 아동과 청소년들 모두가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이슈에 동참하고 지지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서 성북구와 완주군은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써의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관련 부서의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저희가 인증 받은 지 3년 이상 되어서 다른 부서 공무원들도 자기들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동 친화 도시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올라 간 상태에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 중에 아동 권리 교육이라고 있는데, 그런 권리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구간부들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구의원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다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식 도 있고”

“군청 내 직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거는 우리랑 마냥 마치 꼭 상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저희하고 의논하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유니세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은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주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의 사업들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협조와 아동 및 청소년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이 긍정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다.

“주민의 30~40%가 인지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았으니까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 최초로 인증 받았기 때문에 아동 정책에 있어서 선도 지자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니세프라는 타이틀을 지역민들은 신선하게 보더라고요. 완주군이 아동 친화 도시라는 지역 이미지, 완주군의 브랜드 가치가 좀 더 높아진 느낌.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지역민들이 완주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서 본다는 그런 게 있어요”

■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는 친화도시

사회 경제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의 삶에 여러 가지 편리함이 생겼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각종 사회적 범죄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폭력이나 범죄와 같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북구와 완주군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개발하고 있다.

“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방과 후 아이들 돌봄에 관심이 많아 그쪽으로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도 되게 관심 있게 추진하는 게 학교 안에서는 학교와 교육부가 학생을 책임을 지고 학교 밖이나 방과 후에는 저희 지역 사회가 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자 식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 군청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역 아동 센터라든가 어린이 집이라든가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교육을 다 하고 있어요. 또 전국에서 2번째로 국민안전보험에 가입해서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아동들까지도 사고가 나면 보험 지원을 받도록 해 봤어요”

3) 아동·청소년 행복증진을 위한 추후계획

■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을 통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체계나 사람들의 행복과 삶을 질을 보장하는 환경적인 조성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성북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이고 산모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전용 보건소 건립을 향후 핵심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보건소 내에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의료

전문인력은 물론 사회복지사를 상주시켜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상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지금 주의 깊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동 전문 보건소를 저희가 거점별로 구성을 해서 아동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동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엄마들끼리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아동의 체계적인 보건 사업들을 추진 할 계획에 있거든요. 산모들은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부터 어떤 커뮤니티를 조직해서 지식을 공유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포함된 통합적인 엄마와 아동간의 관계, 엄마와 엄마와의 관계 같은 사회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건 기관을 설립 할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은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환경적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은 이후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보니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지자체들은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경우 평가에서 보다 높은 가산점을 주거나, 아동·청소년 사업 예산을 지원해주는 등 인증 받은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니세프 인증이 굉장히 까다롭고 업무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어렵게 인증을 받아서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는 거예요. 유니세프가 인증을 했지만 지자체가 노력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힘을 내는데,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으면 나중에도 지자체들도 시들해져서 인증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유니세프로부터 인증 받는 작업들의 내용과 양이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버거운 부분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증 요건을 충족시키는 작업에 치중하

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 외에도 친화도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

“저희가 인증을 빨리 받아야겠다는 마음에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완주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 친화 도시가 무엇이고, 아동 권리와 아동 친화 도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요”

■ 담당 공무원이 제안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을 위한 조건들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에서 오랫동안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을 수행해 온 담당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아동의 인생을 바르게 가르쳐줄 수 있는 멘토’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존중하는 사회’를 제시하였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아동들의 경우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결정을 사회나 부모가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니세프에서 강조하는 아동의 발달과 참여의 권리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이들의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누군가가 꼭 공부가 아니라 인생을 가르쳐 줄 그런 멘토가 필요한 거 같아요. 나보다 최소한 한 2~3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 아니면 5살, 10살 더 먹은 이런 누가 자기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부모가 해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부모는 개인적인 판단과 생각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자체라든지 학교에서 이런 멘토를 발견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을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번에 어린이 의회를 하면서 보니까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고 다 이게 있더라고요. 애들도 다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그게 아이들이 행복해 지는 길이다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러한 행복의 조건이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현실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가 조성이 되고 결과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기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할 경우 담당자들이 기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들이 어느 정도 달성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소결

본 연구는 유니세프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성북구와 완주군을 사례로 이들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인증 과정, 인증을 받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두 지역의 장·단점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증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준비 과정에 있어서 두 지역에 차이점들이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조건이었으며,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담 공무원의 헌신과 책임감, 추진력이 성공적 요인의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고 구체적인 정책 사업들을 실행하는데 기본 틀이 되는 조례 제정, 사업들을 수행하는 전담부서 설치, 지자체의 모든 정책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 부정적인 영향들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아동영향평가 조사 등이 있다.

유니세프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사업은 기본적으로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와 10대 원칙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도시와 지역들을 대상으로 인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 받은 성북구와 완주군청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지자체의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이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아동의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 의회와 기타 조직들을 운영하여 아동과 청소년 스스로 법과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들을 만들고 있었다. 즉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지역사회를 통해 이들이 사회적 보호의 대상에서 사회적 변화를 추진하는 주체의 일부임을 인식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성북구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 및 청소년까지 정책의 영역에 포함, 아동의 안전과 발달, 보호, 참여 등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친화사업들이 특정 계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돌봄이나 교육, 보건 등 지역사회와 다양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사업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제 VII 장

결론 및 제언

1. 주요 결과 요약
2.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지표(안) 제시
3. 미래의 방향: 개선사항

제 VII 장 결론 및 제언

1. 주요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를 만들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방법으로 2014년, 2015년에 이어 3차년도 청소년 행복 지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라북도 완주군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과 관련하여 청소년행복에 대한 이론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높거나 낮은 정서 경험을 한 후 되돌아오는 행복의 평균수준 또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는 ‘행복기준점 이론’, 행복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즐거운 순간의 총합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유전적 기질, 성격, 정서 성향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행복의 상향이론과 하향이론’, 인간의 심리적 반응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행복의 통합적 설명모델’,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목표를 향해 진전되고 있다고 믿을 때 행복하다는 ‘목표이론’, 인간은 자신의 상태를 어떤 기준과 비교하여 그 기준과의 긍정적 차이를 인식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비교이론’, 새로운 변화에 대해 문제해결적 대처를 하고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사람이 행복을 더 느낀다는 ‘적응과 대처이론’ 등 다양한 이론들로 행복을 설명한다. 이들 이론은 대부분 심리학적 측면에 영향을 맞춘 것으로 청소년행복지표의 객관적 측면에 완전히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객관적 환경의 향상과 심리적 측면간의 상관관계가 드러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상당부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복의 통합적 설명모델은 다양한 변인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어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을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행복 관련 영향요인에는

다양한 것이 있으며 정치수준(질), 좋은 정부, 공공정책, 신뢰·규범·사회관계망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자본, 개인의 성격, 건강, 약물남용 등 위험약물, 직업, 취업, 가족구조의 변화(부모의 이혼 등), 사회적지지, 부모양육태도, 주거지 이동 등이 다양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는 아동·청소년의 참여보장,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법체계 구축,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권리 실현 전략 수립, 아동·청소년 정책 조정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영향평가 실시, 아동·청소년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청소년 실태 보고서 작성, 아동·청소년의 권리 홍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수행,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어 관련변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살펴본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행복지표를 주관지표와 객관지표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주관적 지표는 2016년 청소년 행복지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객관지표는 기존 국가통계자료를 통해 파악하였다²⁴⁾. 청소년 행복지표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관지표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가족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이웃(지역사회)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있어 유의미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객관지표의 경우 청소년자살율과 청소년흡연율, 학업중단율은 수치상으로 낮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사회복지지출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지표의 경우 주관지표와 객관지표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고무적이었다. 행복지표의 하위변인별 시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주관지표와 객관지표 전 영역에서 시도별 차이가 고루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행복지표의 요소간 지역간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관지표의 경우 긍정적 지표에서 부산·경남·울산지역이 비교적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던 데 반해 세종·충청·전라 지역이 낮은 점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상황과 관계없이 이 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객관적 지표의 경우 특정 지역에 편포되지 않고 다양하게 순위가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의 하위요인으로 살펴본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즐거움, 편안함, 행복한)**의 시도별 순위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 모두 부산이 가장 높은 점수를 세종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 이 지역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행복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에서는

24) 각각의 지표는 주관지표의 경우 개인차원에서 객관지표는 시·도별 차원에서 파악되어 두 지표를 단일한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주관지표에서 중요성이 대두된 사항을 나타내는 객관지표를 추출함으로써 주관지표와 객관지표가 조화된 청소년 행복지표(안)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행복의 하위요인을 인지적 행복(삶의 만족도), 정서적 행복(긍정적 정서)으로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인지적 행복(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영역별로 인구학적 특성(학업성적), 관계 영역(가족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인간관계만족도), 주관적 웰빙 영역(부정적 정서, 유데모니아, 외향적인 성격), 건강 영역(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건강만족도), 교육 영역(교과과정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안전영역(학교시설안전도, 위기상황대처능력, 생활안전만족도), 활동영역(놀이친구접근성, 여가활동시간만족도, 청소년활동만족도), 참여영역(징계소명권,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학생참여권만족도), 환경영역(지역사회유해환경인지도, 지역사회환경만족도), 경제영역(가정경제수준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으로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 방향으로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서적 행복(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구학적 특성(성별, 학업성적), 관계 영역(가족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사적대인신뢰, 정부조직신뢰, 가족간의 대화시간, 인간관계만족도), 주관적 웰빙 영역(부정적 정서, 유데모니아), 건강 영역(스트레스 정도, 고카페인이용량), 교육 영역(학교생활만족도, 생활안전만족도), 활동 영역(여가활동시간만족도, 여가활동공간만족도, 여가활동용돈만족도, 청소년활동만족도), 참여영역(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지표는 인지적 행복(삶의 만족도)의 64.5%, 정서적 행복(긍정적 정서)의 59.4%를 설명하고 있어 행복지표가 청소년행복의 상당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본 **아동친화도시 예측요인**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 실무자의 관심과 의지,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정책실행, 지역 아동 전체를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 방과후돌봄서비스의 확대, 아동·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 권리 증진, 아동·청소년 정책을 위한 담당부서 설치와 민간 전문가 영입 등이었기 때문이다.

2.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지표(안) 제시

위에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지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관지표 오른쪽에는 회귀계수를 바탕으로 산정한 가산점이 제시되어 있으며 가산점이 높을수록 행복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VII-1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중요지표(안)

2016년 설문조사 주관적 지표(가산점)		아동친화도시 전문가 심층면접	객관지표
인구학적 특성	성별(1) 학업성적(1)	아동 · 청소년 친화도시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 실무자의 관심과 의지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정책실행 지역 아동 전체를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 여부 방과후돌봄서비스의 확대 아동 ·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 권리 증진 아동 · 청소년 정책을 위한 담당부서 설치 민관협력 수준 등	
관계 영역	가족관계만족도(2) 교우관계만족도(2) 교사관계만족도(1) 사적대인신뢰(1) 정부조직신뢰(1) 가족간의대화시간(1) 인간관계만족도(2)		
주관적 웰빙 영역	부정적정서(2) 유대모니아(4) 성격특성_외향적인(1)		
건강 영역	주관적건강상태(1) 스트레스정도(1) 고카페인이용량(2) 건강만족도(2)		청소년비만율(BMI) 청소년자살률 평균운동시간 평균수면시간 청소년흡연율 청소년음주율 인터넷중독률
교육 영역	교과과정만족도(1) 학교생활만족도(3)		학업중단율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학업성취도 사교육비 지출액
안전 영역	학교시설안전도(1) 위기상황대처능력(1) 생활안전만족도(1)		청소년교통사상률 청소년안전사고사망률 청소년범죄피해율 아동학대피해경험률 학교폭력발생률
활동 영역	놀이친구접근성(1) 여가활동시간만족도(2) 여가활동용돈만족도(1) 청소년활동만족도(1)		문화예술활동참여율 문화여가지출비용 동아리활동참여율 문화예술시설비용 청소년활동시설비용 청소년지도사비용
참여 영역	징계소명권(1) 소수집단에대한관용적태도준중(1) 학생대표의운영위참여기회(1) 학생참여권만족도(2)		자원봉사참여율
환경 영역	지역사회유해환경인지도(1) 지역사회환경만족도(1)		통학소요시간 녹지접근성
경제 영역	가정경제수준만족도(1)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합계			

3. 미래의 방향: 개선사항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행복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⁵⁾.

■ 성별 맞춤형 정서적 행복 증진 프로그램 실시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의 정서적 행복(긍정적 정서)이 낮아 성별에 따른 정서적 행복 증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남자 청소년의 정서적 행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 학업부담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 실시

흥미로운 연구결과는 학업성적은 인지적 행복(삶의 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정서적 행복(긍정적 정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지속적이고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행복에는 높은 학업성적이 기여하지만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행복에는 높은 성적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업성적의 양면적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높은 성적을 나타내는 청소년이 인지적으로는 만족하나 감정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학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가족관계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청소년에게 가족관계만족도는 인지적 행복은 물론 정서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인 것으로 분석 결과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부모관계만족도는 인지적 행복과 정서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관계만족도의 영향력이 부모관계만족도의 영향력을 상쇄시켜 효과가 희석된 결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가족관계만족도를 향상시키기

25) 분석 결과, 주관지표의 경우 안전 영역, 활동 영역, 참여 영역, 환경 영역, 경제 영역, 인구학적 특성, 관계 영역, 주관적 웰빙 영역, 건강 영역, 교육 영역 전반의 지표들이 범죄안전도, 도시규모, 아버지학력을 제외하고는 인지적 행복인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행복인 긍정적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지표를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예측 지표로 활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위주로 지역사회 행복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가족구성원, 부모는 물론 형제자매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기회를 제공하거나 이들을 위한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교우관계 개선 및 또래관계 부담 해소를 위한 학교,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

교우관계만족도의 경우 교우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행복은 높아지나 인지적 행복은 낮아진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또래와의 관계가 청소년에게 감정적으로는 행복의 요소이나 인지적으로는 고민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측면을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청소년기의 또래관계가 중요한 만큼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과 높은 기여는 청소년에게 동시에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또래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적 어려움으로 인해 밀착된 또래관계가 오히려 인지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학교, 가정, 지역사회 차원에서 교우관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또래관계에 대해 보다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 정서 지원은 물론 또래관계 이외에 관심을 두고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교사관계에 대한 부담 해소를 위한 노력

교우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사관계만족도 또한 청소년의 인지적 행복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청소년에게 교사관계에 대한 몰입, 관심이 스트레스와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교사관계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사적대인신뢰 개선을 위한 지원

부모님, 친구들, 학교 선생님, 이웃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살펴본 사적대인신뢰와 관련하여 사적대인신뢰가 높을수록 정서적 행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전반에서 청소년의 부모님, 친구들, 학교 선생님, 이웃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가까운 어른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는 물론 청소년이 자주 접하는 어른들 스스로 신뢰감을 갖고 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조직신뢰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지방정부, 국가차원의 노력

지역사회 전문기관(공공), 지방정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일컫는 정부조직신뢰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정서적 행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정치의식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전의 학교, 또래, 가정만의 관계에 집중하던 청소년들과 달리 사회의 현상, 사회의 문제, 공공차원의 기관, 정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정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청소년의 정서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신뢰 향상은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공기관,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나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 캠페인,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보여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가족간의 대화시간 확대를 위한 체계적 노력

가족간의 대화시간은 정서적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심각한 사교육열풍, 부모들의 취업난, 업무시간 연장 등으로 가족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가족간의 대화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업 등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요일 가족대화의 날을 보다 확대하여 부모들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사교육과 관련해서도 일요일에는 사교육을 일찍 끝내거나 받지 않고 일찍 가정으로 돌아감으로써 가족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는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공동활동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주 개최하여 가족들이 함께 활동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간관계만족도

인간관계만족도는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만족도를 포괄하는 개념임에도 여전히 인지적 행복과 정서적 행복에 중요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이 드러났다. 위에서 교우관계만족도와 교사관계만족도가 행복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인간관계만족도의 영향으로 결과가 희석되었거나 인간관계만족도와 다른 측면의 특성이 부각된 결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전반적인

인간관계만족도는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적 행복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전반적 인간관계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함은 물론 청소년이 접하는 지역사회, 학교, 관공서, 학교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청소년에게 긍정적 경험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부정적 정서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처 또는 해소프로그램 제공

생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는 당연한 경험이지만 하나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청소년의 정서,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우울감, 슬픔 등 일시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이나 이러한 감정이 만성화되거나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부정적 감정을 환기시키고 긍정적 또는 중립적 감정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긍정적 자극과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상담, 다양한 청소년활동서비스, 청소년대상 캠페인,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가활동 기회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유데모니아

유데모니아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말하며 인지적 행복과 정서적 행복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석결과 드러났다.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접하는 다양한 환경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미래에 대해 낙관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자극과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래계획, 진로, 진학은 물론 자신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인지적 행복은 물론 정서적 행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학업, 또래, 교사, 가족관련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을 실시함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지나친 경쟁강요, 성취압박 등 불합리하고 지나친 스트레스를 경험 할 수 있는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건강만족도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청소년은 건강만족도가 높다고 느낄 때 인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건강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건강검진, 체력단련 프로그램, 식습관 조절 프로그램, 지속적인 운동 및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교과과정만족도 향상을 위한 청소년욕구반영 및 교과과정 개선

교과과정만족도가 높을수록 인지적 행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청소년이 교과과정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여 교과과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이 스스로가 원하는 교과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학교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

학교생활만족도는 청소년의 인지적 행복은 물론 정서적 행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관계, 또래관계에 대한 지원은 물론 위에서 살펴본 교과과정에 대한 개선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나치게 입시위주의 학교커리큘럼 운영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취미활동, 적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보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생활안전만족도를 높이되 청소년의 흥미를 지나치게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지양

생활안전만족도가 높을수록 인지적 행복과 정서적 행복이 높아진데 반해 학교시설안전도와 위기상황대처능력은 인지적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한편으로 지나치게 학교시설안전과 위기상황대처를 강조하는 최근의 현황이 청소년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

하겠다. 전반적인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은 관리하되 지나치게 안전을 강조하여 학교시설을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청소년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단기간에 지나치게 주입하여 청소년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 청소년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와 시간 제공

청소년들은 여가활동시간과 청소년활동에 만족할수록 인지적 행복과 정서적 행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영유하기 위해 다양한 여가활동시간을 부여함은 물론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놀이친구 접근성의 경우 인지적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또래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밀착된 친구관계가 청소년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이 결과에서도 드러난 것이 아닌가 예측해 볼 수 있다.

■ 청소년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의 학생참여권 보장

참여영역과 관련하여 학생참여권 만족도는 인지적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데 반해 징계소명권,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는 청소년의 인지적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참여권에 대해 적절한 수준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되 지나친 참여를 강요하거나 소수집단에 대해 단기적으로 관용적 태도를 가지도록 강요, 주입하는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지역사회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지역사회환경만족도는 인지적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사회 유해환경인지도는 인지적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지역사회 차원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사회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가정경제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청소년은 가정경제수준에 만족할수록 인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은 부모의 학력, 직업은 물론 지역사회, 실업률, 취업률, 소득불평등도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가정경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에서 살펴본 사항 등을 개선함은 물론 기초생활수급대상의 경우 지역사회,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청소년행복도시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 경주

아동친화도시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센터를 허브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장과 실무추진체계가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경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아동의 3대 권리에 기반한 정책을 실행하며 전 구의 정책을 기획함에 있어 아동의 4대 권리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 전반에 있어 아동친화적 측면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었다. 아동·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보다 효율적인 청소년행복도시 추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가 가능하게 된 만큼,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을 벤치마킹하여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 설치

지자체가 아동과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근거기반이 되는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유니세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제도 구축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친화도시 사업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또는 교육 및 복지 사업을 전담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아동과 관련된 부서는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나 보육사업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 보건 등 포괄적인 사업들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개설, 사업수행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아동·청소년 권리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의 의무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의 핵심은 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지자체의 사업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을 고려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특히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대 권리에 대한 이해와 권리를 존중하는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인식개선 교육을 공무원 보수교육 등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민간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친화사업 구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들과의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통합적인 사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의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 학교 내 안전권 보장 등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청과의 연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보육기관, 병원 및 보건소, 사회복지 및 NGO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과 복지, 의료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네트워크의 허브로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아동·청소년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들은 많은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조사를 설계하고, 자료 수집 및 분석하는 업무나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은 아동복지나 NGO활동 경험이 있는 현장의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구체적인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전담 공무원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 권석만(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김승현(2008).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2(2), 67-76.
- 김용수, 정건희, 홍문기 (2015). **완주군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정책과제**, 완주군.
- 김지경, 김옥태, 하현주(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지역사회 진단·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세경 (2016).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유럽 주요 도시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33호, pp. 62-72.
- 보건복지부(20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 성북구청(2015a). **민선5기 구정백서**. 서울: 성북구.
- 성북구청(2015b). **성북구 사회조사지표 보고서**. 서울: 성북구.
- 성북구청(2015c). **아동권리 접근방법 활용한 아동친화예산서**. 서울: 성북구.
- 성북구청(2016). **아동친화도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서울시 출입기자단 정책 브리핑**.
- 성윤숙, 홍성효(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I: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5). **2015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통계청(2015). **2015 한국의사회지표**. 대전: 통계청.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홍승애, 이재연 (2011).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아동학회지**, 32(2), pp. 53-70.
- 홍영호, 연성진(2014). **청소년 대상 범죄 피해 조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외국 문헌〉

- Aspinwall, L. G., & Brunhart, S. M. (2000). What I do know won't hurt me: Optimism, attention to negative information, coping, and health.
- Austin, J. T., & Vancouver, J. B. (1996). Goal constructs in psychology: Structure, process, and content. *Psychological bulletin*, 120(3), 338.
- Butler, A. C., Chapman, J. E., Forman, E. M., & Beck, A. T. (2006). The empirical status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y: a review of meta-analys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1), 17-31.
- Chapple, S. (2010). Subjective Well-being and Social Policy. European Commission.
- Creed, P. A., & Patton, W. (2003). Predicting two components of career maturity in school based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9(4), 277-290.
- Crocker, J., Alloy, L. B., & Kayne, N. T. (1988). Attributional style, depression, and perceptions of consensus for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40.
- Demo, D. H., & Acock, A. C. (1996). Singlehood, marriage, and remarriage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relationships on mothers'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388-407.
- Diener, E., & Lucas, R. E. (1999). 11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Well-being: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213.
- Kahneman, D., Diener, E., & Schwarz, N. (Eds.). (1999). *Well-being: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Russell Sage Foundation.
- Layard, R. (2005). Mental health: Britain's biggest social problem?.
- Lykken, D. (1999). *Happiness: What studies on twins show us about nature, nurture, and the happiness set-point*. Golden Books.
- Lyubomirsky, S., & Ross, L. (1997). Hedonic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 a contrast of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6), 1141.
- Lyubomirsky, S., Sheldon, K. M., & Schkade, D. (2005). Pursuing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2), 111.

- Maslow, A. H., Frager, R., & Cox, R.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Vol. 2, pp. 1887–1904). J. Fadiman, & C. McReynolds (Eds.). New York: Harper & Row.
- Michalos, A. C. (1985). Multiple discrepancies theory (MD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4), 347–413.
- Ng, Y. (2008). Happiness Studies: Ways to Improve Comparability and Some Public Policy Implications. *Economic Record*, 84(265), 253–266.
- Ott, J. C. (2009). Good Governance and Happiness in Nations: Technical Quality Precedes Democracy and Quality Beats Siz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3), 353–368.
- Proctor, C. L., Linley, P. A., & Maltby, J. (2009).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5), 583–630.
- Suldo, S. M., & Huebner, E. S. (2004). Does life satisfaction moderate the effects of stressful life events on psychopathological behavior during adolescence?.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9(2), 93.
- UNICEF (1996). *Toward Child Friendly Cities*. New York: UNICEF.
- UNICEF (2009). *Child Friendly Cities*. New York: UNICEF.
- Wilson, M.(1967). *The theory of island biogeography*. Monographs in Population Biology,
- Yip, W., Subramanian, S. V., Mitchell, A. D., Lee, D. T. S., Wang, J., & Kawachi, I. (2007). Does social capital enhance health and well-being? Evidence from rural China. *Social Science & Medicine*, 64(1), 35–49.

〈인터넷 문헌〉

UNICEF 홈페이지. <http://www.unicef.or.kr>.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교통사고분석시스템. <http://taas.koroad.or.kr>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성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ngbuk.go.kr/sb_new/main/main.jsp.

완주군청 홈페이지. <http://www.wanju.go.kr>.

지방재정 365. <http://lofin.moi.go.kr>



부 록

【부록 1】 설문지

【부록 2】 아동친화도시 전문가 심층면접 주제영역 및 내용(안)

【부록 3】 객관지표 통계자료

【부록 1】 설문지

조사
ID

41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Gallup 2016-163-00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초등)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아동,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학교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조사원)이 기입합니다.

학 교 코 드						
학 교 명						
학 교 소재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설 립 유 형	1. 국립	2. 공립	3. 사립			
학 년 / 반	()학년		()반			
반 내 학생 수	전 체	전체 ()명	남 ()명	여 ()명		
	조사 완료	전체 ()명	남 ()명	여 ()명		

발 주 기 관

조 사 기 관

 국무총리산하국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GALLUP KOREA

■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장은혜 선임 || ☎ 02-3702-2119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매우 즐겁기 때문에 ⑤번을 선택합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 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문항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문항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 3〉

배경문항 9. 학생은 종교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없다

② 있다 ➡ 있다면 「배경문항 9-1」로 가십시오

☞ 나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②번을 선택하고, 배경문항 9-1번으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PART 1. 주관적 웰빙 영역 – 다음은 학생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1.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문2. 학생은 **최근** 다음과 같은 감정들을 느끼셨습니까?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내가 느낀 기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거의 느끼지 못했다	보통이다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
(1) 즐거운	①	②	③	④	⑤
(2) 편안한	①	②	③	④	⑤
(3) 불안한	①	②	③	④	⑤
(4) 슬픈	①	②	③	④	⑤
(5) 우울한	①	②	③	④	⑤
(6) 행복한	①	②	③	④	⑤

- 문3.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밝다고(낙관적)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4. 다음은 개인의 성격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향적인(다른 사람과 쉽게 잘 어울리는)	①	②	③	④	⑤
(2) 걱정이 많은	①	②	③	④	⑤

PART II. 관계 영역 - 다음은 학생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5. 학생의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 통 → 매우 만족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문6.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평소에 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동네 이웃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7. 다음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	①	②	③	④	⑤
(2) 친구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4) 이웃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5) 처음 만난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나라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⑤
(8)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⑤
(9)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①	②	③	④	⑤
(10)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①	②	③	④	⑤

문8.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사회 전문기관 을 믿을 수 있다 (예: 국공립 도서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①	②	③	④	⑤
(2) 지방정부 를 믿을 수 있다 (예: 시청, 도청, 군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	①	②	③	④	⑤
(3) 중앙정부 를 믿을 수 있다 (예: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①	②	③	④	⑤

문9. 학생은 **하루 평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① 없음 ② 30분 미만 ③ 30분 이상~1시간 미만
④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문10. 학생은 **일주일 평균** 수업시간 외에 담임선생님과 몇 회 면담 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문11. 학생은 방과 후 **하루 평균**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① 없음 ② 30분 미만 ③ 30분 이상~1시간 미만
④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PART III. 건강 영역 - 다음은 학생의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2. 또래에 비해 학생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3.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신체적으로 (몸이)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1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먹지 않는다	적게 먹는다	적당히 먹는다	많이 먹는다	매우 많이 먹는다
나는 고카페인 음료(예: 콜라나 커피, 핫식스, 박카스 등)를 마신다	①	②	③	④	⑤

문15. 학생은 평소 일주일에 며칠 아침 식사를 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 | | |
|------|------|------|
| ① 0일 | ② 1일 | ③ 2일 |
| ④ 3일 | ⑤ 4일 | ⑥ 5일 |
| ⑦ 6일 | ⑧ 7일 | |

문16. 학생은 질병(감기, 배탈, 몸살 등은 질병에서 제외)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 있다면 「문16-1」로 가십시오

문16-1. 학생의 질병에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 ① 선천적 질병(태어날 때부터 자니고 있는 질병) ② 후천적 질병(태어난 후 얻어진 질병)

PART IV. 교육 영역 - 다음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7.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8.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배우거나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학교의 교과과정(수업내용)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학교의 진로교육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 안전 영역 - 다음은 학생의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19. 학생은 평소 생활전반의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문20.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내가 쓰는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기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동네에서 밤중에 혼자 걸을 때나 공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무서운 사람이나 나쁜 어른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생활주변(학교, 집근처)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I. 참여 영역 - 다음은 학생의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21.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나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이 벌 받기 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바꿀 때,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학생 대표(학생회장, 반장, 부반장)가 우리를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II. 활동 영역 – 다음은 학생의 활동(놀이, 여가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3. 학생은 전반적으로 청소년 활동(놀이, 여가 등)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에는 내가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놀고, 쉬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용돈을 충분히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동네에는 내가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III. 경제 영역 – 다음은 학생의 경제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25. 학생의 전반적인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PART IX. 환경 영역 – 다음은 학생의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26.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문27.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동네는 각종 유해환경(유해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 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집은 내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문28. 학생이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① 자가(부모 등 가족소유) ② 전세 ③ 월세(보증금 있음)
④ 월세(보증금 없음) ⑤ 무상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⑦ 모름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학생은 몇 년도 몇 월에 태어났습니까?

--	--	--	--

년

--	--

월

배경문항 3. 학생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시(도) _____구(군) _____동(읍/면)

배경문항 4.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를 해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예) 시집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은 표시합니다.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⑩ 없음

배경문항 5.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경문항 6.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부모님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①	②
(2) 어머니	①	①	②

배경문항 7. 학생의 학업 성적(2016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경문항 8. 학생은 어느 수준까지 교육 받기를 원합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① 고등학교 졸업
- ② 2-3년제 대학 졸업
- ③ 4년제 대학 졸업
- ④ 석사 졸업
- ⑤ 박사 졸업

배경문항 9. 학생은 종교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없다

② 있다 → 있다면 「배경문항 9-1」로 가십시오

배경문항 9-1. 학생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개신교(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
ID

42

Gallup 2016-163-00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중·고등)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아동,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학교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조사원)이 기입합니다.

학 교 코 드					
학 교 명					
학 교 소재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학 교 구 분	1. 중학교	2. 고등학교			
설 립 유 형	1. 국립	2. 공립	3. 사립		
고등학교 구분 * 고등학교만 기입	1. 일반	2. 자율	3. 특성화	4. 특수목적	
학 교 유 형	1. 남학교	2. 여학교	3. 남녀 공학		
학 년 / 반	()학년		()반		
반 유 형	1. 남학생 반	2. 여학생 반	3. 남녀 합반		
반 내 학생 수	전 체	전체 ()명	남 ()명	여 ()명	
	조사 완료	전체 ()명	남 ()명	여 ()명	

발 주 기 관

조 사 기 관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매우 즐겁기 때문에 ⑤번을 선택합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문항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문항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배경문항 9. 학생은 종교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없다

② 있다 ➡ 있다면 「배경문항 9-1」로 가십시오

☞ 나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②번을 선택하고, 배경문항 9-1번으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PART 1. 주관적 웰빙 영역 - 다음은 학생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1.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문2. 학생은 **최근** 다음과 같은 감정들을 느끼셨습니까?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내가 느낀 기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거의 느끼지 못했다	보통이다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
(1) 즐거운	①	②	③	④	⑤
(2) 편안한	①	②	③	④	⑤
(3) 불안한	①	②	③	④	⑤
(4) 슬픈	①	②	③	④	⑤
(5) 우울한	①	②	③	④	⑤
(6) 행복한	①	②	③	④	⑤

- 문3.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밝다고(낙관적)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문4. 다음은 개인의 성격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향적인(다른 사람과 쉽게 잘 어울리는)	①	②	③	④	⑤
(2) 걱정이 많은	①	②	③	④	⑤

PART II. 관계 영역 - 다음은 학생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5. 학생의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문6.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평소에 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동네 이웃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 문7. 다음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	①	②	③	④	⑤
(2) 친구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4) 이웃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5) 처음 만난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나라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⑤
(8)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⑤
(9)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①	②	③	④	⑤
(10) 신문,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	①	②	③	④	⑤

PART III. 건강 영역 – 다음은 학생의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2. 또래에 비해 학생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3.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신체적으로 (몸이)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1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먹지 않는다	적게 먹는다	적당히 먹는다	많이 먹는다	매우 많이 먹는다
나는 고카페인 음료(예: 콜라나 커피, 핫식스, 박카스 등)를 마신다	①	②	③	④	⑤

문15. 학생은 평소 일주일에 며칠 아침 식사를 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① 0일 ② 1일 ③ 2일
④ 3일 ⑤ 4일 ⑥ 5일
⑦ 6일 ⑧ 7일

문16. 학생은 질병(감기, 배탈, 몸살 등은 질병에서 제외)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 있다면 「문16-1」로 가십시오

문16-1. 학생의 질병에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 ① 선천적 질병(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② 후천적 질병(태어난 후 얻어진 질병)
있는 질병)

PART IV. 교육 영역 - 다음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7.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8.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배우거나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학교의 교과과정(수업내용)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학교의 진로교육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 안전 영역 - 다음은 학생의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9. 학생은 평소 생활전반의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0.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내가 쓰는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기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동네에서 밤중에 혼자 걸을 때나 공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무서운 사람이나 나쁜 어른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생활주변(학교, 집근처)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I. 참여 영역 - 다음은 학생의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1.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이 벌 받기 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바꿀 때,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학생 대표(학생회장, 반장, 부반장)가 우리를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II. 활동 영역 - 다음은 학생의 활동(놀이, 여가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23. 학생은 전반적으로 청소년 활동(놀이, 여가 등)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문2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에는 내가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놀고, 쉬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용돈을 충분히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동네에는 내가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III. 경제 영역 - 다음은 학생의 경제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25. 학생의 전반적인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PART IX. 환경 영역 – 다음은 학생의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26.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문27.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동네는 각종 유해환경(유해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 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집은 내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문28. 학생이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① 자가(부모 등 가족소유) ② 전세 ③ 월세(보증금 있음)
 ④ 월세(보증금 없음) ⑤ 무상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⑦ 모름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학생은 몇 년도 몇 월에 태어났습니까?

				년
--	--	--	--	---

		월
--	--	---

배경문항 3. 학생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시(도) _____구(군) _____동(읍/면)

배경문항 4.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를 해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예) 시집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은 표시합니다.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⑩ 없음

배경문항 5.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골라 ○표시를 해주시시오.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경문항 6.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시시오.

	부모님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①	②
(2) 어머니	①	①	②

배경문항 7. 학생의 학업 성적(2016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시시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경문항 8. 학생은 어느 수준까지 교육 받기를 원합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시시오.

- ① 고등학교 졸업
- ② 2-3년제 대학 졸업
- ③ 4년제 대학 졸업
- ④ 석사 졸업
- ⑤ 박사 졸업

배경문항 9. 학생은 종교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없다

② 있다 → 있다면 **「배경문항 9-1」로 가십시오**

배경문항 9-1. 학생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개신교(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아동친화도시 전문가 심층면접 주제영역 및 내용(안)

아동친화도시 전문가 심층면접

1. 지역현황 분석

- 1) 지역적 특성: 역사, 문화, 경제 등
- 2) 지역주민의 인구학적(청소년 포함) 특성
- 3) 지역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전달체계 및 담당 인력, 예산 등

2.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항

- 1) 아동친화도시 인증 작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이유)는 무엇입니까?
- 2) UNICEF로부터 언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선정) 되었습니까?
- 3) 왜 우리 지역이 UNICEF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4) 아동친화적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은 어떠했습니까?
 - 지자체장의 관심
 -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관심/태도
 -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태도

(5) 아동친화도시 선정 후 좋은 점은?

(6) 아동친화도시 선정 후 어려운 점은?

(7) 사회관계, 주관적 웰빙, 건강, 교육, 안전, 활동, 참여, 환경, 경제 분야에서 귀하의 지자체가 타 지자체에 비해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만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3. 향후 발전 방안

1) 지역 아동·청소년의 행복수준과 지역 아동·청소년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또는 귀하의 지자체)가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3】 객관지표 통계자료

3-1-1 청소년 비만률(BMI) (2015)

(단위: %)

시도	남학생	여학생	청소년(중1~고3)전체
서울	14.3	6.9	10.7
부산	16.3	6.8	11.8
대구	14.8	5.5	10.4
광주	13.5	6.5	10.1
인천	15.6	7.2	11.5
대전	13.1	6.3	9.9
울산	14.8	6.9	11.1
세종	14.5	6.7	10.6
경기	12.4	6.6	9.6
강원	15.2	9.4	12.4
충북	16.0	10.4	13.3
충남	15.6	8.2	12.1
전북	14.6	7.6	11.3
전남	14.8	9.4	12.2
경북	15.5	9.2	12.6
경남	14.1	7.4	10.9
제주	15.8	9.7	12.9
전국	14.2	7.3	10.9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192-195면.

주1)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인 사람의 분율

2) 체질량지수(BMI)=체중(kg)/[신장(m)](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3) 청소년(중1~고3)전체

3-1-2 청소년 자살률 (2015)

(단위: 명)

시도	10~24세 청소년 자살 인원	10~24세 청소년 인구	청소년자살률 (10만명당)
서울	124	1,708,918.5	7.3
부산	51	598,656	8.5
대구	36	477,651.0	7.5
광주	21	312,914	6.7
인천	47	542,445.5	8.7
대전	21	302,743.5	6.9
울산	15	229,192	6.5
세종	1	30,350	3.3
경기	162	2,361,529	6.9
강원	20	278,436	7.2
충북	31	289,566.0	10.7
충남	42	359,773	11.7
전북	27	345,563.0	7.8
전남	27	331,823	8.1
경북	37	452,133.0	8.2
경남	36	608,668.0	5.9
제주	10	119,167.0	8.4
전국	708	9,349,525	7.6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2에서 2016년 10월 5일
인출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2015년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6년 10월 5일 인출

주1)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한 청소년의 비율

2) 청소년 자살률 = (10-24세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 / 10-24세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김지경, 김옥태, 하한주, 2014)

3-1-3 평균운동시간(2015)

(단위: %)

시도	남학생	여학생	청소년(중1~고3)전체
서울	22.0	8.2	15.3
부산	20.0	7.5	14.1
대구	19.9	9.3	14.9
광주	19.6	5.2	12.6
인천	19.5	7.5	13.7
대전	19.3	6.9	13.3
울산	19.6	6.3	13.3
세종	26.9	8.1	17.6
경기	21.2	7.0	14.4
강원	17.7	7.4	12.8
충북	19.0	5.9	12.8
충남	18.1	6.8	12.7
전북	18.3	5.9	12.4
전남	22.5	8.1	15.6
경북	20.4	6.7	14.0
경남	20.4	8.7	14.9
제주	19.6	7.4	13.8
전국	20.5	7.4	14.2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140-143면.

주1) 최근 7일 동안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비율(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2) 청소년(중1~고3)전체

3-1-4 평균수면시간(2015)

(단위: 시간)

시도	남학생	여학생	청소년(중1~고3)전체
서울	6.4	5.9	6.1
부산	6.6	6.0	6.3
대구	6.5	6.1	6.3
광주	6.5	6.1	6.3
인천	6.7	6.3	6.5
대전	6.4	5.8	6.1
울산	6.4	6.1	6.2
세종	6.9	6.3	6.6
경기	6.9	6.3	6.6
강원	6.8	6.3	6.6
충북	6.7	6.2	6.5
충남	6.7	6.3	6.5
전북	6.7	6.3	6.5
전남	6.6	6.2	6.4
경북	6.5	6.1	6.3
경남	6.7	6.3	6.5
제주	6.8	6.4	6.6
전국	6.6	6.2	6.4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244-247면.

주1) 지난주 주중(월~금요일) 수면시간의 평균

2) 청소년(중1~고3)전체

3-1-5 청소년 흡연율(2015)

(단위: %)

시도	남학생	여학생	청소년(중1~고3)전체
서울	10.7	3.0	7.0
부산	9.9	3.7	7.0
대구	12.3	1.9	7.4
광주	14.4	5.5	10.1
인천	11.2	3.1	7.3
대전	11.3	2.4	7.0
울산	14.7	4.1	9.7
세종	10.8	2.2	6.6
경기	12.1	3.7	8.1
강원	13.7	2.3	8.3
충북	13.7	3.9	9.0
충남	12.0	3.9	8.1
전북	12.5	4.5	8.7
전남	12.2	1.0	6.9
경북	12.8	1.5	7.5
경남	11.1	2.4	7.0
제주	14.2	2.5	8.6
전국	11.9	3.2	7.8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36~39면.

주1)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2) 청소년(중1~고3)전체

3-1-6 청소년 음주율(2015)

(단위: %)

시도	남학생	여학생	청소년(중1~고3)전체
서울	18.0	11.5	14.9
부산	20.3	14.6	17.6
대구	20.1	12.8	16.7
광주	20.7	12.4	16.7
인천	18.4	11.5	15.0
대전	19.9	10.5	15.4
울산	21.8	14.4	18.3
세종	23.0	11.5	17.3
경기	20.4	14.0	17.3
강원	19.6	12.5	16.2
충북	22.4	16.6	19.6
충남	23.0	15.4	19.4
전북	20.1	16.8	18.5
전남	18.8	9.7	14.4
경북	22.0	11.9	17.3
경남	20.6	14.0	17.5
제주	16.4	8.6	12.7
전국	20.0	13.1	16.7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98-101면.

주1) 현재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2) 청소년(중1~고3)전체

3-1-7 인터넷 중독률(2014)

(단위: %)

구분	인터넷 중독률
전국	12.5
서울	14.9
부산	21.7
대구	4.4
인천	9.9
광주	12.1
대전	16
울산	17.9
세종	12.1
경기	11.8
강원	7.3
충북	6.9
충남	6.7
전북	10.7
전남	11.4
경북	12.9
경남	15
제주	5.4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원자료.(성윤숙, 홍성호, 2015 재인용).

주1) 인터넷 사용자 중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비율

3-2-1 학업중단율(2015)

(단위: 명, %)

시도	초등	중등	고등				학업중단 학생수	초종고 학생수	학업 중단율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 목적고			
서울	4,696	2,981	3,291	448	829	139	12,384	1,022,447	1.21
부산	686	670	760	62	661	86	2,925	359,076	0.81
대구	394	374	408	116	554	102	1,948	305,764	0.64
광주	232	297	667	30	181	25	1,432	212,362	0.67
인천	620	559	725	58	483	36	2,481	345,200	0.72
대전	670	441	382	63	286	89	1,931	200,277	0.96
울산	223	203	243	21	202	30	922	151,314	0.61
세종	56	37	48	11	15	4	171	24,366	0.70
경기	5,045	3,650	5,261	143	1,189	122	15,410	1,587,723	0.97
강원	297	278	406	1	369	17	1,368	181,323	0.75
충북	269	272	401	25	403	33	1,403	192,224	0.73
충남	349	384	587	64	301	49	1,734	254,270	0.68
전북	282	308	593	11	282	43	1,519	234,248	0.65
전남	206	288	457	55	446	37	1,489	221,581	0.67
경북	265	364	644	46	404	42	1,765	297,562	0.59
경남	487	476	884	129	352	36	2,364	415,891	0.57
제주	109	120	194	4	52	4	483	83,199	0.58
전국	14,886	11,702	15,951	1,287	7,009	894	51,729	6,088,827	0.85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에서 2016년 9월 27일 인출.

주1)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유예, 면제, 자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요청 또는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수(사망, 자살 제외)(김지경, 김옥태, 하한주, 2014)

2) 학업중단률=(학업중단 학생수/학생수) ×100

3-2-2 학교급별 학생수(2016)

(단위: 명)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초~고)
서울	23.4	26.6	29.7	26.57
부산	22.0	26.9	27.4	25.43
대구	22.6	26.4	30.2	26.40
광주	22.4	27.8	33.0	27.73
인천	23.0	28.7	28.4	26.70
대전	21.7	28.6	30.8	27.03
울산	22.8	27.1	30.6	26.83
세종	21.6	22.5	23.3	22.47
경기	25.0	29.7	30.1	28.27
강원	17.9	24.8	28.1	23.60
충북	19.7	25.9	29.7	25.10
충남	20.4	26.9	29.4	25.57
전북	19.3	27.4	28.2	24.97
전남	18.6	24.8	26.6	23.33
경북	20.5	24.0	27.0	23.83
경남	21.2	27.9	29.2	26.10
제주	22.0	28.4	32.2	27.53
전국	22.4	27.4	29.3	26.37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2016),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4&tblId=DT_1963003_002&com_path=30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주1) 학급 수 대비 학생 수

2)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학생수/학급수

3) 전체(초~고)는 시도별 초,중,고 값의 평균

3-2-3 학업성취도(2014)

(단위: %)

시도	중학생 학업 보통이상				고등학생 학업 보통이상				중 · 고등학생 학업 보통이상			
	국어	수학	영어	전체	국어	수학	영어	전체	국어	수학	영어	전체
서울	86.2	68.9	76.5	77.2	81.6	80.0	80.4	80.7	83.9	74.5	78.5	79.0
부산	88.9	71.5	78.8	79.7	91.0	89.8	89.3	90.0	90.0	80.7	84.1	84.9
대구	90.1	73.5	80.2	81.3	91.9	89.9	90.6	90.8	91.0	81.7	85.4	86.1
인천	90.4	69.0	77.8	79.1	89.9	89.1	88.9	89.3	90.2	79.1	83.4	84.2
광주	84.5	67.3	75.2	75.7	92.0	89.6	90.5	90.7	88.3	78.5	82.9	83.2
대전	88.8	70.0	77.6	78.8	91.1	91.6	91.5	91.4	90.0	80.8	84.6	85.1
울산	90.3	72.5	80.6	81.1	90.1	90.0	90.5	90.2	90.2	81.3	85.6	85.7
세종	86.9	60.8	72.8	73.5	84.5	79.9	77.2	80.5	85.7	70.4	75.0	77.0
경기	87.3	64.4	74.2	75.3	83.5	79.4	80.7	81.2	85.4	71.9	77.5	78.3
강원	84.8	57.8	67.8	70.1	86.9	81.2	82.2	83.4	85.9	69.5	75.0	76.8
충북	89.8	68.8	78.3	79.0	91.9	92.7	93.0	92.5	90.9	80.8	85.7	85.8
충남	86.3	59.2	70.4	72.0	85.7	89.4	85.6	86.9	86.0	74.3	78.0	79.5
전북	84.9	62.0	69.2	72.0	88.6	84.8	84.4	85.9	86.8	73.4	76.8	79.0
전남	84.1	60.1	69.4	71.2	87.8	84.9	84.6	85.8	86.0	72.5	77.0	78.5
경북	88.8	69.6	76.6	78.3	90.9	90.1	89.6	90.2	89.9	79.9	83.1	84.3
경남	85.3	65.7	73.5	74.8	85.5	84.3	83.1	84.3	85.4	75.0	78.3	79.6
제주	88.1	71.3	77.5	79.0	91.2	87.6	89.0	89.3	89.7	79.5	83.3	84.2

*출처: 교육부(2014), 2014년 학업성취도 보도자료(성윤숙, 홍성호, 2015 재인용).

주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의미함(국어, 수학, 영어의 보통이상 비율의 평균).

3-2-4 사교육비 지출액(2015)

(단위: 만원)

시도	사교육비 지출액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서울	33.8	29.6	35.5	38.3	43.6
부산	23.4	20.9	27.6	23.2	28.2
대구	24.4	21.8	26.8	25.8	31.4
광주	22.8	23.3	27.2	18.2	20.8
인천	21.3	20.3	22.9	21.6	26.8
대전	25.4	25.3	27.3	24.0	28.5
울산	21.9	20.5	26.2	20.2	24.3
세종	19.6	19.1	22.1	18.2	19.9
경기	26.5	24.6	30.0	26.3	29.5
강원	17.1	16.6	21.2	14.3	16.9
충북	19.0	20.7	21.4	14.2	18.2
충남	18.0	21.6	19.9	10.7	12.4
전북	18.6	18.2	24.0	14.4	17.4
전남	16.5	16.3	21.2	12.5	16.3
경북	19.0	20.0	22.6	14.6	17.5
경남	20.4	20.2	24.0	17.4	19.9
제주	20.1	21.2	23.6	14.9	17.2
전체	24.4	23.1	27.5	23.6	27.6

*출처: 통계청(2015), 사교육비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05&conn_path=12 에서 2016년 10월 07일 인출.

주1) 한 달에 평균적으로 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3-3-1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2015)

(단위: 명)

시 도	10~24세 사망자수	10~24세 부상자수	10~24세 사상자수	10~24세 인구수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서울	39	29,844	29,883	1,708,919	1748.65
부산	21	11052	11,073	598,656	1849.64
대구	17	12564	12,581	477,651	2633.93
광주	12	8,668	8,680	312,914	2773.93
인천	14	10,586	10,600	542,446	1954.11
대전	18	6,476	6,494	302,744	2145.05
울산	11	4,400	4,411	229,192	1924.59
세종	1	350	351	30,350	1156.51
경기	83	44,166	44,249	2,361,529	1873.74
강원	18	7,460	7,478	278,436	2685.72
충북	17	6,273	6,290	289,566	2172.22
충남	23	9,464	9,487	359,773	2636.94
전북	19	7,650	7,669	345,563	2219.28
전남	22	6,286	6,308	331,823	1901.01
경북	36	11,189	11,225	452,133	2482.68
경남	20	10,943	10,963	608,668	1801.15
제주	8	2,973	2,981	119,167	2501.53
전체	379	203269	203,648	9,349,525	2178.16

*출처: 도로교통공단(2015).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합DB.

http://taas.koroad.or.kr/web/shp/sbm/initStatsAnals.do?menuId=WEB_KMP_STA,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2015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주1)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 국가 공식통계는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경찰DB임. 그러나 이전 보고서에서 통합DB의 수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 통합DB에서 인출.

2) 청소년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수(십만 명 당)

3)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10~24세 교통사고 사상자수 / 10~24세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4) 지역 미상인 부상자수 12,925명은 전국 교통사고 사망률 계산시 포함하였음(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성윤숙, 홍성호, 2015).

3-3-2 청소년 범죄피해율(2014)

(단위: 명, %)

구분	N	폭력범죄피해				재산범죄피해				전체 피해	성범죄피해	
		금품 갈취	폭행	협박	소계	절도	사기	소매 치기	소계	전체	여자 N	계
서울	1,255	13 (1.0)	8 (0.6)	12 (1.0)	22 (1.8)	96 (7.6)	63 (4.9)	8 (0.6)	146 (11.6)	161 (12.8)	608	26 (4.3)
경기권	2,426	33 (1.4)	16 (0.7)	24 (1.0)	58 (2.4)	144 (5.9)	92 (3.8)	22 (0.9)	219 (9.0)	259 (10.7)	1,267	53 (4.2)
경남권	1,202	15 (1.2)	13 (1.1)	16 (1.3)	28 (2.3)	106 (8.8)	61 (5.1)	14 (1.2)	158 (13.1)	170 (14.1)	684	19 (2.8)
경북권	717	10 (1.4)	5 (0.7)	9 (1.3)	16 (2.2)	51 (7.1)	33 (4.6)	10 (1.4)	75 (10.5)	82 (11.4)	372	9 (2.4)
충청권	903	11 (1.2)	6 (0.7)	12 (1.3)	24 (2.7)	93 (10.3)	49 (5.4)	17 (1.9)	133 (14.7)	146 (16.2)	487	20 (4.1)
호남권	606	11 (1.8)	5 (0.8)	13 (2.1)	21 (3.5)	51 (8.4)	24 (4.0)	10 (1.7)	74 (12.2)	86 (14.2)	344	23 (6.7)
전국	7,109	93 (1.3)	53 (0.7)	86 (1.2)	169 (2.4)	541 (7.6)	321 (4.5)	81 (1.1)	805 (11.3)	904 (12.7)	3,762	150 (4.0)

*출처: 홍영호·연성진(2014), 청소년 대상 범죄 피해 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3면.

주1) 금년 조사연구에서는 시와 도에 의한 지역별로 피해율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서울 및 5대권역별로 피해율을 분석함. 목표 표본 수인 7,000명을 대상으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남학교와 여학교, 일반고와 특성화고 등 고려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아 시도별로 모든 세부 표본을 표집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권역별로 구분하여 표본을 할당할 수 밖에 없었음. 서울 외 5대권역은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제주로 구분하였다 (홍영호·연성진(2014), 133면)."

3-3-3 아동학대피해 경험률(2015)

(단위: 건, 명)

시도	아동학대발생건수 (아동학대사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10만명당)
서울	1179	1,553,812	75.9
부산	525	532,146	98.7
대구	347	434,073	79.9
광주	253	299,495	84.5
인천	511	523,340	97.6
대전	330	292,445	112.8
울산	340	224,569	151.4
경기	2973	2,410,380	123.3
강원	552	257,581	214.3
충북	644	283,134	227.5
충남	615	418,502	147.0
전북	889	331,294	268.3
전남	757	321,632	235.4
경북	808	439,081	184.0
경남	742	618,405	120.0
제주	250	123,229	202.9
전체	11715	9,063,113	129.3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년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3 에서 10월 10일 인출.

주1) ‘아동학대발생건수(아동학대사례)’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의미하므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98면).

2)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아동학대 발생건수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3) 세종시는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지역임. 세종시 인구는 충남에 포함하여 산출함.

3-3-4 학교폭력 발생률(2014)

(단위: 건수)

시도	학교폭력 발생률
전국	4.6
서울	4.6
부산	3.9
대구	7.5
인천	4.2
광주	4.5
대전	3.5
울산	4.6
세종	5.4
경기	3.9
강원	5.4
충북	4.6
충남	5.0
전북	5.0
전남	5.9
경북	5.5
경남	3.6
제주	4.8

*출처: 교육부(2013), 학교폭력대책과 내부자료, 2013년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성윤숙, 홍성호, 2015 재인용).

주1) 중1~고3 청소년 중 최근 1년간 폭행, 갈취, 협박, 왕따 등의 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김지경, 김옥태, 하한주, 2014)

3-4-1 문화여가지출비용(2014)

(단위: 원)

시도	문화여가 지출비용(월 평균)
전체	128,109
서울	122,631
부산	117,000
대구	138,575
인천	143,487
광주	113,413
대전	141,635
울산	160,688
세종	115,462
경기	132,943
강원	141,282
충북	132,653
충남	129,377
전북	119,020
전남	81,260
경북	141,379
경남	124,235
제주	109,238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주1) 문화여가 지출비용(월평균)의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이며, 조사의 기준일은 2011.3.1부터 2014.8.31까지임(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3-4-2 동아리활동 참여율(2014)

(단위: %)

시도	청소년시설·단체가입1)	인터넷동아리가입2)	기타단체가입여부3)	동아리4)
전국	22.8	21.0	26.7	52.3
서울	22.4	20.9	28.1	53.3
부산	21.1	20.5	28.1	53.0
대구	25.3	17.5	26.6	50.6
인천	21.0	14.6	24.2	48.4
광주	14.9	26.4	23.0	49.4
대전	37.3	25.3	44.6	83.1
울산	17.6	17.6	18.9	39.2
세종	50.0	43.8	43.8	68.8
경기	23.3	21.6	28.6	55.3
강원	34.3	22.5	26.5	57.8
충북	20.3	18.8	18.8	45.3
충남	22.2	18.5	26.7	51.9
전북	11.8	16.8	23.5	40.3
전남	17.4	27.3	27.3	44.6
경북	25.0	30.0	17.5	50.6
경남	20.5	15.1	24.4	46.8
제주	37.3	23.5	33.3	64.7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성운숙, 홍성호, 2015 재인용).

주1)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설문지 문항 9-1) “청소년 시설·단체”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

2)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설문지 문항 9-2)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단체나 동아리”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

3)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설문지 문항 9-3) “기타 단체나 동아리”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

4) 위의 3개 문항에서 하나 이상 “있다”고 응답한 비율

※ 사례수(N)는 응답자 중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학생 수로, 동아리 관련 문항에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3-4-3 문화예술시설 비율(2015)

(단위: 개소, 명)

시도	공연 시설	공연장				전시시설			문예 회관	문화원	문화 의집	도서관	문화예술 시설수	2015년 인구	문화예술 시설수 (십만명당)
		전체	대 공연장	중 공연장	소 공연장	전체	박물관	미술관							
서울	383	471	25	376	70	160	122	38	16	25	8	1518	3212	9,907,155	32.42
부산	58	73	2	58	13	21	16	5	11	14	1	676	948	3,478,811.5	27.25
대구	51	58	7	40	11	17	13	4	11	8	-	476	696	2,471,181.5	28.16
광주	33	36	2	30	4	17	10	7	8	5	4	343	499	1,465,091	34.06
인천	37	44	2	38	4	29	25	4	8	8	1	556	756	2,886,542	26.19
대전	30	34	6	24	4	20	15	5	3	5	3	341	490	1,514,389.5	32.36
울산	20	22	1	17	4	9	9	-	5	5	4	258	354	1,163,345.5	30.43
세종	1	1	-	1	-	5	5	-	1	1	-	75	90	182,610	49.29
경기	127	167	23	136	8	187	143	44	35	31	11	2585	3497	12,337,489	28.34
강원	42	53	5	42	6	101	91	10	19	18	10	696	1093	1,533,360	71.28
충북	25	26	2	22	2	52	44	8	13	12	8	530	744	1,571,121.5	47.35
충남	31	45	6	37	2	52	44	8	17	16	7	792	1057	2,055,843	51.41
전북	37	46	6	32	8	51	40	11	17	14	11	813	1086	1,888,351.5	58.44
전남	35	47	3	42	2	68	46	22	19	22	7	934	1247	1,894,202.5	65.83
경북	44	56	5	48	3	73	64	9	26	23	7	1034	1392	2,684,089.5	51.86
경남	44	62	6	49	7	68	60	8	20	20	16	1043	1403	3,336,798.5	42.05
제주	36	39	6	31	2	81	62	19	3	2	18	215	514	611,337.5	84.08
전체	1034	1280	107	1023	150	1011	809	202	232	229	116	12885	19078	50,951,719	37.44

*출처: 통계청(2015). 2015 한국의사회지표, 350-351면.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2015년주민등록인구연안인구.

<http://kosis.kr/>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주1) 지역 인구 십만 명 당 문화예술 시설

2) 문화예술시설 비율 = (문화예술시설수/인구수)×100,000

3) 2013년부터 문화의 집 추가

3-4-4 청소년활동시설 비율(2015)

(단위: 개소, 명)

시도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 호스텔	특화 시설	청소년 활동 시설수	10~24세 인구수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전체	187	233	188	42	128	9	787	9,349,525	8.4
서울	33	16	3	0	4	6	62	1,708,918.5	3.6
부산	8	11	4	2	1	0	26	598,656	4.3
대구	5	6	2	0	1	1	15	477,651.0	3.1
인천	8	4	5	5	4	0	26	542,445.5	4.8
광주	5	6	1	0	0	0	12	312,914	3.8
대전	3	6	2	0	1	0	12	302,743.5	4.0
울산	1	7	1	0	0	0	9	229,192	3.9
세종	0	1	0	0	0	0	1	30,350	3.3
경기	31	49	46	7	21	0	154	2,361,529	6.5
강원	16	28	16	5	17	1	83	278,436	29.8
충북	8	10	19	1	8	0	46	289,566.0	15.9
충남	11	9	14	2	13	0	49	359,773	13.6
전북	11	18	15	3	8	1	56	345,563.0	16.2
전남	11	15	11	7	7	0	51	331,823	15.4
경북	16	13	16	5	18	0	68	452,133.0	15.0
경남	17	14	28	3	8	0	70	608,668.0	11.5
제주	3	20	5	2	17	0	47	119,167.0	39.4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청소년백서, 448면.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2015년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주1) 9~24세 청소년 인구 십만 명 당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2)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 활동시설수/10~24세 청소년 인구)×100,000

3-4-5 청소년 지도사 비율(2013)

(단위: 명)

시도	청소년 지도사 비율
전국	0.9
서울	0.9
부산	0.8
대구	0.8
인천	1.0
광주	0.8
대전	1.0
울산	1.0
세종	1.0
경기	0.9
강원	1.0
충북	0.9
충남	0.9
전북	1.0
전남	1.0
경북	0.9
경남	0.9
제주	1.0

*출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3). 2013년 청소년수련시설 통계 편람.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3년 주민등록인구 연간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성윤숙, 홍성호, 2015 재인용).

주1) 청소년 수련시설 당 청소년 지도사 수를 의미함

2) 청소년 지도사 비율= 청소년 지도사/청소년 수련시설 수

3-5-1 자원봉사 참여율(2015)

(단위: %)

시도	자원봉사 참여유형별 비율						자원봉사 참여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등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	자녀교육 등	국가 및 지역 행사 등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등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서울	57.8	18.1	8.8	9.8	4.0	13.2	17.9
부산	56.3	14.5	8.1	8.1	4.7	20.8	15.5
대구	53.0	11.1	10.1	3.4	3.5	28.6	17.2
광주	59.5	13.7	6.2	3.6	2.2	40.7	18.9
인천	51.0	11.8	8.4	12.0	2.9	30.9	15.8
대전	65.1	15.3	7.9	8.1	5.1	12.6	19.8
울산	69.6	15.4	6.9	8.7	4.1	10.0	16.8
세종	66.3	19.8	8.3	8.6	4.3	8.5	20.3
경기	56.5	21.7	10.9	8.8	4.1	16.6	17.3
강원	54.5	20.5	4.5	10.7	2.1	17.3	21.2
충북	61.4	29.6	3.0	5.9	5.1	6.9	21.0
충남	49.1	27.0	4.1	7.6	2.4	24.4	20.2
전북	60.1	11.1	4.7	4.7	5.1	26.4	17.8
전남	55.3	28.6	4.4	10.2	5.8	20.0	24.4
경북	66.6	17.7	6.2	4.7	4.4	9.7	16.3
경남	66.5	24.3	5.4	4.4	5.8	11.7	20.4
제주	69.3	20.1	7.7	9.1	2.5	4.4	24.9
전체	58.2	19.4	7.8	8.0	4.1	17.6	18.2

*출처: 통계청(2015). 2015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5SP151R&conn_path=3 에서 2016년 10월 11일 인출.

주1) 자원봉사활동 (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3-6-1 통학소요시간(2010)

(단위: 분)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이상)	전체
전국	13.2	18	26.2	52.7	51.7	30.5
서울	14.7	18.5	27.4	63.1	56.1	35.4
부산	13.5	19.2	28.2	46.4	47.3	31.3
대구	13.1	17.2	24.9	43	52.3	29.7
인천	13.3	19.4	28.1	70.3	76.2	37.1
광주	12.5	18.3	27.3	34.9	38.8	26.7
대전	11.8	16.3	23.1	38	36.5	25.1
울산	11.9	17.4	25.5	50.6	48.4	26.6
경기	12.7	17.3	26.3	64.4	74	34.5
강원	13.2	18.5	22.5	32.1	24.3	21.6
충북	13.1	17.6	25.3	39.2	27.6	23.5
충남	13.2	18.8	25.8	38.1	28.5	24.1
전북	12.4	17.6	26.2	33.7	29.6	23.8
전남	13.8	18.7	23.8	35.1	35.1	23.1
경북	13.1	18.6	25.5	36.3	29.4	23.8
경남	13	17.6	25	42.5	43.2	25.4
제주	12	17.9	27.3	37.1	39.1	25.2

*출처: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A1018&conn_path=3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성윤숙, 홍성호, 2015 재인용).

주1) 매일 집에서 학교까지 통행하는 데 걸리는 평균 통학시간(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3-6-2 녹지접근성(2015)

(단위: m²)

시도	1인당 도시 공원 면적	1인당 녹지면적	1인당 도시공원 및 녹지면적
서울	8.2	0.45	8.65
부산	5.5	2.31	7.81
대구	4.6	1.80	6.4
광주	6.2	1.71	7.91
인천	9.2	1.69	10.89
대전	8.5	1.30	9.8
울산	11.6	5.24	16.84
세종	121.0	16.37	137.37
경기	8.4	2.62	11.02
강원	7.8	3.24	11.04
충북	8.5	5.82	14.32
충남	9.5	6.17	15.67
전북	12.5	2.50	15
전남	16.0	6.36	22.36
경북	9.3	3.18	12.48
경남	9.8	3.93	13.73
제주	3.2	0.88	4.08
전체	8.8	2.62	11.42

*출처: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녹색도시과, 2015년말 도시공원 현황,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5 에서 2016년 9월 27일 인출, 2015년주민등록 연양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3 에서 10월 11일 인출.

주1) 1인당 녹지면적은 녹지조성면적/도시지역인구

3-7-1 1인당 지역내 총생산(지역경제수준)(2014)

(단위: 백만원)

시 도	1인당 지역내 총생산(지역경제수준)
서울	33.23
부산	21.59
대구	18.91
광주	20.64
인천	24.32
대전	21.22
울산	58.88
경기	26.84
강원	24.76
충북	31.81
충남	47.60
전북	24.62
전남	35.52
경북	35.11
경남	30.87
제주	24.24
전체	29.46

*출처: 통계청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801&conn_path=13 에서 2016년 10월 11일 인출.

주1) 1인당 지역내 총생산 = 지역내총생산(당해년가격)/추계인구

2) 세종특별자치시는 과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충북 및 충남에 포함

3-7-2 지니계수(2014)

시도	지니계수
서울	0.32
부산	0.30
대구	0.29
인천	0.28
광주	0.29
대전	0.32
울산	0.30
경기	0.30
강원	0.30
충북	0.27
충남	0.26
전북	0.29
전남	0.28
경북	0.29
경남	0.27
제주	0.32

*출처: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직접 계산(성윤숙, 홍성호, 2015 재인용).

주1)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대각선)이 이루는 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시킨 비율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으며,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더 평등함을 의미(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2) 지니계수= $1 + (1 / N) - [2 / (m \cdot N^2)] [\text{SUM } (N - i + 1) y_i]$

3-7-3 사회복지지출비율(2016)

(단위: 천원, %)

시도	사회복지분야예산	자치단체예산규모	사회복지비중
서울	6,879,836,935	19,155,634,899	35.92
부산	2,597,934,294	7,936,628,661	32.73
대구	1,914,988,792	5,456,005,474	35.1
광주	1,247,696,284	3,242,742,218	38.48
인천	2,017,153,651	6,705,474,423	30.08
대전	1,106,183,051	3,001,119,400	36.86
울산	734,336,020	2,981,259,754	24.63
세종	174,999,142	753,684,202	23.22
경기	7,386,394,432	25,789,392,102	28.64
강원	1,573,192,386	7,750,938,308	20.3
충북	1,402,988,364	5,707,920,892	24.58
충남	1,863,233,185	8,211,737,095	22.69
전북	2,009,201,037	7,995,314,401	25.13
전남	2,154,676,546	9,977,459,753	21.6
경북	2,676,205,109	12,368,693,230	21.64
경남	2,797,844,520	11,239,615,533	24.89
제주	673,443,050	3,214,297,326	20.95
전국	39,210,306,798	141,487,917,671	27.71

*출처: 지방재정365, 재정자료, http://din.moj.go.kr/webquare/webquare.jsp?w2Path=/ui/porta/sta/local/budget/sd002_bg500.xml&pageIndex=8
에서 2016년 10월 11일 인출.

주1) 산출방식 = 사회복지분야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X 100

2) 사회복지 분야 :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3-7-4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2014)

(단위: 명)

시 도	10~24세 국민기초생활 수혜자 수	2014년 10~24세 인구수	인구10만명당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자 비율
서 울	37,332	1,757,282	2124.4
부 산	23,781	617,601	3850.5
대 구	91,751	491,491	18667.9
광 주	16,587	319,167	5197.0
인 천	14,639	553,742	2643.6
대 전	10,092	310,628	3248.9
울 산	2,792	235,103	1187.6
세 종	529	23,218	2278.4
경 기	34,693	2,384,311	1455.1
강 원	10,628	283,092	3754.3
충 북	7,695	294,640	2611.7
충 남	9,685	364,486	2657.2
전 북	19,291	352,810	5467.8
전 남	14,410	338,596	4255.8
경 북	16,748	464,162	3608.2
경 남	15,477	620,452	2494.5
제 주	4,699	118,830	3954.4
전 체	260,247	9,529,607	2730.9

*출처: 보건복지부(20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32면.

주1)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입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2)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10~24세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입는 아동·청소년의 수 / 10~24세 주민등록 연앙인구)×100,000

3-7-5 경제활동 참가율(2016)

(단위: 천명, %)

시 도	경제활동인구(천명)	15세이상인구(천명)	경제활동참가율(%)
서울	5,360	8,534	62.8
부산	1,732	2,964	58.4
대구	1,297	2,089	62.1
광주	766	1,273	60.2
인천	1,615	2,466	65.5
대전	803	1,284	62.5
울산	590	970	60.8
경기	6,814	10,575	64.4
강원	783	1,281	61.1
충북	866	1,341	64.6
충남	1,288	1,977	65.1
전북	949	1,530	62.1
전남	964	1,508	63.9
경북	1,486	2,286	65.0
경남	1,746	2,797	62.4
제주	357	513	69.6
전체	27,415	43,385	63.2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6).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5&conn_path=13 에서 2016년 9월 27일 인출.

주1)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2)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3) 2016년 2/4 분기 기준.

4) 15세이상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

3-7-6 실업률(2015)

(단위: %)

시 도	실업률
서 울	4.2
부 산	4.1
대 구	3.5
광 주	3.0
인 천	5.1
대 전	3.5
울 산	2.9
세 종	-
경 기	3.9
강 원	3.3
충 북	2.6
충 남	3.5
전 북	1.7
전 남	2.5
경 북	3.1
경 남	2.6
제 주	1.9
전 체	3.6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201&com_path=120에서 2016년 9월27일 인출

주1)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

2) 세종은 별도로 구분되어있지 않음.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develop “Youth-Happy Community Indicators” using the factors that are identified as affecting the sense of happiness perceived by young people.

The methodology includes Youth Happiness Indicator Survey, the third wave since 2014 and 2015, and in-depth interviews of experts in the Seongdong District (Seoul) and Wanju County (North Jeolla Province), designated as UNESCO Child Friendly Citi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 factors that affect young people’s cognitive happiness (life satisfaction) are found in the following categori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ademic performance); relationships (family, friends, teachers, general inter-personal); subjective well-being (negative psyche, eudemonia, outgoing personality); health (subjective sense of health, stress level, health satisfaction), education (satisfaction with curriculum, school life); safety (school facilities, crisis response capability, living safety); activities (access to playmates, leisure time, youth activity satisfaction); participation (right to self-expression in disciplinary event, respect of tolerance to minorities, student participation); environment (awareness of local community hazard, environment satisfaction); economics (family’s economic status). Some factors appeared to be correlational in different ways that normally thought, requiring further in-depth review. The factors that affect their emotional happiness (positive emotions) ar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cademic performance); relationships (family, friends, trust in other people/government organizations, family dialogue time, general inter-personal); subjective well-being (negative psyche, eudemonia); health (stress level, use of high-caffeine beverages), education (school life, living safety); activities (leisure time, leisure space, spending money for leisure activities, youth activity); participation (tolerance to minorities).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preliminary Major Indicators of Youth Happiness and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esented.

* *Keywords:* Youths, happiness, indicators, UNESCO Child Friendly Cities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 · 김남수
-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 · 최용환 · 도수관
-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 · 이민영
-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 · 이상호
-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 · 변정현
- 16-R08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8-1 2016년 청년 사회 · 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 · 김한별 · 한도희
- 16-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유설희 · 이민희 · 김진호
- 16-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 16-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 2016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유설희
-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II’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 · 김세광
-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정아 · 김희주
-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신현옥 · 최홍일
- 16-R13-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V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최홍일
-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I / 강경균 · 이윤주 · 노성호
-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I - 재중 · 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경준 · 정은주
-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윤철경 · 성윤숙 · 유성열 · 김강호
-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 16-R17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 이종원 · 모상현 · 강현철 · 정윤미 · 한지형
- 16-R17-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 · 이순래 · 정윤미

16-R17-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이장주·한지형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 김태준·박인영·이호경·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 김한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6-R19)

연구개발적립금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최정원·강지명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최정원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중·정은진·정건희

수 시 과 제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정의철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하형석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강경균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김기현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정은진·조혜영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 정은진·김기현

수탁과제

-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유한구·채창균·오승근·김윤나·한영근
-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Ⅱ / 성윤숙·김경준·강경균
-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황여정·정윤미
-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모상현·정은주
-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6-R4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혜정·김승경
-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백혜정
-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지·오해섭·윤철경·김경준·최용환·유설희
-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지·모상현·이윤주·유설희
-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모상현·유성렬·김진석·정윤미
-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최창욱·좌동훈·문호영·정은진
-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문호영
-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김지경·이윤주·정윤미
-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박선영
-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박선영·송원영
-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성은모·강경균
-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장근영·김지경·하형석
- 16-R59 2016년 동작혁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창욱·최용환
-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한지형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세미나 (5/17)
-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 16-S25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 16-S39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1/18)
- 16-S40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 16-S43 청년 세미나-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12/14)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Ⅱ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NYPI BLUE ZINE 창간호

연구보고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V: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인 쇄 2016년 12월 23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휘문인쇄 전화 1661-7576 대표 김점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4(학술·정보팀)

ISBN 979-11-5654-122-6 94330

979-11-5654-100-4 (세트)



연구보고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39-00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